

예산의 인물



예산을 빛낸 131인의 얼굴

예산을 빛낸 131인의 인물,
 그분들은 단순히 역사속의 개인이 아니다.
 그분들의 업적과 위업을 알면 역사의 길이 함께 보인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예산의 인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 보는
 고마운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마음의 양식이 되었으면 한다.



〈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전용국 (예산문화원 부원장)

편집위원 송재철 (전 봉산농협조합장)

박병하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사료 조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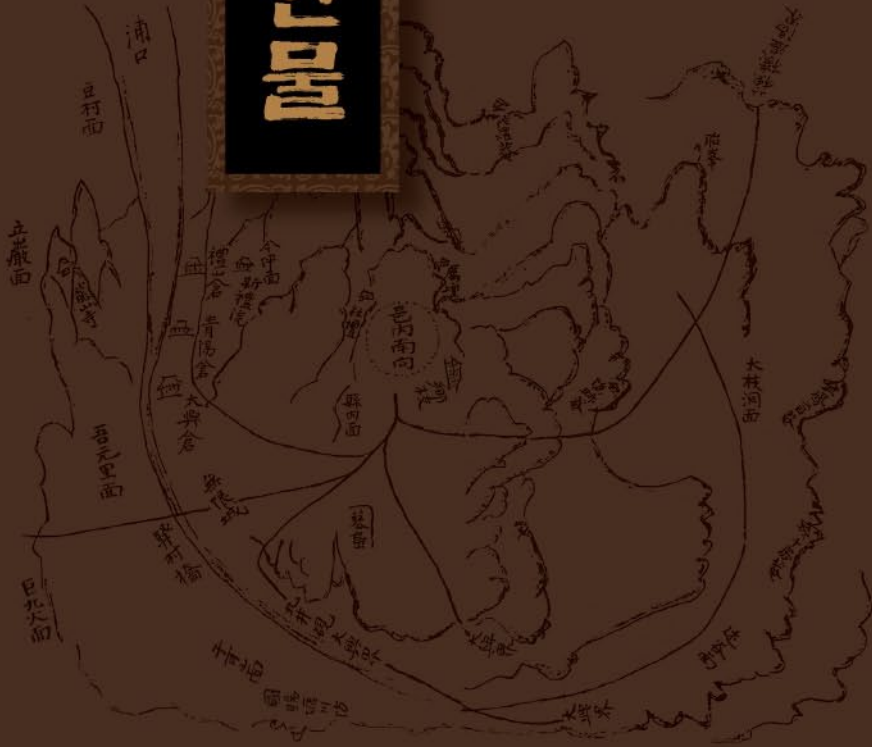
김문희 (예산문화원 이사)

강희진 (예산향토사연구회 회장)

박성목 (예산역사연구소 소장)

정재봉 (농업정보신문/일간원에 기자/충남도정평가위원)

예산의 인물



禮山의 人物



발간사



예산문화원에서는 내고장 예산을 빛내고 예산땅을 아우르셨던 선조들을 발굴하고 후손들에게 예산인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고, 애국·애향의 교훈으로 삼고자 예산지방에 연고를 두고 조국과 민족 그리고 예산지방을 위하여 일하고 헌신 하심으로서 우리고장을 빛내신 선조들을 채록하여 지난 2002년 「예산의 인물」을 간행하였고 기존 발간되었던 예산의 인물에서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로 증보되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어 이번에 증보편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물사를 편집하는 일은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에게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상 조심스러움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존에 발간되었던 인물사를 바탕으로 새로이 조사된 예산의 인물들을 추가로 정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 기존에 74분이 등재되었던 인물사에 새로이 57분을 추가하여 131분이 예산의 인물에 합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형의 자산으로 수많은 문화유적을 품고 있는 예산, 이러한 문화유적들을 만들어 낸 장본인들인 우리지역 선조들의 자취를 발굴하여 기록하는 일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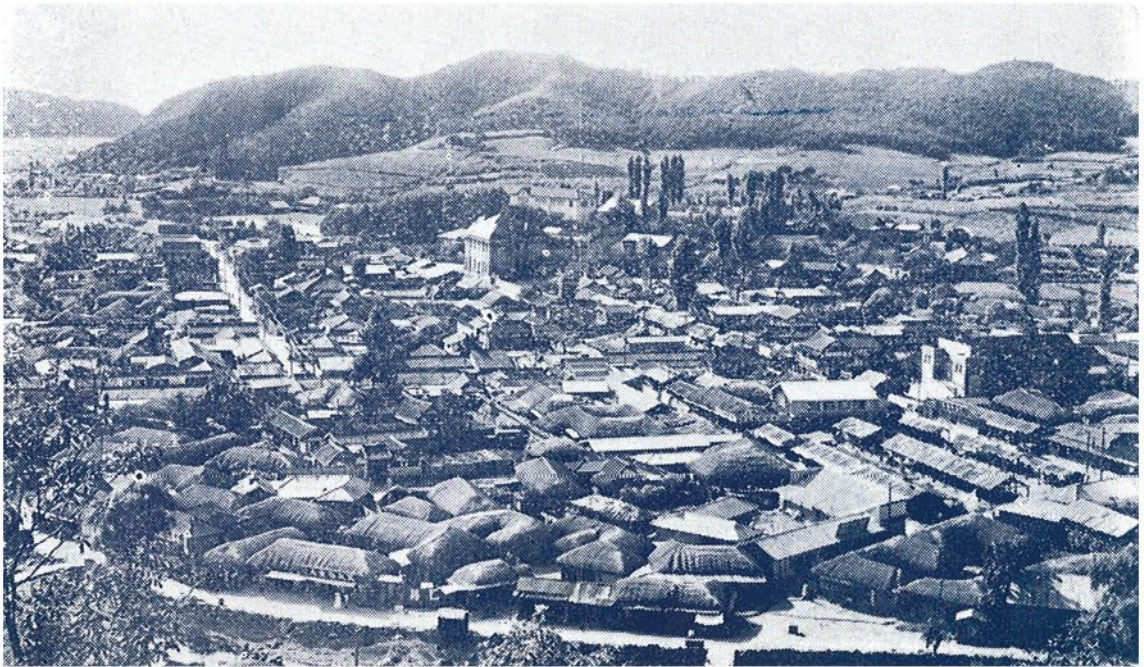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기록을 통하여 예산지역 인물들의 전기를 통해 배우고 익혀 우리지역 예산의 맥을 잇고 예산학의 일부로 발전시키는 한편 예산의 인물 개개인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인물 개인들의 전기까지도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하시어 편집에 임해주신 전용국, 송재철, 박병하, 김문희, 강희진, 박성묵, 정재봉 편집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증보 발행될 예산의 인물에 현 세대는 물론 우리 예산지역의 꿈나무들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어 많은 이름들이 예산의 인물에 주인공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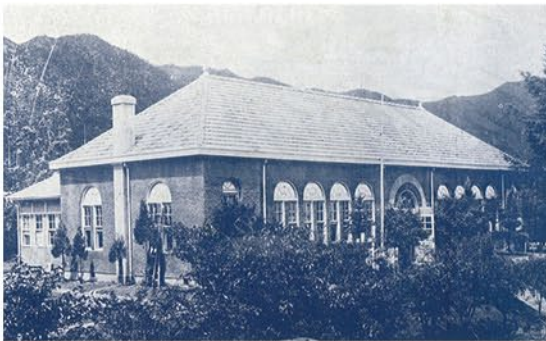
2010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 시 운

사진으로 보는 예산의 옛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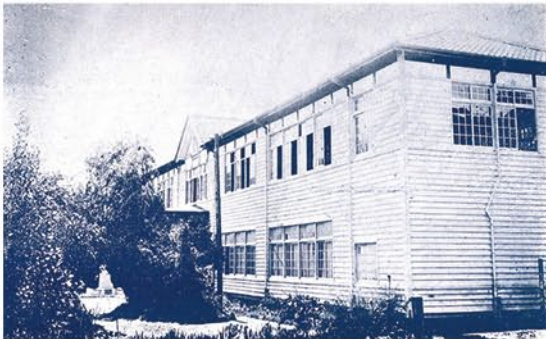
예산시가의 옛모습



예산군청의 옛모습



예산경찰서의 옛모습



예산공립농업학교의 옛모습



호서은행 예산지점의 옛모습

예산의 인물 색인표 (가나다 순)

강민첨	10	서병덕	104	이응노	171
경 허	132	서해조	95	이의배	61
고봉주	174	성만용	176	이종성	198
고운봉	197	성수묵	124	이춘원	59
공신용주	28	성원경	153	이태규	169
권 빈	31	성 혼	54	이해문	181
권 석	85	성희웅	33	이홍규	173
김 구	36	신계영	63	이 흡	50
김노경	115	신숙서	29	인한수	149
김두환	185	신현상	172	일 엽	159
김 려	116	안민학	46	임숙재	154
김만진	119	오도영	166	장문환	152
김상식	201	유정호	158	전광국	107
김용우	141	윤병구	182	전문현	110
김윤행	193	윤봉구	90	전시원	89
김이교	114	윤봉길	178	전운상	96
김정희	120	윤봉오	94	전일상	98
김조순	112	윤자형	142	정현룡	48
김지태	148	윤희두	160	정공모	187
김진규	80	이가환	111	정만석	113
김한신	108	이경전	58	정정화	167
김한종	150	이계전	22	조극선	66
김현창	184	이근주	136	조사석	74
김홍경	88	이기세	170	조석현	139
남연균	118	이길유	105	조성행	168
도 응	19	이남규	133	조 익	56
도 칩	3	이 답	40	조인원	146
마기상	161	이덕성	78	조 정	53
만공월면	143	이 만	69	조종석	202
문구석	145	이명준	60	조태구	82
문병석	156	이명진	75	지수신	6
문장로	128	이 목	68	최문오	151
문장준	137	이문수	127	최익현	125
박두세	76	이병휴	103	추 식	195
박병선	200	이사관	100	한건수	189
박안행	64	이산보	43	한문준	13
박인우	17	이산해	44	한유충	12
박인호	135	이 색	14	한홍조	91
박창로	130	이 서	84	현상벽	86
박창식	191	이성만	20	화선용주	109
박 흥	41	이약수	34	흑치상지	8
방인근	164	이 역	70		
백창현	190	이여발	72		
복 신	5	이영규	140		
서거정	25	이용휴	101		
		이순 형제	20	<예산군 역대 관서장>	203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예산의 선현들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하여 발간함에 목적이 있다.
2. 예산에서 출생하거나 묘소가 있거나 주로 예산에서 활동하신 분중 작고하신 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심도있는 개인사나 연구의 목적이 아닌 인물소개의 글을 위주로 하였다.

도침(道琛) (? ~ 661)



도침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대련사



대련사의 오층 석탑

백제 말엽의 사람으로 백제가 멸망한 후 부흥운동에 가담한 승려다.

도침이 과연 어디에서 출생하였나는 밝혀진바 없으나 대흥 봉수산 기슭에 있는 대련사가 도침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대련사 터에는 백제시대의 기와편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옛 대련사

터는 마사리 박홍 장군 묘소 부근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도침은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신분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임존성과 주류성 부근의 사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측되고 그 힘으로 왕족 복신과 함께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모셔와 왕으로 삼아 당나라로 압송된 의자왕을 대신하여 백제의 왕통을 이었다. 나·당 연합군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부흥운동을 펼치며 주류성에 부흥군의 근거지를 만들고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領軍將軍), 복신은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칭하고 백제의 유민들을 모아 임존성(대흥)에 웅거하여 기세를 떨쳤다

처음의 부흥운동은 도침이 주류성을 근거로 하여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복신은 임존성을 근거하여, 부여 자진은 웅진성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점차 통합된 부흥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장군 유인궤에게 “당이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사람들은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모두 죽인 뒤에 신라에 넘겨주기로 하였으니 어찌 앓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야 있겠는가?” 하고 말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다. 또한 백제부흥군이 수도 많고 사기도 높은 것을 믿고 당장 유인궤가 보낸 사신을 그 관직이 낮다하여 답서조차 주지 않는 고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백제부흥군은 날로 기세가 높아 사비성을 포위하여 당군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였으며 대전 부근의 지라성, 사정성, 웅산성, 진현성 등에 웅거하면서 신라군이 웅진(공주)과 사비(부여)로 통하는 양도를 끊어 나·당연합군을 괴롭혔으나 끝내 사비성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신라 문무왕의 친정으로 인하여 백제부흥군의 거점이 무너지며 사비성 부근의 20여 성이 다시 당에 항복하여 부흥군의 세력은 점차 쇠약하여졌다. 거기에 자진, 복신, 도침 등 세 장수의

세력다툼은 내부적 분열 양상마저 나타난다.

먼저 자신을 유인궤와 내통한 혐의로 처형한 복신은 도침마저 처형시켜 버린다. 그 배경은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도침이 당나라 장군 유인궤에게 보낸 서한이나 유인궤가 보낸 사신에 대한 교만한 태도는 그의 개인적인 무력기반이 만만치 않았음을 생각하게 하며 문헌에도 도침이 복신보다 앞서 기록되어 그의 세력이 복신을 능가하였던 증거를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복신과의 지휘권 다툼으로 복신의 분노를 사 도침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복신(福信) (? ~ 663)



백제 부흥군이었던 복신은 부흥운동의 거점지였던 대흥 임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백제말엽의 사람으로 백제가 멸망하자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백제 30대 무왕의 조카인 동시에 31대 의자왕의 사촌 동생으로 임존성(대흥)의 성주로 부임하였으나 의자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근친 축출과정에서 젊은 장군 흑치상지에게 성주 직위를 넘겨주었다.

660년 사비성이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되고 의자왕이 신라에 항복하게 되자, 도침과 함께 주류성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는 한편, 일본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북부지방 백제유민들의 호응을 얻어 한때 사비성까지 쳐들어가 당군을 완전 고립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사비성 안의 당군은 싸울 생각은 엄두도 못내고 지키기만 하였다. 당나라 장수 유인원이 사비성에서 포위되자 당나라는 유인권을 급히 파견하여 구원케 하였다. 그때 신라 문무왕의 친정까지 겹쳐 사비성 부근의 20여성이 다시 나당에 항복하여 백제부흥군의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임존성으로 후퇴하였다.

복신을 주축으로 하는 백제부흥군은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대전 부근의 웅산성, 사정성, 진현성 등을 공격하여 이를 탈환하였다. 그 밖에 신라군이 금강상류를 통하여 식량을 수송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니 나당 연합군은 한때 곤궁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흥군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부흥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당나라의 증원군이 도착하고 신라의 김유신이 대전의 웅산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여기에 더하여 도침과의 불화가 표출된다. 이에 앞서 부여 자진을 유인권과 내통한 혐의로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처형한다. 왕이 형을 감해주려고 하였으나 복신은 고집하여 마침내 자진을 참형하였다.

도침은 처음부터 복신과 대등한 병권을 쥐고 있었을 만큼 세력이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근거지를 왕도(주류성)로 삼았던 것도 그의 세력이 상당했음을 암시한 것이다. 어쨌든 병권을 둘러싼 암투는 결국 복신이 도침을 죽이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한다. 막강한 부흥군의 전력은 이탈되기 시작한 것이다. 겁을 먹은 풍왕은 복신을 두려워하여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안 복신은 거짓 병을 핑계로 굴속에 누워 있다가 부여풍이 문병 오는 것을 기다려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챈 부여풍이 먼저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복신을 죽였다. 이로써 부흥운동의 거두는 내분으로 인하여 스스로 아군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전략가인 복신의 죽음과 일선 지휘관의 교체는 부흥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류성이 함락되면서 3년 여를 이끌어온 부흥운동은 막을 내렸다.

지수신(遲受信) (? ~ ?)



백제 부흥운동군의 중요 거점지였던 임존성에는 아직도 우물터가 남아있다.

지수신은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 백제 멸망 후의 부흥운동가로 660년(의자왕 20) 백제가 멸망한 후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처음에는 고구려, 왜국의 후원을 받음으로써 그 세력이 강하여 졌으나, 얼마가지 않아 백제부흥군 지도층의 내분이 생기고, 또 663년(문무왕 3) 9월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두릉이성(豆陵伊城), 주류성(周留城)등 여러 성이 함락당하자 백제왕 부여풍(扶餘豐)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왕자 부여충승(扶餘忠勝) 부여충지(扶餘忠志)등은 그 무리를 이끌고 왜인과 함께 항복하였을 때, 그 만은 북부의 거점인 임존성에 웅거하며 항복하지 않았다.

주류성 함락이후 왜로 망명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부흥군 세력은 거의 대부분 사로잡혔거나 항복했지만 임존성만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임존성은 지세가 험준할 뿐 아니라 성이 견고하고 식수 또한 풍부하여 많은 군사가 기거할 수 있고 대흥벌 곡창지대에서 양곡을 날라다 많이 비축하여 식량도 풍부하였다.

신라 군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10월 21일부터 재차 공격을 시도 했지만 임존성은 20덕도 하지 않았다. 명장 김유신의 지휘하에 한 달 남짓한 공격을 하였지만 임존성의 부흥군은 조금도 동요 없이 잘 막아 내었다. 신라군대는 벌써 초겨울에 접어들어 말에 먹일 풀은 말라가고 군사들의 옷도 헤어져서 추위에 떨고 양곡도 바닥이 나 군사들이 굶주리니 부득이 11월 4일에 회군하고 말았다.

다음에는 당군이 임존성을 공격하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당군은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에 있는 퇴미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당군의 주 공격로는 마사리를 거쳐 올라왔다고 한다. 그곳이 지형적으로 임존성을 공격하기 좀 수월한 곳이기 때문이다. 당군도 집요하게 임존성을 공격하였으나 지수신은 부흥군을 잘 통솔하여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에 당의 유인케는 항복한 흑치상지와 사타상여를 이용할 계책을 쓴다. 두 장군에게 공을 세우게 해 준다는 구실로 임존성 공격을 명하고 그의 반심이 없음을 확인 하려고 군대를 딸려주었다. 이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주변민족 통치방식인 이이제이(夷以制夷) 수법을 고스란히 적용한 것이다. 흑치상지는 누구보다 임존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성주였기 때문에 내통하는 자도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사타상여 역시 백제의 유력가문인 대성팔족의 하나인 사택씨 출신으로서 부흥운동 초

기 별부장의 직책에 있었다. 어제의 동지가 지수신에게 창을 겨누게 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지수신은 눈물을 뿌리며 북벽을 넘어 처자식을 적지에 남겨놓고 황망히 해로로 고구려에 망명하였다.

이로써 3년간 이끌려 오던 백제부흥운동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부흥운동의 잔맥도 완전히 끝나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흑치상지(黑齒常之) (630~689)



대흥 임존성 백제부흥군위령제

백제 말기의 장군으로 임존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백제 서부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흑치가 어느 곳인가는 정설이 없다. 의자왕에 의하여 왕족 복신을 대신하여 임존성주로 임명받고 부임하면서 백제 멸망을 보게 된다. 흑치상지는 청년장군으로 7척이 넘는 키에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멸망 직후 임존성이 이전

성주 복신에 의하여 접수되자 그는 부대를 이끌고 사비성으로 가 소정방에게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 이하 여러 대신 등이 수모를 받는 것을 보고 수하장수들과 함께 적지를 탈출하여 복신의 부흥군에 합류하고 임존성을 중심으로 거병하여 10여일 만에 그 수효가 3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기세는 사뭇 커 일시에 200여성이 호응하였다.

이에 나당 연합군은 원병을 보내어 사비성의 포위를 뚫고 웅진에 이르는 식량 수송로를 확보하게 되니 부흥군의 기세는 쇠퇴하게 되었다.

여기에 겹쳐 부여 자진과 복신의 주도권 싸움으로 자진이 처형되고 복신과 도침의 불화로 도침이 참형되는 적전분열양상이 계속 되었다. 다시 복신과 풍왕과의 반목으로 복신이 풍왕한테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러 부흥군의 내분은 극에 달한다.

흑치상지가 당나라에 항복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주류성이 함락된 후가 아닌가 추측된다. 부여 용의 집요한 투항 권고와 중국 특유의 미인계 공작에 걸려들어 당나라에 항복하고 마지막으로 지수신이 지키는 임존성을 사타상여와 함께 공격하여 함락시켜 백제부흥운동의 잔맥을 끊는 일을 했다.

당나라로 건너간 그는 좌령군 원외장군 양주좌사가 되어 토번(티베트), 돌궐을 치는데 공을 세워, 그 관직과 신임이 중국사람 보다 두터워 벼슬이 연연도대총관 연국공에 까지 이르렀다. 국공(國公) 이관은 당나라에서 9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귀족 직위중 세 번째로 식읍 300호를 소유하게 되어 있었다.

그뒤 측천무후의 통치때 응양장군 조희절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주홍 등의 무고로 옥에 갇혔다가 처형되었다. 689년 10월 9일 (양력 11월 26일)이었다. 그러나 『구당서』 흑치상지전에는 『묘지명』과 달리 옥중에서 목매어 죽은 것으로 되어있다.

흑치상지는 백제 부흥운동군의 장군으로 조명하기에 난감한 인물이나 당나라에 항복하여 중국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중국측 사서에 상세하게 남아있어 백제부흥운동사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흑치라는 지명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묘지명』에는 “그 선조는 부여씨에서 나와 흑치에 봉해졌으므로 자손이 이를 따 씨(氏)로 삼았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흑치상지의 억울한 죽음은 장남인 흑치준의 노력으로 698년 신원되고 좌옥검위대장군으로 추증되었으며 699년 낙양 북망산으로 이장되었다.

강민첨 (姜民瞻) (963~1021)



강민첨 영정 (국립중앙박물관)



강민첨 묘 (대술면 이터리)



묘비

고려의 장군으로 본관(本貫)은 진주(晋州)이다. 그의 출생지는 미상이며 그의 묘소가 대술면 이터리에 있는데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에 안장되었는 지는 근거가 없다.

고려 목종때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지기(志氣)가 있고 강과(剛果)하여 주로 전공을 통하여 입신하였다. 1012년(현종 3) 5월에 동여진(東女眞)이 영일, 청하 등지에 쳐들어오자 도부서(都府署)의 문연(文演), 이인택(李仁澤), 조자기(曹子奇) 등과 함께 안찰사로서 주군병(州郡兵)을 독려하여 격퇴하였다. 1016년 내사사인(內史舍人)이 되었으며 1018년 거란의 소배압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내침하자 상원수(上元帥), 강감찬(姜邯贊)의 부장(副將) 즉, 부원수(副元帥)로 출전하였다. 고려는 20만 대군으로 막았는데 두 장군은 안주에 본진을 두고 의주동남 50리 지점에 있는 홍화진으로 나가 정기 1만 2천을 산중에 숨기고, 성동대천(城東大川)을 막아 두었다가 수공작전을 벌여 적을 대파하였다. 무모하게도 적은 개경으로 진군하였으나 청야작전으로 맞서 적이 퇴각하자 다시 대파하니 생환 한자 수천에 불과하였다 한다. 그 공으로 응양상장군 주국공신이 되었고 이어 우상기상시에 올라 추성치리익대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이듬해 지중추부사 병부상서가 되었다. 죽은 뒤에 3일 동안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그의 공로로 그의 아들 단(旦)에게도 녹자를 가하였다. 태자태부에 추증되었으며 문종때 공신각에 올랐다.

강민첨의 영정은 조선시대의 화가 박춘빈이 그린 고려시대의 명장 강민첨의 초상화로 비단 바탕에 채색, 세로 80cm 가로 61.3cm 보물 제588호,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이다. 이 초상화는 화면 윗 부분에 기록된 제기에 의하면 고려시대 당시의 공신상은 아니고, 1788년 박춘빈이라는 화사에 의하여 이모(移模)된 것으로서 이상의 범본(範本)으로 삼았던 본은 당시 우방사(牛芳寺)에 있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진주목을 살펴보면 원래 강민첨의 화상은 진주 우산에 있는 모방사(茅房寺)에 있다가 이 상이 이모되기 전 어느 시기엔가 우방사로 옮겨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상의 형식은 복두에 정장을 하고 홀(笏)을 들고 앉은 우언팔분면(右彦八分面)의 반신사로서 고려시대 공신상 형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의자에는 호피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이모 당시 즉 18세기 후반의 특징인 상용형식을 빌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고려시대에 살았던 인물의 초상화가 희귀한 실정에서 이 모본을 통해서나마 그 전체적인 표현형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유충(韓惟忠) (1100~1146)

고려의 문신으로 본관은 대흥이다.

한문준의 아버지로 한유충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권 99열전 12에 기록이 조금 남아있을 뿐 자세한 기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몇군데에서 기록을 조금 찾을 수 있다.

한유충이 중앙정치의 요직으로 기록에 보이는 것은 이자겸의 패몰후로 인종왕비였던 이자겸의 두 딸이 모두 폐위출궁(廢位出宮)되고 선평왕후(宣平王后) 김씨가 차비(次妃)로 책봉되면서 한유충은 그의 인척(姻戚)으로 점차 요직으로 진출하게 된다. 인종 10년(1132)에 한유충과 윤영담이 과거의 시제(試題)를 잘못했는데도 왕비의 청으로 과방(罷榜)을 모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인척의 전횡을 짐작할 수 있다.

1133년 이지저(李之底)와 함께 송나라에 사신으로 가다가 홍주(洪州)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되돌아왔다. 1135년 예부상서동수국사(禮部尙書同修國史)를 역임하였고, 이듬해에는 추밀원부사로 당시 김부식이 묘청의 난 토벌군의 대원수직을 맡고 있는데 중군병마사가 군무를 방해한다고 상주하여 충주목사로 강등되었다. 김부식과의 불화는 그를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나 1142년 김부식이 나이 들어 문하시중에서 물러나자 다시 기용되어 좌복야 추밀원사 판삼사사(左僕射樞密院使判三司事)를 거쳤다 이는 군기, 인사, 재무를 관장하는 직책이었다. 이어 참지정사 관공부사 겸 태자소보(參知政事判工部事兼太子少保)에 오르고, 관상서예부사 수국사 태자소보(判尙書禮部事修國事太子少保), 중서시랑문하평장사태자소사(中書侍郎門下平章事太子少師)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144년(인종 22)에는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과거를 관장하였는데 그때 불화를 빚던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응시하여 2등을 매겼으나 왕이 김부식을 위로하기 위하여 1등으로 올려주었다 한다.

1145(인조 23년) 중서시랑문하평장사태자소사에 오르고 1146년(인종 24년) 2월에 인종이 죽었는데 한유충도 동년 9월 17일에 죽었다. 새로 등극한 의종은 3일 동안 조회를 폐하였다(三日輟朝)한다.

그의 묘는 대흥현에 묻혔을 것으로 추측되나 후손들의 거취가 불명하여 찾을 수 없다. 대흥현 지에도 한유충, 문준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까지도 그의 후손이 건재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의 문집이나 필첩 등이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근검절약한 것으로 당시 존중되었다는 기록만 보인다.

한문준(韓文俊) (1117~1190)

고려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대흥이며 평장사 한유충의 아들이다. 고려사 권99 한문준전에 의하면 그는 성품이 맑고 바른 위에 탈속한 기품을 타고 났으며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부친 한유충이 “우리가문을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어린 시절은 10여세때(1126) 이자겸의 난을 겪으며 그 결과 새로 책립한 선평왕후(宣平王后) 김씨의 인척으로 그의 부친이 크게 발신하여 재상의 지위에 오르자 유복한 환경에 몸담게 된다. 그러나 묘청의 난(1135)이 일어나자 대원수 김부식과 토벌과정에서 불화가 일어 중군병마사가 군무를 방해한다고 상주하여 군기를 관장하던 한유충이 충주목사로 강등되며 권력싸움의 한파를 겪는다.

1142년(인종 20) 김부식이 은퇴하자 그의 부친이 중앙부서로 복직되어 인사, 군기,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문준은 튼튼한 후견인을 갖게 된다. 그가 언제 등과하였는지는 기록에 없으나 인종조에 등과하여 재명(才名)을 떨쳤다고 한다. 30세 되던 1146년 인종이 서거하고 그의 아버지도 그 해에 죽으니 정치 후견인을 잃은 그는 주로 외직으로 근무하였다. 장주(長州 함남 정평) 장흥, 남원 3군의 부사와 남경(서울)의 부유수를 역임하는데 곳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들었다. 그의 외직은 그에게 있어 절대적인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 당시의 중앙정치무대는 무신에 대한 경멸과 차별대우가 도를 지나쳐 마치 역부와 같았다 한다. 거기서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 분노를 쌓이게 했으며 의종은 이러한 무신들의 불만을 아랑곳 하지 않고 문신들과 밤늦도록 연회를 계속하고 무신들은 그들을 경비하느라 배고픔에 허기져있었다. 쌓이고 쌓인 불만은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왕의 보현원 행차에 거사를 거행하기로 하였는데 가는 도중 오문 앞에서 수박놀이를 하다 대장군 이소응이 늙어 실수를 하자 문신 한퇴가 이소응의 뺨을 때리는 광경을 보고 분노가 폭발하여 그 자리에서 모든 문신을 죽여버리고 의종을 폐한다. 이를 무신의 난이라 하는데 한문준은 외직에 있어 화를 면하고 명종초에 추밀원우선선에 뽑혀 부사에 승진하였는데 송유인(宋有仁)에게 거슬러 판사재지사로 강등되었다.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180년 참지정사 보문각 태학사판예부사(寶文閣太學士判禮部事)가 되고 이어 1182년 정당문학이 되어 재상자격으로 과거시험을 주관한다.

1183년 경대승이 병사하자 병권의 책임자인 정당문학판병부사(政堂文學判兵部事)가 되었다. 1183년(명종 12)에는 문하시랑평장사판이부사(門下侍郎平章事判吏部事)가 되었다가 1186년(명종 16) 70세의 나이로 치사(致仕)하니 매사에 공정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가 죽은 후 명종은 3일철조(三日輟朝) 하였으며 정의(貞懿)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색(李穡) (1328~1396)



목은 이색 영정



목은 이색 영당(삼교읍 이리)

목은(牧隱)은 서기 1328년 경북(慶北) 영해(寧海)에서 탄생(誕生)하고 서기 1396년 5월 9일 경기(京畿) 여주(驪州) 사강(沙江)에서 홀연(忽然) 급서(急逝) 하

였다.

본관(本貫) 한산(韓山)이고, 휘(諱) 색(穡)이고, 자(字)는 영숙(穎叔), 호(號)는 목은(牧隱)이고, 시호(諡號)는 문정(文靖)으로 고려(高麗) 찬성사(贊成事) 문효공(文孝公) 이곡(李穀)의 자(子)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고려(高麗) 삼중대광문하시중(三重大匡門下侍中)에 오르고 당대에 절의(節義)가 숭고(崇高)하고 도학(道學)과 성리학(性理學)의 대가(大家)로 문장(文章)이 고명(高名)한 고려말(高麗末) 충신(忠臣)이며 유종(儒宗)으로 고려(高麗) 삼은(三隱) [목은 이색(牧隱 李穡),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야은 길재(冶隱 吉再)] 중 한분이다.

국내(國內)에 목은(牧隱)의 영정(影幀) 또는 위패(位牌)를 봉안(奉安) 향사(享祀) 해오고 있는 서원(書院)은 한산문헌서원(韓山文獻書院), 청주 신향(淸州 莘港), 장단 봉금(長端 鳳琴), 평산 운봉(平山 雲峰), 영해단산(寧海 丹山), 공주동학 삼은각(公州 東鶴 三隱閣), 나주 예양(羅州 汭陽), 하동 금남(河東 錦南), 여주 매산(驪州 梅山), 안동 서산서원(安東 瑞山書院) 등 이고, 영당(影堂)은 서울 수송동, 덕산 누산(德山 樓山), 대전 문화동(大田 文化洞), 부여 홍산(鴻山), 장흥 놀양(長興 訥陽), 연천(連川), 횡성(橫城), 경성 영귀정(鏡城 詠歸亭) 등에서 향사(享祀) 해 오고 있다.

목은(牧隱) 영정(影幀) 화본(畫本)은 홍포서대지상(紅袍犀帶之像) [여계입조복(麗季立朝服)] 과 초립백의지상(草笠白衣之像) [거가지복(居家之服)]의 유상(遺像)이 전래되다가 실전(失傳)하였다.

서기 1514년 후손(後孫) 중 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이 화공(畫工) [성명미상(姓名未詳)]에게 홍포서대지상(紅袍犀帶之像)을 모사(模寫) 2본(二本)케 하여 당시 좌의정(左議政)

이유청(李惟淸)이 봉안(奉安)하고, 1본(一本)은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삼자(三子) 양경공(良景公) 이종선(李種善)의 증손(曾孫) 봉화현감(奉化縣監) 이장윤(李長潤)이 봉안(奉安)하였다.

서기 1592년 임진(壬辰) 병화(兵禍)때 이장윤(李長潤)의 장증손(長曾孫) 아주군(鵝洲君) 이식(李埴)이 덕산현권(德山縣 圈-현 삽교 이리)으로 천봉(遷奉)하고, 서기 1600(庚子)년에 이르러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과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소청(疏請)으로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윤허(允許)하여 목은 이색의 8대손 한양군 이흥준(韓陽君 李興峻)이 영당(影堂)을 창건(創建)하고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하고 향사(享祀)해 오는 곳이 누산영당(樓山 影堂)이다.

서기 1654년 화공(畫工) 허의(許懿) 정기근서(廷夔謹書)로 하여금 모사(模寫) 2본(二本)케 하여 1본(一本)은 누산영당(樓山 影堂)에 봉안(奉安)하고, 1본(一本)은 서울 수송동 영당(影堂)에 천봉(遷奉)하였고, 누산영당(樓山 影堂)에서 봉안(奉安)해 오던 사본(舊本)은 문헌서원(文獻書院-서천군 기산면 영모리)에 천봉(遷奉) 향사(享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누산영당(樓山 影堂)에 봉안(奉安)한 영정(影幀)은 국가보물 제1215-3호로 지정되고, 문헌서원(文獻書院)에 봉안(奉安) 영정(影幀)과 서울 수송동 영당(影堂) 천봉(遷奉)한 영정(影幀)도 국가보물로 지정되었다. 영당은 1871년 고종8년 단기 4204년 보수·개축되고 서기 1993년에는 사우전동(祠宇全棟) 신와(新瓦)로 개증(改葺)하고 단청(丹青)하였다. 영당(影堂)의 뜰 앞에는 수령(樹齡) 440여 년의 향사(香木-둘레 3m) 보호수 2그루가 긴 세월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후손중(後孫中) 공신(功臣)으로 예산군 내에 영당(影堂)과 부조묘(不祧廟)에서 사제(賜祭)하는 후손(後孫)은 보국 승록대부 영중추원사(輔國 崇錄大夫 領中樞院事) 문열공 이계전(文烈公 李季甸)의 불천지위 부조묘(不遷之位 不祧廟). 1590년과 1599년 영의정(領議政) 복배수(復拜受)한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의 영당(影堂)과 이조판서(吏曹判書) 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 명곡 이산보(鳴谷 李山甫)의 영당(影堂). 공청도병마절도사(公淸道兵馬節度使)로 병자호란(丙子胡亂)때 경기 광주 쌍령 전투 때 순절한 충장공 이의배(忠壯公 李義培) 불천지위 부조묘(不遷之位 不祧廟)이다.

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간기(簡記)할 것은 영당(影堂)과 부조묘(不祧廟)와 사당(祠堂)은 제례(祭禮)를 향사(享祀)하는 비슷한 의미의 명칭인데 구분해서 부연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당(影堂)은 왕명(王命)으로 국가 공신(功臣)의 영정(影幀)과 불천지위(不遷之位) 위패(位

牌-신주(神主))를 봉안하고 향사(享祀)토록 나라가 지정 마련된 사제당(賜祭堂)을 말하고, 부조묘(不祧廟)는 왕명(王命)지정 나라 공신(功臣)의 불천지위(不遷之位) 위패(位牌-신주(神主))를 봉안하고 향사(享祀)토록 마련된 사제당(賜祭堂)이다.

사당(祠堂)은 제당(祭堂)이란 의미 측면으로는 같으나 왕명 없는 창건(創建)과 불천지위(不遷之位)가 아닌 위패(位牌-신주(神主))도 봉안(奉安) 향사(享祀) 할 수 있는 제당(祭堂)이라고 구분될 수 있을것이다.

목은 이색을 예산의 인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색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지은 영당이 삼교읍 이리(二里)에 있기 때문이다. 삼교의 이색 영당 앞에는 솟을삼문이 세웠져 있고, 위쪽에 ‘문충문(文忠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영당 위에는 ‘목은선생영당(牧隱先生影堂)’이라는 현판이 있다.

박인우(朴麟祐) (1338~1410)



창절사 (예산읍 간양리)



창절사 춘향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지만 ‘한 나라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불사이군 절의정신으로 고려왕조를 끝까지 섬긴 충절인이다.

공(公)은 호가 초

암(草菴)이고 밀성박씨 중조인 밀성대군 언침의 후손으로 삼사좌윤공 을재(乙材)의 6대손이다. 판사(判事)를 역임한 천응(天應)과 죽산안씨 사이의 둘째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총명하고 강직하였다. 일찍이 문효공(文孝公) 가정(稼亭) 이곡(李穀) 선생에게 수학하여 문예가 일찍 성취되었고 포은 정몽주(鄭夢周), 야은 길재(吉再) 두 선생과 증유했다.

여말에 문·무 과거에 모두 합격하고 행직은 양광도병마절제사(楊廣道兵馬節制使) 봉익대부 전법판서(奉翊大夫典法判書)이다.

내포지역이 최영 장군의 출생지라서 그런지 더욱 기승을 부린 왜구침략이 136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공주를 비롯한 내포일대가 점령당하자 고려조정은 군사를 총동원하여 왜구 소탕작전에 나섰다. 1376년 공(公)은 최영의 수하 장수로 최영과 함께 왜구의 거점인 홍산전투에 참여하여 대승을 거두고, 예산 덕산 면천 일대의 왜구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다.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후 최영 장군을 처형시키자 점차 나라의 통치가 혼란하고 날로 그르쳐감을 보고 간하다가 듣지 않음으로 물러와 은거하였다.

고려 왕권이 무력화 되고 여러차례 격변을 겪는 동안 조정은 왜구 퇴치를 위해 일본에 보빙(報聘)을 파견하는 등 외교책을 힘썼지만 왜구의 노략은 끊이지 않았다.

때마침 왜구가 전국 각지에서 노략질을 일삼아 나라의 큰 위협이 되자 조정에서 의논이 “공(公)이 아니면 능히 왜구를 토벌하지 못한다” 하므로 공양왕 원년(1389) 10월 다시 일어나 양광좌우도 수군 도만호(楊廣左右道水軍都萬戶)가 되어 왜적을 모두 토벌하였다.

공(公)은 또한 바닷가 침탈지역 일반 양인들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지자 이들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조세를 받지 않고 수군의 처자를 양육하는 위민정책을 폈다.

공(公)의 기록이 전해지는 [고려사 권제83, 32장 앞쪽, 지 37 병 3 선군]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양왕 원년 10월에 박인우로 양광좌우도 수군 도만호를 삼고 하교하기를, “도내의 병선을 거

느리고 그 만호·천호·영선두목인 등의 능력을 살펴서 능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재간과 위망이 있는 자로 이를 대신케 하고 병기를 미리 갖추게 하여 왜적을 추포케 하되 만약 각 선의 만호 등이 자기 마음대로 방군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피하거나 깊은 포구에 은밀히 정박하여 응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각 선의 대소 군관과 도만호가 군법에 의거하여 단죄하라.” 하였다.

恭讓王元年十月 以朴麟祐 爲楊廣左右道水軍都萬戶 下旨曰 領道內兵船 察其萬戶 千戶 領船頭 目人等能否 有不能者 擇有才幹威望者 代之 令預備器械 追捕倭賊 若各船萬戶等 擅自放軍 以營己私 隱泊深浦 不及應變者 各船大小軍官 及都萬戶 依軍法斷罪

이성계는 조민수가 세운 아홉살의 창왕을 폐하고 제20대 왕인 신종의 7세손 정창군 요창(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을 세웠으며 또 공양왕은 즉위하자마자 폐위된 우와 창을 죽인다. 또한 창왕을 옹립했던 조민수는 대사헌 조준에게 탄핵되어 전라도로 방출되었으며 이로써 고려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이성계는 3년 뒤인 1392년 7월, 조준, 정도전, 남은, 이방원 등의 추대에 힘입어 왕으로 등극하고 전왕을 공양군으로 강등시켜 원주에 유배시킨다.

고려 왕실은 34왕 474년으로 막을 내렸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은 원주, 간성, 삼척 등을 떠돌다가 2년 후인 1394년 이성계의 명에 의해 처형되었다.

고려의 왕으로 등극한 이성계는 차차 새 왕조의 기틀이 갖추어지자 공(公)은 관직을 초개(草芥)같이 버리고 망복(罔僕: 종노릇하지 않음)의 의리를 지키고 예산 덕방산 자락 초막골에 은거하면서 불사이군 정신을 지켰다. 처음 은거했던 ‘초막골’은 현재까지 지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초막골의 연유는 공(公)이 처음 은거할 때 풀집을 짓고 외를 심고 대를 가꿈으로 일과를 삼고 자정(自靖) 했기 때문이다.

공(公)은 이태조가 잠룡(潛龍:왕위에 오르기 전)시절 옛 친구였다. 이태조가 공(公)을 병조판서를 시키려고 세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자손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조의 직함(職卿)을 쓰지 말 것이며 과거도 보지 말라”고 하고 평상시에 북쪽을 향하여 앉지 않고 마침내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초막동에서 청빈낙도하며 오직 일편단심 불이(不二)의 충절을 지키다가 한 많은 세상을 마감하니 태조가 그 절의를 가상히 여겨 추허하였다.

후손들이 공(公)의 충절정신을 기리고자 1986년 세거지 집성촌인 예산읍 간양2리에 창절사(彰節祠)를 건립하고 충효의 터전으로 삼아 수호(守護)와 천향(薦享)에 전력(全力)을 다하고 있다. 공(公)의 묘는 초막골(草幕洞 현 신례원2리) 언덕에 있으며 정부인 신평최씨는 효자리 금사골 중록에 있다.

도응(都鷹) (1389~?)



도응의 묘 (응봉면 지식리)

고려말기의 문신이며 초명은 유(兪) 자는 자예(子藝) 호는 청송당(靑松堂)이고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태조 이성계와 어렸을적 친구였다고 한다. 고려 말기 중2품에 해당되는 찬성사로 있었으나 그때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하여 고려왕조의 실질적 유력자가 되니 결국 공양왕을 폐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때 이성계는 민심수습차원과 과거의 친구에게 예우로써 도응을 상장군에 임명한다. 그러나 도응은 이를 사퇴하고 불사이군의 유교적 이념을 지켜 낙향한다. 그 당시 조선 개국을 전후하여 유교적 대의명분을 지켜 조선에서 벼슬하지 않고 절개를 지킨 학자들, 이성계의 등극을 반대하여 고려 멸망전에 낙향하여 은둔한 사람, 이씨편에 맞아죽은 사람, 조선 성립 후 두문동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을 고려수절신이라 하는데 도응도 그중의 한분이다. 그들은 후손 3대까지도 벼슬하지 말라고 유언하여 그 후손들이 벼슬을 하지 않았다.

도응은 태조의 부름을 다섯차례나 받았으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모두 거절하였다. 이에 태조는 그 절의에 감탄하여 도응의 호를 청송당(靑松堂)이라 하사하고 또 『愛看靑松節 貞幹手以摩 塞岡千仞上 霜雪不曾磨』란 찬양시 한 폭을 내렸다. 그 후 이태조와의 관계는 기록이 없으며 문장에 능하였다고 하나 전하는 문집은 없다.

순조 8년 성주 설천서원(雪川書院) 장성 경현사(景賢祠) 개성 두문동서원(杜門洞書院)에 재향하고 고종 18년 왕지와 녹패를 국가문화재 보물 제724호로 지정하고 정부보조로 연산면 관동리에 보호각을 건립하였다.

그의 묘는 응봉면 지식리에 있으며 묘 일원이 충청남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성만, 이순 형제



이성만·이순 형제의 뜻을 기리는 의좋은 형제상



비각 (대흥면 동서리)

이성만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대흥호장(大興戶長)을 지냈던 사람으로 조선건국의 이념인 유교적 통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된 인물이다. 호장이란 향직(鄉職)의 우두머리로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토호적 존재로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으나 조선조에 와서 중앙집권체제의 발달로 수령의 밑에 있는 아전으로 떨어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대흥현조>에는 「효자 이성만이 그 아우 순과 더불어 모두 지극한 효성이 있어 부모가 돌아가시자 동생은 아버지의 분묘를 지키고 형은 어머니의 분묘를 지키면서 각각 애통과 경근을 다 하였으며 3년의 복제를 마치고는 아침에는 아우가 형의 집으로 가고 저녁에는 형이 아우의 집을 찾았으며 한가지의 음식이 생겨도 서로 모여 만나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이 사실이 임금에 알려져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한다.

우애비는 1418년 지신사(知申事) 하연(河演)의 주청에 의하여 세워졌다. 본래 이 비는 가방교(佳芳橋, 괴벵이다리) 남서쪽 50m지점에 있었으나 대흥면사무소에 이전하여 옛 대흥현 동헌 앞에 세워져 있다. 규모는 높이 203cm, 폭43.5cm, 두께 25cm의 화강암 재질이며 173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는 「우애좋은 형제」란 이름으로 이 고장에 전해져 내려오며 50년대 까지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옛날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위들거리(상중리)에 살고 동생은 광시면 오리골(월성리)에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농사가 대풍이 들었다. 같이 살던 동생을 분가시키자 형은 새살림에 소용되는 것이 많아 살림이 어려울 것이라고 벼를 더 많이 가지라고 하고, 동생은 형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딸린 식구도 많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좀처럼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벼가리를 반으로 나누었다. 하루는 밤에 형이 벼섬을 지고 가 아우네 벼

가리에 놓았다. (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벗단으로 기록되어 있음) 아우는 그 이튿날 벗섬을 세어보니 더 늘어나 있다. 그 이튿날 아우는 벗섬을 형네 벗가리에 갖다 놓았다. 형은 그 이튿날 벗가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이유를 몰랐다. 다시 밤에 아우네 집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하여 몇차례를 서로 가져다 놓았는데 어느날 벗섬을 서로 지고 형네로 아우네로 향하던 두 사람은 가방교 부근에서 마주쳤다. 그때 달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활짝 벗어져 서로 상대방이 형과 아우인것을 알고 벗가리가 서로 늘어난 이유를 알았다.

1973년 가방교 부근 수몰지역에 묻혀 있던 우애비가 발견되어 대흥아문앞에 옮겨 세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이계전(李季甸) (1404~1459)



이계전의 신도비 (경기도 여주)



봉산면 봉림리에 위치한 문열공의 사당

서기 1404년(조선 태종 4년) 2월 14일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삼자(三子) 증추원사(中樞院事) 이종선(李種善)의 삼자(三子)로 태어났다. 휘(諱)는 이계전(李季甸), 호(號)는 존양재(存養齋) 자(字)는 병보(屏甫) 시호(諡號)는 문열(文烈)이다.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를 섬기면서 모두 신임을 받았고 세조 3년 12월에는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겸 경기도 체찰사(京畿道 體察使)가 되고 직무중(職務中) 1459년 9월 16일 56세에 하세(下世)하였다. 행록(行錄)을 살펴보면 1427년(세종 9년) 3. 20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 집현전(集賢殿) 학사(學士)가 되고, 1435년(세종 17년) 집현전(集賢殿) 부교리(副校理)로 승전(陞轉), 통감훈의(通鑑訓義)가 완성(完成)되자 세종(世宗)은 경회루(慶會樓)에서 공을 비롯한 찬집관(撰集官) 등을 불러 노고(勞苦)를 위로(世宗실록 권68)했다는 기록이 있다. 1438년 부(父) 양경공(良景公) 종선(種善) 하세(下世) 며슬을 사임하고 3년(三年)상(喪) 시묘(侍墓). 1441년(세종 23년) 구직(舊職)에 복관(復官). 1442년(세종 24년) 10월 23일 집현전(集賢殿) 승차(陞差)

(왕에게 건의 내용) 집현전(集賢殿)은 직위(職位)의 차서(次序)에 따라 승차(陞差)하는 것이 관례로 응교(應校) 김문(金汶)은 관계(官階)가 봉열대부(奉列大夫)로 직위(職位)가 신(臣)의 위에 있으며 신(臣)은 나이 39세인데 김문(金汶)은 5년 연상(年上)이고 과거에 오른 것도 신(臣) 보다 7년 먼저이고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을 닦은 것도 신(臣)과 비교가 안됩니다. 신(臣)은 분수에 넘습니다.

직집현전(直集賢殿) 직위(職位)는 김문(金汶)이 배수(拜受)케함이 옳다는 글을 올렸으나 세종(世宗)은 불청(不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세종실록 98권)

1445년(세종 27년)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으로 승차(陞差) (세종실록 권 107)

사창제도(社倉制度)에 대한 사목(事目)을 올린다.

소금 전매(專賣)에 대한 폐단을 건의하였다.

집현전 대제학(集賢殿 直提學) 김문(金汶) 등과 더불어 의염법(義鹽法) 건의(세종실록 109권) 치평요람(治平要覽) 찬진(撰進)하고 공(公)이 전문(箋文)을 지었다.

(목적-目的) 주(周)나라에서 원(元)나라까지 중국의 사서(史書)와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고려(高麗)까지 우리나라 사서(史書) 중에서 국가의 흥폐(興廢)와 군신(君臣)의 사정(邪正), 정교(正敎), 풍속(風俗), 외환(外患), 윤(倫) 도(道) 등 각(各) 방면에 걸쳐 권징(勸懲)할 만한 사실을 발취하여 후세(後世)의 귀감을 삼기 위함이었다.

(7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참여 : 서문(序文)은 정인지(鄭麟趾)가 쓰고 발문(跋文)은 최항(崔恒)이 썼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전(箋)은 이계전(李季甸)이 썼다. 서두(序頭)의 글을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신(臣) 등(等)이 아뢰입니다. 엇드려 생각하건데 덕(德)과 인(仁)을 쌓아서 큰 운(運)을 열으셨으니 공(功)을 칭송하고 실적을 기록하여 마땅히 노래에 올려야 하기에 이에 무사(燕詞)를 찬술(撰述)하여 예감(叡感)에 올립니다.』 이하 생략(省略)에서 보면 공(公)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찬술(撰述)에도 직접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46년(세종 28년) 축성공법(築城貢法) 입거(入居)에 대한 폐단을 논(論)하다.

공(公)은 양계(兩界)의 축성(築城)과 사민(徙民), 공법(貢法)운영, 대간(臺諫)의 직임 등을 비롯한 당면 정치개혁안 상소. 이에 대해 세종(世宗)은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삶을 유지 못하는데 축성(築城)과 공법(貢法)과 입거(入居)는 모두 큰일인데 일시(一時)에 거행하면 원망과 탄식이 없겠는가? 완급(緩急)을 가려 참작 백성의 원망을 사지 않는 방안(方案)을 마련하여 아뢰라고 하였다.(세종실록 권 112)

1447년(세종 29년) 서거정(徐居正) 필원잡기(筆苑雜記)에 시종관(侍從官)의 상소(上疏)는 이문열(李文烈)로 부터 성행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1450년(문종 元年) 도승지(都承旨) 승배(陞拜) 고려말(高麗末) 충신(忠臣) 길재(吉再)를 시호(諡號)토록 상소(上疏) 청(請). 1452년(문종 2년) 세종실록 편찬 때 참여. 1453년(단종 元年) 9월 병조참판(兵曹參判) 11월 정란공신(靖亂功臣) 병조판서(兵曹判書),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한성군(韓城君) 봉습(封襲) 동월(同月) 청삭(請削) : 정란공신호(靖亂功臣號) ~ 왕(王) 불운(不允)하다.

1455년(세조 元年) 세자이사(世子貳師) 겸직. 1459년(세조 5년) 령(領) 중추원사(中樞院事) 겸 경기도 도체찰사(京畿道 都體察使) 점군정(點軍政) 조카 이개(李塏)가 단종(端宗) 복위(復

位) 운동에 연루되자 사간원(司諫院) 탄핵을 받게 되었다.

세조(世祖)는 전지(傳旨)를 내려 연좌시키지 말도록 명(命)하였다. 1459년(세조 5년) 9월 16일 하세(下世)

(行) 輸忠衛社靖難功臣 輔國崇錄大夫 領中樞院事

知成均館事 韓城府院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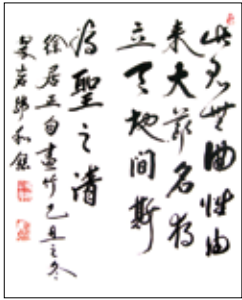
(贈) 大匡輔國 崇錄大夫 議政府 領議政

(諡) 文烈 「博文多見曰文 秉德尊業曰烈」

◎ 곡 이영원사 시-哭 李領院事 詩(고령인(高靈人) 신숙주(申叔舟) 보한제집(保閑齋集)에서)
 “문장(文章)과 훈업(勳業)이 한산(韓山) 부원군(府院君-牧隱)을 계승했는데 동방(東方)의 태산북두(泰山北斗)라 누가 감히 따를 수 있으랴 성주(聖主)께서 조회를 걷우고 저자에서 장사도 하지 않으니 길가는 사람의 슬픈 눈물 또한 끝이 없이 흐르네. 임금모시고 십년 동안 배종(陪從)하기 익숙한데, 몸과 세상은 아득한 꿈과도 같네.

멀리 광릉(廣陵)을 바라보면서 부질없이 눈물 뿌리니 이 인생의 남은 한(恨)은 임금 저바림일세. 떠나는 한(恨)은 그 당시의 장마비에 부쳤더니 어이 헤어지는 길이 구천(九泉) 일줄 알았으리 강정(江亭)에 약속은 있어도 찾을 길 없는데 맑은 시(詩)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옷깃에 가득 하네.” 하고 애도(哀悼)했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서거정의 글씨



달성 서씨 시조묘 (대흥면 하탄방리)

조선초기의 문신, 학자로 자는 강중(剛中), 초자는 자원(子元) 호는 사가정(四佳亭) 혹은 정정정(亭亭亭), 본관은 달성이다. 증조부는 호조전서 의(義)이고, 아버지는 목사(牧使) 미성(彌性)이며, 어머니는 권근의 딸이며 최항은 그의 자형(姉兄)이다.

서거정을 예산 인물조에 넣는 것은 대흥현지에 서거정의 집터(古基)가 대흥에 있다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달성서씨의 시조 묘가 하탄방에 있으며 그후 어떠한 연관을 맺었을 터이지만 자세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서거정은 조수(趙須), 유방선(柳方善)등에게 배웠는데 학문이 매우 넓어서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약(醫藥), 복서(卜筮), 성명(性命), 풍수(風水)에 까지 관통하였으며, 문장에 일가를 이루고, 특히 시(詩)에 능하였다.

1438년(세종 20)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444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에 제수되었다. 그 뒤 집현전박사, 경연사경(經筵司經)이 되고 1447년 부수찬(副修撰)으로 지제교겸세자우정자(知製教兼世子右正字)로 승진하였으며, 1451(문종 1) 부교리에 올랐다. 다음해 수양대군을 따라 명나라에 종사관(從事官)으로 다녀왔으며, 1455년(세조 1) 세자우필선(世子右弼善)이 되고, 1456년 집현전이 혁파되자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로 옮겼다.

일찍이 조맹부의 <적벽부(赤壁賦)> 글자를 모아서 칠언절구 16수를 지었는데, 매우 청려하여 세조가 이를 보고 감탄하였다한다. 1457년 문과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우사간·지제교에 초수(招授)되었다. 1458년 정시(庭試)에서 우등하여 공조참의·지제교에 올랐다가 곧 이어 예조참의로 옮겼다. 세조의 명으로 오행총괄(五行總括)을 저술하였다.

1460년 이조참의로 옮기고 사은사(謝恩使)로서 중국에 갔을 때 통주관(通州館)에서 안남사신(安南使臣)을 만나 시재(詩才)를 겨루어 탄복을 받았으며 요동인 구제(丘霽)는 그의 초고를 보고 감탄하였다 한다.

1465년에 예문관제학·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를 거쳐, 다음해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하

여 예조참관이 되고, 이어 등준시(登俊試)에 3등으로 합격하여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에 특가(特加)되었으며, 경국대전 찬수에 참가하였다. 1467 형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 성균관지사를 겸하여 문형(文衡)을 관장하였으며 국가의 전책(典冊)과 사명(詞命)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1470년(성종 1) 좌참찬이 되었고 1471년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 3등에 녹훈되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하여졌다. 1474년 다시 군(君)에 봉하여지고 좌참찬에 복배되었다. 1476년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중국사신을 맞이하였는데, 수창(酬唱)을 잘하여 기재(奇才)라는 칭송을 받았다. 이해 우찬성에 오르고, 삼국사절요를 공편하였으며 1477년 달성군에 다시 봉해지고 도총관(都摠官)을 겸하였다. 다음해 대제학을 겸직하였고, 곧이어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이해 동문선 130권을 신찬하였다.

1479년 이조판서가 되어 송나라제도에 의거하여 문과의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鄉試)에서 일곱번 합격한자를 서용하는 법을 세웠다. 1480년 오자(吳子)를 주석하고, 역대연표(歷代年表)를 찬진하였다. 1481년 신찬동국여지승람 50권을 찬진하고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1483년 좌찬성에 제수되었다.

1485년 세자이사(世子貳師)를 겸하였으며, 이해 동국통감 57권을 완성하여 바쳤다. 1486년 필원잡기(筆苑雜記)를 저술하여 사관(史官)의 결탁을 보충하였다. 1487년 왕세자가 입학하자 박사(博士)가 되어 논어를 강하였으며, 다음해 죽었다. 여섯 왕을 섬겨 45년간 조정에 봉사, 23년간 문형을 관장하고 23차에 걸쳐 과거시험을 관장하여 많은 인재를 뽑았다.

그의 저술로는 시문집으로 사가집(四佳集)이 전하며, 공동찬집으로 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동문선·경국대전·연주시격언해(聯珠詩格言解)가 있고, 개인저술로서 역대연표·동인시화(東人詩話)·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필원잡기·동인시문(東人詩文) 등이 있다.

조선 초기 세종에서 성종대까지 문병(文柄)을 장악하였던 핵심적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학풍과 사상은 이른바 15세기 관학(官學)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훈신(勳臣)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그의 한문학에 대한 입장은 동문선에 잘 나타나있는데, 그는 우리나라 한문학의 독자성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역대 한문학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였으며 그의 한문학 자체가 그러한 입장에서 형성되어 자기 개성을 뚜렷이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26년 동안이나 김종직 강희맹 등 당시 일류 문인을 물리치고 문병을 잡았다고 해서 당시에 그가 반드시 문학적으로 가장 우수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관료적인 문인으로서 문학적인 영예를 누린 셈이고, 그의 시도 관료문학으로서 부귀에서 나온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의 역사관은 삼국사절요의 서문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세력이 서로 대등하다는 이른

바 삼국균적을 내세우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서문에서는 우리나라가 단군이 조국하고 기자가 수봉한 이래로 삼국고려시대에 넓은 강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이러한 영토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 전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의 방여승람이나 대명일통지와 맞먹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지리지로써 편찬된 것이다. 그가 주동이 된 편찬서는 왕명으로 사림인사의 참여하에 개찬되었다.

그런데 그가 많은 문화업적을 남겼음에도 성종이나 다른 사람들과 전적으로 투합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신옹주(恭愼翁主) (?)



공신옹주 정려문 (대술면 마전리)

공신옹주는 조선 성종의 셋째 딸로서 귀인 엄씨(嚴氏) 소생이다. 남편은 한명회(韓明澮)의 손자 청녕위(淸寧尉) 한경침(韓景琛)이다.

갑자사화(연산군 10) 때에 연산군은 생모 윤씨(尹氏) 폐위에 공신옹주의 어머니 엄씨가 관여하였다 하여 사사하고, 그 딸인 공신옹주는 그 작위를 박탈하고 노예 신분으로 만들었다.

옹주는 유배되는 날 몰래 그 남편의 신주를 품고 가서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숨겨 놓고 아침, 저녁

으로 제사 지내고 꿇인 죽이나 풀 열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천신(薦新)한 뒤에 먹었다고 한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 2년(1507)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하였고, 중종 10년(1515)에는 옹주가 지친(至親)의 귀한 몸으로 절행이 뛰어났음에도 삼강행실속록(三綱行實續錄)에 기록되지 않았던바 찬집청(撰集廳)에 문의하여 추가하게 하였다. 중종 10년 6월에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였고 13년 5월에도 쌀과 콩 50곡(斛)을 하사하였다.

또한 중종 10년 5월에는 옹주의 정문이 기울어지고 무너진 것을 고치는 일을 논의하였다. 중종 16년(1521) 10월에는 옹주가 연산군 7년(1501)에 상언하여 연산군 9년(1503)에 인천(仁川) 삼목도(三木島)를 떼어 받게 되었으나 이듬해 귀양 갔으므로 호조(戶曹)에 방계(防啓)하였고, 옹주가 석방되어 돌아온 지 오래지 않아 즉시 추심하지 못하였는데, 옹주가 절도를 지키므로 도로 죽이 합당하다는 전교를 내리었다.

공신옹주의 정려문은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중삼마을)에 세워져 있다. 옹주는 혈연이 없어 청성군(靑城君) 찬(瓚)을 입후(入後)하였으나 계승되지 않아 절손이 되었다고 한다.

신숙서(申叔胥) (1435-1496)



신숙서 신도비 (봉산면 소재)

충남 예산군(忠南 禮山郡)에는 봉산면(鳳山面)을 중심으로 고덕, 덕산에 500年 이상(以上) 세거(世居)하는 명문(名門)이 있으니, 그의 성씨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 그의 내포입향조(內浦入鄉祖)는 다름 아닌 신숙서(申叔胥) 공(公)이다.

숙서는 공(公)의 휘(諱)요. 자(字)는 상지(相之)이고, 호(號)는 죽당(竹堂)으로 당시 관직은 승문원 교리(承文院 校理)로 세칭 교리공(校理公)이라 한다.

공(公)의 가계(家系)는 고려(高麗)조의 개국공신(開國功臣)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장군을 시조(始祖)로 이후에 대대로 관직에 출사하여 헌상으로 명문대가를 이루었다.

예산 입향조(禮山 入鄉祖)의 조부이신 휘(諱) 인기(仁錡)를 이상공파(貳相公派) 파조(派祖)로 파조(派祖)의 선대(先代)이신 휘(諱) 순(珣)은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순절(殉節)하신 72현(賢)의 한분이다.

파조는 고려조에서 첨의부찬성사(僉議府贊成事),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한림원(翰林院) 학사(學士) 貳相으로 조선조 태종의 왕사인 원천석공(元天錫公)과 더불어 고려말의 역사를 기술한《경사(經史)》6편을 편찬하였으나 실전되어 애석하게도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태조(李太祖)가 조선을 개국함에 누차 공(公)에게 출사하여 개국의 기반을 다져주길 청하였으나 칭병을 이유로 출사하지 않으니 이는 몸의 불편이 아니고 충신(忠臣)은 불사이성(不事二姓)으로 홍양의 두원으로 들어가 사셨기에 자호(自號)를 두은(荳隱)이라 하시었다.

입향조(入鄉祖)인 공(公)은 파조의 영포로 세종조 17년에 출생하시어 조부 슬하에서 수학하니 주위에 신동(神童)으로 소문난 영재로, 문종 원년에 17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이어 대과에 급제하여 성균관학에 선발되고 이어서 박사[정7품]로 이어서 단종 2년에 승문원 교리(承文院 校理)[정5품]로 승차하니 주위에서 재상의 재목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단종 원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안평대군과 김종서, 좌상 등 문종의 탁고대신(託孤大臣)을 주살하니 왕권은 자연히 수양대군으로 귀착되어 드디어 단종을 폐위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등극하니 뜻을 같이하는 동배들과 재야의 곳곳한 선비들이 모여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고 힘을 키우다 거사(擧事)가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간신배의 밀고로 복위거사

(復位舉事)가 물거품이 되면서 여러 동지들을 참형으로 혹은 원지 유배로 다스리니 공(公)도 세조 2년에 충청도 홍주목 면천후석(당진군 순성면 봉소리)으로 유배되시었다.

그 후 수년이 지나 정국이 안정되면서 공(公)도 유배에서 방면되고 이후 누차에 출사(出仕)를 권유 받았으나 병을 빙자하여 출사하지 않고 거소를 30리 상거의 덕풍현 고현내면 대지동으로 이주하였으니 이것이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예산 입향동기(禮山 入鄉動機)이다.

이후에 공(公)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강을 도강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거소 주위에 대나무를 심고 자호(字號)를 죽당(竹堂)이라 하고 젊은 후학 교육에 전념하시고, 자손에게는 나는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두문불출 하지만 자손에게는 수학을 게을리 하지 말고 굳은 신념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처럼 고고히 사시다가 연산군 2년에 62세로 하세하시었다.

현재 예산에 거주하는 평산신씨(平山申氏)의 95%가 공의 후예들이다.

어찌 우리 같은 후생들이 고고히 흐르는 물길 같은 공(公)의 삶은 본받지 않으랴
계유정란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역사는 공(公)과 같은 인재들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조선조의 자랑스런 역사를 만천하에 기리면서 살았을 것을...

〈신숙서 시도비문 내용 중에서〉

공(公)의 서거 후 대지동 사곡[절골]에 安葬하고 노변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워 공(公)의 생애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후 250여년이 지난 숙종조에 이르러 노산군이 단종으로 복위되면서 당시의 충신들의 절개의 삶이 재조명 되었으며, 1904년 단종대왕(端宗大王)을 기리는 후학들이 공주 계룡산 동학사에 숙묘전(肅慕殿)을 짓고 단종대왕을 비롯하여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및 단종 유신 등 105위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매년 음 3월 15일 제례를 올리는 추모 사당에 공(公)도 배향(配享)되어 계시다.

공(公)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시었다. 장남은 휘(諱)가 석곤(石崑)으로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차남은 휘(諱)가 석강(石岡)으로 통훈대부 광양현감(光陽縣監)으로, 삼남은 휘(諱)가 석령(石嶺)으로 그의 후손들은 전라도 장흥에서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있다.

권빈(權璜) (1446~1500)



청백리공(淸白吏公) 권빈의 묘 (응봉면 평촌리)

자(字)는 숙옥(叔玉)이다. 공주목사(公州牧使) 유순(有順)의 셋째 아들로 세종 28년 서기 1446년 출생, 연산군 6년 1500년 졸(卒), 수(壽)는 55세이다.

공(公)은 어려서부터 모습이 기의(岐·하고 殊特)하였으며, 가르치는 이를 번거롭게 앓고도 능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서를 깨우쳤다. 장성하면서 의표(儀表)가 더욱 수랑(秀朗)하여 지면서 온축된 학식으로 말이 입에

서 나오면 반드시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필법이 뛰어났다.

세조28년 무자년 1468년에 23세 나이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생원 진사 양장(兩場)에 적중하니 선망이 더욱 자자하였다. 그러나 대과(大科)는 여의치 못하여 성종 13년 임인년(壬寅年) 1482년 37세에 친시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계묘년에 한림원(翰林院)에 검열(檢閱)이 되었다가 대교(待敎)로 승차(昇次) 하였는데 성종이 일찍이 공을 보고 그 풍의(風儀)를 칭찬하기를 “나의 봉황이로다” 하였다.

성종 17년 병오년 1486년에 부모의 복상(服喪)을 마치고 승정원 주서를 배우하고 예빈시(禮賓寺) 주부(主簿)로 옮겼다가 공조좌랑이 되었다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면서 지제교(知製敎)의 삼자함(三字啣)을 띠었다. 이때 대신(大臣) 윤필상(尹弼商)과 이극돈(李克墩)의 간사함을 소론(疎論)했다가 파직 당하니 곧은 신하라는 명성을 일세에 떨치게 되었다. 얼마 안 있어 다시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서용 되었으나 성종 25년 갑인년 1494년에 임금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등극하자 당로자들이 전일(前日)의 감정을 품고 공을 외직으로 보내 금산군수(金山郡守-현 김천시)에 보임 시켰다. 공은 조금도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자기 몸을 칙려(飭勵)하여 힘써 다스리기를 6년 동안 치화(治化)가 크게 행하여져 백성이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생사당(生祠堂)과 유애비(遺愛碑)를 세워 세대가 바뀌도록 잊지 않고 기모(寄慕)하였다.

연산군 5년 기미년 1499년에 내직으로 들어와 한직인 사도사첨정(司導寺僉正-종4품)으로 있다가 다시 한림원에 발탁되어 홍문관전환(弘文館典翰)이 되었다. 이때는 연산군 초중기로 폭정이 비교적 심하지 않을 때인데 공(公)이 3품의 간관(諫官)으로서 그 직임을 다하여 간

쟁을 하니 연산군이 포장(褒獎)하여 이르기를 “당당하구나! 이 사람은, 지성스럽구나 이 사람”이라 하였다. 그러나 곧 병환이 들어 연산군 6년 경신년 1500년에 졸(卒)하였다.

공(公)은 김산 고을 백성으로부터 생사당(生祠堂)을 받고 살아서 인향을 받았거나와 중종 조에는 청백리로 녹선 되었다. 배위(配位)는 숙인 영덕 김씨로 주(周)의 딸이다. 공(公)은 선대(先代)가 대대로 경북 상주의 함창에 세거 하였고 선영도 그곳에 있으나, 부인 김씨의 친가인 충청도 대흥고을 내북면 남산동에 간좌로 명당을 잡아 묘소를 정하니 지금의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남산골로서 이로부터 그 후손이 세거하게 되었다. 아들은 연기(燕岐)현감 홍수(弘手), 김해부사(金海府使) 복수(福手)가 있다.

성희용(成希雍) (1464~1526)



성희용의 묘 (신양면 귀곡리)

조선 중기의 중종반정공신으로 호는 의재(義齊), 자는 당옹(戇翁)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세조 7년(1464년)양주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인품이 너그러웠고 효행이 지극하여 항상 부모 곁에서 봉양하였다. 학문연구와 덕의(德義)를 함양하기에 심취하여 그의 호도 의재(義齊)라 하였다.

성종조에 음보로 광흥창수(廣興倉守)직을 받았으나 연산군 때 해직되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여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한양 부근 경기지역의 땅이 사냥터로 변하여 농민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중형(仲兄), 성희안(成希顔), 박원종(朴元宗), 유순정(柳順汀)이 주축이 된 병인반정(1506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중종 실록에 <성희안의 노모가 자신의 사위가 공신에 책봉되지 못했음에 몹시 노했다>라는 대목은 공신이 남발되었다는 비판도 되지만 그 일족이 모두 반정에 적극 개입했음을 증명하는 말도 된다. 성희안은 1등공신이 되어 영의정이 되었고 희옹은 4등공신이 되어 정국공신 창성군(靖國功臣 昌盛君)에 봉군되었으나 중종 14년 조광조에 의한 위훈삭탈사건을 겪는다. 후에 자의대부 호조판서겸 지의금부사 지춘추관사 오위도총부총관에 추증되었다.

반정 후에 관직제수를 사양하고 향리인 양주로 돌아가 학문에 몰두 하였다. 병인, 정묘조 양주 인근 10여 군 현이 한수재로 인하여 그 참상이 혹심하자 경향(京鄕)에서 전조(錢租)를 모집하여 공평하게 분배하여 구휼하니 그곳 주민들에 의하여 불망비가 세워졌다.

중종 21년(1526년)에 숙환으로 별세하였는데 묘소는 김포군 고촌면 개화산에 안장되었다. 배위는 남양 홍씨 후배(後配)는 담양 전씨(田氏)이다. 사후 불천지위를 받았는데 그의 유품과 유고는 임진왜란 당시 세거지가 왜군에게 짓밟혀 모두 불타버렸다.

창성군 희옹이 예산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처가인 담양전씨의 세거지가 신양면 귀곡리가 아니었나 추측한다. 증손인 성흔이 불천지위신주를 모시고 신양면 귀곡으로 낙향하여 귀한 분이 있는 곳이란 뜻의 귀곡(貴谷)이 되었고 덕의(德義)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그후 성흔은 사당과 거처를 이웃동네인 가좌울로 옮겼고 자손이 번창하자 영조 초엽(1730년 전후) 창의사가 창건되고 1944년 중건 1990년 증수되었다.

희옹의 묘소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1997년 9월 25일 신양면 귀곡리 창의사 위 산 중록에 이장되었다.

이약수(李若水) (1486~1531)



대흥면 교촌리에 위치한 우천 이약수의 묘

조선 중기의 학자로 자는 지원(止源), 호는 우천(牛泉)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니 중종 26년 충주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현감 자(滋)이며 어머니는 광주안씨(廣州安氏)로 사간 팽명의 딸이며 김굉필의 문인이다.

1510년(중종 5) 생원이 되고, 1518년 성수침(成守琛), 서경덕(徐敬德)과 별천(別薦) 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성균관에서 전념하였다.

중종은 젊은 학자 조광조를 내세워 명실상부한 유교적 명분에 입각한 개혁정치를 시도하였다.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말이었으나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고, 조선초기에 와서도 사장(詞章)의 학만이 숭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에만 치중하였고 도학(道學)은 일반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대한 주창은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주창을 계기로 하여 당시 학풍은 변화되어 갔으며, 뒤에 이황, 이이 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어 놓는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일반 서민들까지도 주자의 가례(家禮)를 지키게 되어 상례(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되지 않게 하였다. 미신타파를 내세워 소격서를 폐지하고 천거시취제인 현량과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 안처검, 박훈 등 노장인이 뽑혔으며 이어 김정, 박상, 이자, 김구, 기준, 한충 등 소장학자를 뽑아 요직에 앉혔다.

그는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결국 그의 표적은 중종반정 공신들에 집중되었고 급기야 전공신의 4분의 3에 이르는 76인의 위훈이 삭탈되었다. 이에 훈구파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된다.

조광조의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훈구파를 궁지에 몰았으며 지나치게 이상적이었고 왕권에게까지 간섭하게 되니 안은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 윤자임, 박세희, 박훈등을 투옥하고 조광조, 김구, 김정에게 사사를 명한다.

이약수는 성균관에서 공부만하고 있다가 조광조의 투옥소식을 듣고 성균관 유생 150여명과 함께 소를 올리고, 궐문을 제치고 편전문 밖까지 이르러 통곡하니 중종이 몹시 노하여 「상소하면 되었지 감히 대궐뜰까지 들어와서 통곡을 하는가. 유생의 체모가 이 같으나 지금 곡성을 들

으니 몹시 불쾌한 일이라」 「유생이 대궐에 들어와 통곡을 하는 것은 천고에 없는 일이라」고 노하여 김수성, 박세호, 윤언직, 홍순복등과 함께 투옥하였다.

1521년 평해로 유배되었다가 10년만인 1531년 대흥현으로 이배되었으나 그해 8월 대흥 땅에서 서거하니 향년 46세였다. 묘소는 대흥면 교촌리에 있으며 1605년(선조 38)에 설원(雪冤)되었고 우천사를 건립하고 봉향했다. 저서는 《우천유고》가 남아있다. 현재의 우천사는 1977년 복원된 것이다.

김구(金球) (1488~1534)



자암 김구가 쓴 두보시



김구 묘 (신암면 종경리)



묘비

조선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 본관은 광산, 자는 대유(大柔), 호는 자암(自庵) 또는 삼일제(三日齋), 대흥현감 김계문의 아들이며 서울 연희방(현 종로구 연건동)에서 출생하였다.

김구가 예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버지 김계문이 대흥현감을 역임하면서 예산현 입암면(신암)에 입향하게 된 것인바 처가인 전의이씨 문중이 세거(世居)하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주지는 서울 인수방(仁壽坊)이었으면서도 신암에도 근거지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1503년(연산군 9년)에 한성시(漢城試)에서 일등으로 뽑혔고, 1507년(중종 2년)에 생원, 진사시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여 시관을 놀라게 하였다.

4년 뒤인 1511년 별시문과에서 을과로 급제한뒤, 1515년에는 기준(奇遵)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고 이어서 홍문관 수찬부교리를 거쳐 사간원헌납이 되었다. 신병으로 일시 사직하였다가 다시 관직에 나아가 이조좌랑, 정랑, 사간, 홍문관 부제학, 동부승지, 좌승지 등을 지냈다.

1519년 5월 같은 사림파인 김식(金湜)이 성균관대사성이 되자, 그의 후임으로 홍문관부제학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림파는 관료들을 육성하는 성균관과 문한, 언론기관인 홍문관을 장악하여 그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519년 11월에 남곤(南袞),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등 훈구세력이 일으킨 기묘사화로 화를 입었으나 정광필(鄭光弼), 안당(安堂)에게 구조되어 개령(開寧)에 유배(流配)되었다가 수개월 뒤에 죄목이 추가되어 남해로 이배(移配)되었다. 남해에 이배된지 13년 만에 임피(臨陂)로 가깝게 옮겨졌다가, 2년 뒤에 풀려나와 고향인 예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유배중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어 처음 참배할 때 산소 앞 토교(土橋)에서 산소를 바라보다 기절해서 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그는 이때 다친 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47세에 세상을 떠났다.(1534년 11월 16일). 그 뒤 선조 때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일찍부터 성리학연구에 전념하여 학문실력이 조광조(趙光祖), 김식과 겨룰만 하였다 하며, 음률(音律)에도 능통하며 악정(樂正)에 임명된 적이 있으며, 글씨에도 뛰어나 안평대군 용(瑢), 양사언(楊士彦), 한호(韓濩)등과 더불어 조선시대 전기 서예계의 4대가로 손꼽힌다. 그의 서체는 매우 독특하여 그가 살았던 인수방의 이름을 따서 인수체(仁壽體)라고 하였는데, 중국사람들까지도 그의 글씨를 사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 후 글씨 써주는 것을 싫어하여 그의 글씨가 전해지는 것이 드물다. 또한 그는 시독관(侍讀官)으로도 활약하여 종종으로 하여금 사림파의 개혁정치에 적극 호응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의 일에 임하여는 매우 강개(慷慨)하였다고 한다. 또 조광조와 함께 소격서(昭格署)의 혁파에 앞장섰고 대간(臺諫)의 현실개혁 상소에도 적극 후원하였다. 저서로는《자암집(自庵集)》유품으로는 《자암필첩(自庵筆帖)》,《우주영허첩(宇宙盈虛帖)》과 신암소재(현재는 대술면 시산리로 이장)의 이겸묘비(李謙仁墓碑)등이 있고 단가 3수와 화전별곡(花田別曲)이 그의 문집에 전한다.

자암(自庵)을 배향(配享)한 덕잠서원(德岑書院)은 예산읍 향천리 산4의 1번지 임야내에 터만 있는바 쌍소나무백이 검문소 북쪽에 있다. 건립과정은 최초의 증직은 사후 57년 만에 이조참판에 증직된 것이고, 그의 문집인 자암집이 1636년(인조 14년)에 초간(初刊)되었고, 그 후 4년 뒤인 1640년(인조 18년) 자암 김구의 묘비가 건립된다. 또 1659년(효종 10년)에는 중간(重刊)본이 외현손인 안응창(安應昌)의 노력으로 중간(重刊)을 보게 된다. 이러한 여러 활동이 1600년대 중반에 서서히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자암선생서첩발문(自庵先生書帖跋文)을 송시열(1607~1689)이 지은 것도 주목된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적인 당파의 확산이 나타나기 시작하던 1600년대 후반에 서인계열과 덕잠서원의 건립주도 세력 간의 연결 관계로 보여진다. 이 발문은 전라도 임피의 봉암서원에 김구와 김집이 함께 배향된 것에 관한 내용이다. 참고로 임피 봉암서원은 1664년(현종 5년)에 창건되어 1695년(숙종 21년)에 사액 받았다.

덕잠서원의 창건에 대하여는 서원등록에 자세한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김구가 죽은지 170년만인 1703년(숙종29년) 10월 예산 유학 임주국(林柱國)등이 서원 건립의 상소를 올려 건립을 허락받게 되었다. 임주국 등이 올린 창건 상소에 보면 그의 도(道)와 덕(德), 출처시종(出處始終)이 조광조 김정과 다름없음을 강조하고 조광조, 김정 2현(二賢)은 사우(祠宇)에 제향(祭享)되고 있으나 김구는 제외되어 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이다. 당시 정암 조광조, 충암 김정, 자암 김구를 삼암(三庵)이라 할 정도로 이들 3현(三賢)의 충절과 교우는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김구 사후 174년이 지난 후의 일로서 동시대의 김정의 상현서원이 호서 최초의 서원

이란 칭호를 들으며 1549년(명종 4년)에 창건된 것에 비하면 김구의 서원 건립은 매우 늦은 편이다.

창건 장소로 서원이 건립된 것은 1705년(숙종31년)이었다. 사액 받은 것은 1714년이고 당시 예관으로는 예조정랑 박사동(朴師東)이 파견되었고 사액치제문이 광산김씨직장공진보(光山金氏直長公振譜)에 수록되어 있다. 사액 받은 이후 덕잠서원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 이를 토대로 1746년(영조22년)에는 자암 김구가 다시 이조판서양관 대제학에 추증되게 하고, 다음해인 1747년(영조3년)에는 문의공(文懿公)이란 시호까지 받게 되었다.

또하나 김구의 손자 김갑의 효자정려가 1816년 김구묘소 전방에 세워졌다. 김갑은 1550년 경 태어난 인물로 임진왜란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가다 왜적에게 살해당하였는데 1500년대 인물이 1800년대 정려 호장을 받고 정려를 건립하게 된 것은 김구와 덕잠서원을 통한 광산 김씨문중의 영향력이라고 보아진다.

덕잠서원은 그 후 100여 년이 지난 1813년(순조 13년) 김조순이 중수비용을 전담 중수했으며 1830년(순조 30년) 홍병식(洪秉拭)의 주력을 재실(齋室) 중수가(重修)가 이루어졌으며 1856년(철종7년)에는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이 3천냥을 출연하여 중수하였으나 그 후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書院毀撤令)으로 사라졌으며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어 초석(礎石)과 와편(瓦片)은 밭가에 쌓여있다. 밭에도 불탄 재와 와편 토기편 백자편 등이 노출되어 있으나 어느 누구도 덕잠 서원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의 사후 유허지인 예산의 덕잠서원과 임피의 봉암서원(鳳巖書院 : 1664년 창건, 1695년 사액), 장단의 임강서원(臨江書院), 남해의 죽림서원(竹林書院)에 영정이 봉안되어 있었다.

관련 유적은 김구의 묘소가 신암면 종경리에 있으며 묘비는 1640년 인조 18년에 건립되었고, 유허비는 1984년 건립되었는데 이때 신도비도 함께 세웠다.

※ 관련일화 전설 : 자암은 경학 연구는 물론이고, 특히 철학적 사색이 깊어 제자백가의 학문에 까지 넓고 깊은 고찰이 있었음을 그 문집에서 엿볼 수 있다.

자암은 음악에도 깊은 소양이 있어, 별곡, 단가 등을 지어 부르기를 좋아하였다. 종종때 악정(樂正)의 벼슬에 임명된 것도 그러한 때문이었다. 전해오는 말로는 어느 날 밤 자암이 궁중의 옥당(玉堂)에서 숙식을 하면서, 밤늦도록 낭랑한 목소리로 독서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목소리가 나더니 종종이 청상(廳上)에 오르시고, 별감(別監)은 주찬(酒饌)을 들고 따라 왔다.

자암이 급히 나가 뜰아래 엎드리니 왕이 올라오라 하시며 “이같이 달 밝은 밤에 글읽는 소리가 좋아왔으니 군신의 예를 버리고, 벗으로 대하자 하시며 술잔을 나누었다. 왕이 가곡을

한곡 불러보라 하시니 자암이 노래를 한수 지어 불렀다.

“나온다 今日이야 즐거운다 오늘이야
 古往今來에 類업슨 今日이여
 每日의 오늘굿뜰면 ㅁ슴성이 가시리“
 中宗께서는 再唱을 칭하셨다.
 “올히 달은 학 다리 되도록애
 거믄 까마귀 해오라비 되도록애
 亨福 無彊 亨샤 億萬歲를 누리쇼셔”

노래 듣기를 마치고는 거듭 칭찬하면서 “그대에게 노모(老母)가 있음을 들었으므로 갓옷(貂裘)을 주는 것이니 가져다가 드려라” 하고 마루를 내려셨다 한다. 좋아라 오늘이야 즐거울사 오늘이야 유례가 없었던 오늘 날마다 오늘 같았으면 성가신 일이 있겠는가. 거듭 노래하기를,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만큼 길어질 때까지, 검은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처럼 변해질 때까지 복을 받아서 억만년을 누리실 것을 기원한시이다.
 첫 노래는 나의 기쁨이요, 둘째 노래는 임금에 대한 축원이다.

이담(李湛) (1510~~157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구(中久), 호는 정존재(靜存齋), 본관은 용인(龍仁)이고 증유의 아들이다.

덕산 고산에서 거주하였으며 김굉필의 문인으로서 1538년(중종 33)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 수찬(修撰), 지평(持平)을 거쳐 1544년(중종 39)에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었다.

1545년(인종 1년)에 공조정랑이 되었는데 조정은 대운과 소운의 알력으로 혼란했다.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의 동생에 윤임이 있고 명종을 낳은 문정왕후 동생에 윤원형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파평윤씨로 외척간의 세력다툼을 벌였다. 먼저 인종이 즉위하자 대운인 윤임이 득세하여 사림(士林)의 많은 명사들을 정부의 대관으로 임명하는등 사림중심으로 인물을 등용하여 기묘사화이후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인종은 병약하여 재임 8개월만에 서거하여 12세의 명종이 즉위하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게 되었다. 이에 형세는 역전하여 소운 윤원형이 득세하여 전일의 윤임 일파를 제거한다. 이 사화로 윤임파는 100여명이 죽었으며 그 주동자는 윤원형과 이기였다.

이담은 사림파로 갑자사화 때 죽은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라 하여 관직은 박탈당하고 심사에 유배되었다.

1547년(명종 2년)에는 양재역 벽서사건에 또 연루되어 중도부처되었다가 1551년에 풀려나와 학문에 전심하고 있었는데 1565년(명종 20년)에 윤원형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이기가 영의정에 있다 급서하자 그 세력들이 축출되어 복관되었다.

1567년에 전한(典翰)으로 등용되어 응교를 지내고 명종이 죽자 춘추관 편수관으로 명종실록(明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이어 사간, 승지를 거쳐 1574년(선조 7년)에 병조참의에 올랐다.

그는 성리학에도 학문이 깊었고, 의약(醫藥), 천문(天文), 산수(算數), 궁술(弓術)에도 능했고 문장과 서화(書畵)에도 일가(一家)를 이루었다.

학문에 있어서는 특히 이황을 사숙했다. 저서는 정존재집(靜存齋集)이 전해진다. 덕산의 회암서원에 배향되었다.

박홍(朴泓) (1534~1593)



박홍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집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청원(淸源), 호는 송담(松潭) 본관은 울산이다. 아버지는 별제(別提)인 영무(英武)이며 어머니는 직장(直長)인 정인걸의 딸이다.

대흥현 마사리에서 출생했으며 1556년(명종 11년)에 23세로 무과에 합격하여 선전관, 강계부판관, 이산(利山)군수, 의빈시도사, 정평부사, 평산부사, 도총부도사, 영암군수 등을 역임하고 천성만호(天成萬戶)가 되었다.

이어 부산첨사, 구성부사, 만포첨사, 종성부사 등외직을 거치는 동안 도서지방의 도적을 물리치고 오랑캐 추장의 항복을 받아 우리측 남녀포로 50여인과 양곡 수천석을 돌려받았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에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로서 왜적의 선봉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군비부족과 훈련의 부족으로 우리군사는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이에 박홍은 본진을 불태우고 파죽지세 북상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죽령을 지키려고 패잔병을 수습하고 군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천혜의 방어진인 조령의 관문을 신립군사가 지키지 않고 충주 탄금대로 후퇴하여 적과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전멸당하게 되자 박홍은 죽령의 방어를 포기하고 서울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이미 선조가 한성을 떠난지 며칠이 되었는지라 행재소(行在所)를 찾아 가던 중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을 만나 좌위대장(左衛大將)의 직에 임명되어 임진강 방어에 참여하였고, 신길(申詰), 유극량(劉克良)등과 함께 병사를 나누어 파주에서 싸웠으나 신식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참패하여 평양으로 탈출하였다. 평양에 도착하자 사헌부를 위시한 조신들로부터 영토를 지켜야 할 신하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군율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게 되었으나 때가 전시라 지휘관이 필요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종군한 공로가 참작되어 처벌은 면하였다. 같은 해 6월에 평양마저 왜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순변사 패장 이일과 함께 평산으로 들어가 병사를 모으고 있었으나 여의치 않아 명의 원군을 기다리는 처지였다. 당시 이천에 있던 세자로부터 호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성천까지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 공으로 우위대장, 의용도대장에 임명되었다. 그 뒤 군사를 이끌고 수차에 걸쳐 왜병과 전투하였으나 왜군이 강하여 큰 공을 세울 수 없었다. 왜군도 이순신의 수군의 활약으로 보급선이 끊어지면서 곤경을 받게 되어 북진을 멈추고 평양부근에서 수비전을 벌이고 있었다. 조·명 연합군의 선전과 전국적인 의병의 활동으로 1월에 평양이 적지로부터 탈환되었다.

이러 왜군은 수적 열세에다 보급의 부족으로 후퇴하자 조·명군은 왜군을 밀어내기 시작 하였다. 도원수 김명원을 따라서 과주까지 종군하였으나 지병의 재발로 군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선상에서 죽었다.

병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장남 진남이 청난공신이 되어 관서에 재증직되었다. 묘소는 광시 면 마사리 봉수산 서쪽에 안장되어 있다.

이산보(李山甫) (1539~159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거(仲擧), 호는 명곡(鳴谷), 지무(之茂)의 아들이다. 작은아버지인 지함에게서 사사하였다.

1567년(명종 22년) 사마시를 거쳐 1568년(선조 1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의 추천으로 춘추관에 들어갔다가 전적, 해미현감, 정언 등을 지냈으며, 왕명을 받고 순안어사로 북도(北道)를 순찰하고 돌아와 수찬, 교리, 지평, 헌납, 이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577년 양모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양하고 서천에 돌아갔다가 다시 사의, 집의, 사간, 응교, 직제학 등을 지냈으며 당론을 끝까지 신술하다가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종부시정에 좌천되었다. 1년 뒤 다시 집의로 전임하였고, 이어 동부승지, 대사간, 우승지를 지냈다. 1585년 부제학 김우옹, 이이, 정철이 행한 일을 논박하는 것을 반박하자, 선조는 그의 충절을 크게 칭찬하여 대사헌으로 특진시켰다. 뒤에 이이, 박순, 정철의 공적을 논하다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경상도와 황해도의 관찰사로 전직되었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인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대사간의 자리에서 난국을 수습하고 성절사로 이듬해 명나라에 다녀왔다가 대사헌이 되었다.

1591년 황해도 관찰사로 있다가 건저문제로 정철 등 서인이 화를 당하자 이에 연루 곧 파직되어 고향인 보령에 내려가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였고 대사간, 이조참판,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명나라 군대가 요양에 머물면서 진군하지 않자 그는 명나라 장수를 설득하여 진군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어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북도와 삼남지방의 도검찰사(都檢察使)로 나갔는데 지난날의 선정에 감복하여 도민들이 적극 협력하여 무사히 해결하였다.

1594년에 대기근이 들자 동궁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구휼(救恤)에 힘쓰다가 병을 얻어 1594년(선조 27년) 4월 28일 홍양(홍성)에서 죽었다. 묘는 보령군 주표면 고정리에 있다.

1604년 호종공신(扈從功臣) 2등에 책록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한흥부원군(韓興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성품이 소박하고 정직하여 이해득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치정에는 심신을 다하였다. 보령의 화암서원에 제향되었고, 서천의 건암서원에도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예산과의 인연은 명곡의 11대 후손이 불천지위 신주를 모시고 광시면 장신리로 이사하고 사당을 건립하면서 부터이다. 퇴락한 사당을 1997년에 다시 보수하여 단장하였다.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아계 이산해의 영정



묘 (대솔면 방산리)



신도비 (대솔면 방산리)

조선 중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 종남수옹(終南睡翁)이고 내자시정(內資侍正) 지번(之蕃)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작은아버지인 지함에게 학문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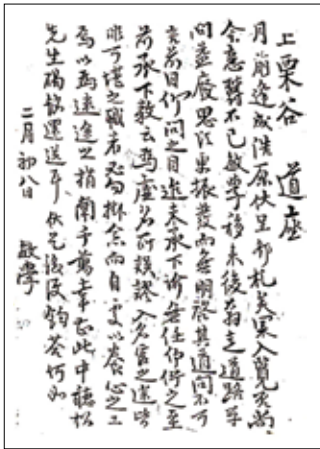
1558년(명종 13년)에 진사가 되었고, 1501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이듬해 홍문관정자가 되어 명종의 명을 받아 경복궁대액(景福宮大額)을 썼다 이어 부수찬이 되고 1564년 병조좌랑, 수찬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 정언을 거쳐 이조좌랑이 되었다. 1577년 이조·예조·병조·공조의 참의를 역임하고 대사성·도승지가 되었다. 1578년 대사간이 되어 서인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윤현(尹峴)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다음해 대사헌에 승진되고 1580년 병조참판에 이어 형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이듬해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오르고 다시 이조·예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면서 제학·대제학·판의금부사·지경연춘수관성균관사(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를 겸하였다. 1588년 우의정에 올랐고, 이무렵 동인이 남인·북인으로 갈라지자 북인의 영수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다음해에 좌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으며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 광국공신 3등으로 책록되고,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이듬해 정철(鄭澈)이 건저문제(建儲問題)를 일으키자 아들 경전(慶全)을 시켜 김공량(金公諒, 인빈(仁嬪)의 오빠)에게 정철이 인빈과 신성군(信誠君)을 해치려 한다는 말을 전하여 물의를 빚었으며, 아들 경전으로 하여금 정철을 탄핵하게 하여 강제로 유배시키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호조판서 윤두수, 우찬성, 윤근수와 백유성(白惟成), 유공진(柳拱辰), 이춘영(李春英), 황혁(黃赫) 등 서인의 영수급을 파직 또는 귀양 보내고 동인의 집권을 확고히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왕을 호종하여 개성에 이르렀으나 양사로부터 나라를 그르치는 왜적을 침입하도록 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파면되어 백의(白衣)로 평양에 이르렀으나 다시 탄핵을 받아 평해(平海)에 중도부처

(中途付處)되었다. 1595년 풀려나서 영돈령부사로 복직되고 대제학을 겸하였다. 복인이 다시 분당될 때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홍여순(洪汝諄)등과 대북과가 되어 그 영수로서 1599년 재차 영의정에 올랐으나 이듬해 파직되었다가 1601년 부원군(府院君)으로 환배(還拜) 되었으며, 선조가 죽자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맡았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으로 불렸으며, 특히 문장에 능하여 선조조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렸다. 서화에도 능하여 대자(大字)와 산수묵도(山水墨圖)에 뛰어났으며, 용인의 조광조묘비(趙光祖墓碑)와 안강의 이언적묘비(李彦迪墓碑)를 썼고, 이이(李珥), 정철과 친구였으나 당과가 생긴 뒤로는 멀어졌다. 저서로 《아계집》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와 후손들이 살고 있다.

안민학(安敏學) (1542~1601)



율곡 이이가 안민학을 칭송하는 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이습(而習) 호는 풍애(楓厓) 본관은 광주 박순(朴淳) 선생의 수제자이었다.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높은 목표가 있었으며 나이가 약관 때부터 유학에 종사하여 과거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았고 경서와 사기 및 제자백가에 관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리고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 두 선생과의 도의지교가 깊었다. 문장과 사한이 날로 성하여 당대의 명사들이 다 면대하기를 원하였다. 만력계유(1573)선조 6년에 육행(六行)으로 천거되어 건원능참봉을 제수하였으나 불취하고 다시 희능참봉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다 취사하라 권유해 응락하였다. 그리고 우계 선생이 시를 지어 말

하기를 율(栗)곡(谷)우(憂)시(時)사 구(舊)은(隱)터니 풍(楓)애(崖)위(爲)양(養)작(作) 재(齋)랑(郎)이라 하였다. (율곡은 시대를 걱정하여 숨어살기를 그만두었고 풍애는 부모봉양을 위하여 참봉이 되었다.) 얼마 안되어 사직하고 돌아왔다.

경진(庚辰-1580)선조 13년에 조정대신중에 훌륭한 선비들이 최하위직에 침체되어 있다고 장계를 올리어 얼마후에 아산현감에 제수되었다. 우계 선생이 글을 지어 송별하고 사암 박상공도 시를 지어 말하기를 광(匡)시(時)수(須)직(直)사(士) 오(吾)도(道)저(佇)중(終)형(亨)가 하였다.(시대를 바로잡는 데는 정직한 선비가 필요한데 우리의 도가 오랜만에 형통하려나) 그때 마치 조종에서는 혼효한 조짐이 나타나고 사회가 장작할 기미가 감돌고 있었다. 공이 그때 시대에 맞지 않아 은퇴할 뜻을 두었는데 이어서 왜구들이 갑자기 침공하였다. 분주하게 달려 행재소에 이르니 사어를 제수하고 이어서 소모사를 임명하고 즉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군량과 전마와 정예군사들을 모집하여 일행이 아산에 도달하자 신병이 너무심하여 더 나갈수가 없어서 조정에 사실을 알리고서 서애 류성룡에게 부탁하니 류공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있으니 공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그대의 이러한 눈물이 임진전(壬辰前)에 있었으면 금일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서애 류공도 심하게 탄복하였다. 그후 사도시 첨정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오직 고대 서적에 심취하여 즐거움을 삼았다.

천자가 순정하고 조이가 정확하여 더욱 심경과 근사록 등서에 전공하고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도를 들으면 독실이 밟고 용감하게 직진하였다. 율곡선생이 말하기를 이만한 사람은 나도 보기가 드물다 하였다. 또 성품이 지효하여 날마다 관대를 가추고 가묘를 참배하

며 모친을 봉양하는데 사랑과 공경이 지극하였고 매년 생신날이면 우계와 율곡 두 선생이 반드시 참석하여 헌수하였고 중봉 조현도 그의 도학을 칭찬하였으며 남공 은기는 시를 지어 말하기를 인(人)간(間)사(師)표(表)안(安)이(而)습(習)(인간에게 사표는 안이습)이라 하였으니 여러 현인들한테 칭찬이 이와 같았다. 그의 강직한 심장이 천적들한테 미움을 받은 고로 정인홍 등이 여러 현인들을 무고하고 탄핵하여 공이 괴(怪)귀(鬼)배(輩)(괴상한잡귀의 무리)라 논척하니 말이 너무 절준하였다. 사헌부 장령에 의망하니 율곡이 기뻐 말하기를 만일 저러한 사람이 사헌부 장령을 맡으면 반드시 볼만한 것이 많이 있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기가 날로 격앙하고 정도가 용납되지 않아 만분의 일도 자기 포부를 펴지 못하고 끝났으니 그를 아는 군자들이 애석하는 이가 많았다. 후에 후재 김공간이 묘비명을 짓고 장암 정공이 그의 행장과 사적을 썼는데 그 사실이 모두 율곡 우계 사암 제선생의 문집중에 등재되어 소연가고(昭然可考)라 후에 다시 증통정대부 이조 참의에 증직하고 사림의 증논으로 덕산 회암서원에 배향하였다. 순조 추배(서기1830) 순조30년

정현룡(鄭見龍) (1547~1600)



정현룡의 집 (봉산면 봉림리)



정현룡의 처 열려문

장군의 휘는 현룡(見龍)이요. 자는 운경(雲卿)이고 동래인(東萊人)이다. 대호군 인(綱)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증좌찬성 인수로 동래정씨 21세손으로 명종 2년 덕산현 북내

면(현 봉산면 봉림리 성지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용력이 달리는 범의 꼬리를 잡을 정도였고 비범한 기상으로 주위에 촉망을 받았다.

결혼 3개월 후에 장군께서 과거에 응시 차 출가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 후 선조 10년 알성시 무과에 급제 후 북방 방어 임무를 시작으로 동 12년 선전관 겸 강계관관으로 동 18년에 경흥부사로 승차하고 동 24년 종성부사 겸 방어사로 동 25년 임진년에 왜군의 침입으로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니 함경도에서 정문부(鄭文浮)가 의병을 일으키어 관군과 함께 왜장 가등청정의 왜군과 대치하니 조정에서는 의병대장 병마평사 정문부(鄭文浮), 중위장 종성석사 정현룡(鄭見龍), 좌위장 고령석사 유경천(柳擎天), 우위장 경원부사 오응태(吳應台), 북병장 길주사병 김국신(金國信) 외 장졸 2000여명이 길주를 향하여 북진하는 왜군을 습격 격파하니 당황한 왜군이 항거하다가 전부 퇴각하고 이후로 왜군이 함경도를 넘보지 못하였으니 이지역에서만 원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적을 무찔렀다.

이러한 공으로 선조 26년 5월 장군은 가선대부(嘉善大夫) 함경북도 병마절도사로 또한 선조께서 정충록(精忠錄) 3권을 하사, 그 공을 치하하고 9월에 북방방어의 유지를 내리셨다. 그날은 만력 21년(선조 26년) 구월 초칠일이다. 선조 27년 왜군이 패퇴한 연후에는 다시 여진족이 출몰하니 장군께서는 이를 격파했다. 그 공으로 선조 29년에 다시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차하였다.

이후 선조 33년에 다시 여진족이 침입하니 장군이 지휘 격퇴하다가 순직했다. 당시 관찰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승전 보고가 되지 않아 오랫동안 행상(行賞)이 되지 못하다가 60여 년 후인 현종 조에 관찰사 민정중(閔鼎重) 북병사 이단하(李端夏)의 조사로 진상이 밝혀지고 정문부, 정현룡을 증(贈), 록훈(錄勳) 찬성공삼 선무 일등공신에 봉록하고 함경도 경성에 사당을 세우고 창렬사라고 사액 치제하고 만사일생의 고군을 이끌고 전승한 기록을 상세히 적

어 함경도 길주군 임명 남측에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를 세웠다.

이후에 1905년 러일 전쟁시 승리한 일군이 이 비문 내용을 못마땅히 여겨 이 비를 일본으로 반출해 야스꾸니 신사 한 모퉁이에 방치하고 있었으나 정부의 결단으로 환국하여 복원하고 함경도 길주군 임명면 원자리에 세웠다.(현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동)

장군의 생애에 그 배위를 약기한다. 공의 배위는 우봉(牛峰) 이씨로 장군과 혼인 후 3개월 만에 헤어져 17년간 시댁 성지동에 사시다가 여자의 칠거지악의 하나인 무자거가 마음에 걸리고 또한 장군의 안부도 걱정 조정에 글을 올리니 선조께서 특별히 윤허하시어 역관에 분부, 부인의 행차에 침식을 보필하라고 하명을 내리셨다.

부인은 시비를 대동하고 10여일 후에 마천령에 도착, 객사에 여장을 풀고 쉬는데 밖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 중에 부군인 장군의 목소리를 듣고 종자를 식혀 확인하니 장군께서 시비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녀자가 전장터에 오느냐고 나무라며 빨리 모시고 가라고 호령하시니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리면서 시 한수를 장군께 드렸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걸고 걸어서 마천령에 이르니	行行遂到 磨天嶺
동해 바다의 물 갖은 끝이 없네	東海無涯 鏡面平
천리길을 여자로 무슨 일로 왔는고	千里婦人 何事到
삼종지의 무거워 이 한 몸 가벼이 하였네.	三從義重 一身輕

시비를 시켜 이 시를 장군에게 드리고 집을 향해 오는데 십 여리도 채 못와서 장군이 모셔 오라는 분부로 부인은 다시 병영으로 들어가 생활하시면서 2남 1녀를 두시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인과 자녀를 고향으로 보내었다.

부인은 고향에서 장군을 기다리던 중 선조 33년에 장군의 애마가 장군의 두안(頭顔)을 물고 오니 부인이 이를 확인하고 이웃에 칠전곡(현 봉산면 옥전리 옷밭골) 명당에 두안을 안장하고 그 아래에 애마를 묻어주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별초를 하고 있다. 현종 조 장군의 록훈이 이루어짐과 함께 조정에서 부인의 열행의 정려문 현판을 내리고 그 절의를 높이 찬양하고 참쌀과 청기와 3장을 하사 하셨는데 그 후 청기와 2장은 도난당하고 1장만 보관하고 있다.

이흠(李洽) (1549~1608)



취암 이흠의 묘 (봉산면 봉림리)

취암(醉菴)공은 1549년(명종 4)부터 1608년(광해 즉위)까지 60세를 일기로 사신 선조 때의 명신이다. 본관은 한산(韓山), 이름은 흠(洽)이고 취암은 호이며 자는 화보(和甫)이다. 여말의 충신이요 성리학의 대가이며 대 문호인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의 9대손이고, 한양군(韓陽君) 흥준(興峻)의 아들이다. 재종조 북애공 이증의 문인으로 1573년(선조 6년)에 생원이 되고, 158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

문원에 등용된 뒤 정언, 헌납, 장령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589년 10월 정여립이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으로 3년 여에 걸쳐 관련된 천여 명의 동인계가 피해를 입은 이른바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당쟁 시대였던 그때 크고 작은 조정의 사안들이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모반사건이 일어났으니 조정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때 공은 사간원의 헌납이었는데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상소를 올려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 후 신묘년 봄에 장령에 임명되었을 때 공은 아무도 하기를 꺼려하는 적신 정인홍에 대한 탄핵 상소를 올려 조야가 모두 공을 위태롭게 여겼다. 이후 약 20년간 파면, 파직, 사직, 삭직 삭탈관직 1590년(선조 23년) 영의정 송강(松江) 정철(鄭澈)과 함께 유배로 이어지는 파란 많은 생애를 보냈다. 특히 정인홍의 죄를 향론한 것이 끝내 그의 무리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1601년(선조 34년) 좌참찬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함께 6년이란 긴 세월을 유배지 옥구에서 보내야 했다.

공이 서거한 후 1612년(광해군 4년)에 승정원 도승지, 이조판서, 1630년에는 순충보조공신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정연 춘추관성균관 사 세자이사 아흥군(純忠輔祚功臣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知經筵 春秋館成均館事 世子貳師 鵝興君)을 추증 받았다.

이후 호서의 많은 선비들이 ‘공의 학문과 행실의 순수함과 충효의 절의는 만인의 귀감이 되었으며 따라서 공을 서원에 배향해야 한다.’라고 발론하니 태학의 선비들도 이를 적극 지지하여 1800년 3월에 덕산의 회암서원에 배향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세대의 차례를 쫓아 야곡(冶谷) 조극선(趙克善)의 오른쪽에 있게 된 것이다.

또 죽음 조공 희일(竹陰趙公希逸)의 뇌문(誄文)에 ‘부자(夫子)께서는 기(氣)로 화(和)하고

행실은 모나며 지킴은 확고하고 논의는 바르다. 충효(忠孝)의대절을 잡고 복리의 혜택이 남에게 미치기를 생각하였다'라고 썼다.

승록대부 행의정부좌참찬 겸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사예문관제학 장주 황승원(崇祿大夫 行議政府左參贊 兼判義禁府事 知經筵 春秋館事藝文館提學 長洲 黃昇源)은 명(銘)을 지어 '공의 큰 절개를 살펴보니 곧은 도(道)로 나랏일에 순사(殉死)하였네. 적신(賊臣)이 요로(要路)에 있어서 우리의 충신(忠蠱)한 무리를 장해(戕害)하니 공이 맹세코 앞장서서 탄핵하여 시퍼런 칼날도 뱉을 만 하였네. 조야(朝野)가 모두 위태롭게 여겨 떨었건만 공은 태연하였네. 홀(笏)을 바로하고 조정의 반열에 서서 뛰어난 인물을 보호하였으며, 사나운 풍랑의 바닷길을 배 저어 행조(行朝)에 조근(朝覲)하였네. 충성(忠誠)과 신의(信義)를 짓고 황제의 사신의 접반관이 되었으며 선·정(宣·靖) 두 능의 개봉도감의 낭청이 되었더니 점차로 허구의 험뜯음이 침범하여 부목(府牧)으로 전전하면서 저 백성의 노약을 은혜로 돌보았네. 육년 동안 변방의 유배 생활에서 시 읊으며 구레나루 회어졌네. 저 반대당의 무리는 비록 마음에 달게 여겼겠지만 공은 오히려 「견고한 돌처럼」 닳지 않았네. 효성의 소치로다. 아버지의 상을 집에서 거상(居喪)할 수 있었으니 하늘이 슬프지 않았네. 나의 명(銘)이 과대함이 아니니 길이 후세가 이를 믿으리라'라고 충심으로 공을 기렸다.

공은 젊은 날에 재중조 되는 북애 이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땀에 흠뻑 젖어 바지가 썩을 정도로 학문을 연마하여 훗날 성리학에 깊은 경지를 드러냄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관직에 있을 때 공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해가지 않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려 잘못을 시정하려 힘썼다.

공은 이렇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절(節)을 휘지 않았던 것이다. 시대를 넘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무리는 언제나 세상에 섞여 있는 법이어서, 공의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레 관직의 세계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직위 상승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밀려 났다.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수시로 다가왔지만 결코 에둘러 돌아가지 않았던 공의 기개는 침묵 가운데 당시 뜻있는 사람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았다.

돼지의 행복보다 소크라테스의 고뇌를 택하는 것이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면서 정면으로 맞서,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를 지키는 가운데 의연하게 사는 사람이야 말로 비록 높은 지위에

오르지는 못할지라도 뜻있고 가치 있게 산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만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통이 따르더라도 여러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시공을 넘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공은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그의 애민사상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을 바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 충절과 효성 그리고 백성을 식구같이 아끼시던 그의 사상(思想)은, 눈앞의 작은 사익(私益)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는 이 물신(物神)의 시대에 더욱 아쉬운 정신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공의 행적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영원한 등불로 남아 있을 것이다.

취암실기 上下一卷이 전하고 있으며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묘하에 신도비가 건립되었다.

조정(趙挺) (1551~162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호(汝豪), 호는 한수(漢水), 죽천(竹川)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충수의 아들이다.

그는 신양면 죽천리에서 살았으며 그의 호는 죽천(竹川)을 딴것이다. 1582년(선조 15년)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사관(史官)으로 등용되었으며 1586년 사정으로서 다시 문과중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예문관 홍문관에 등용되고, 이어 수찬, 교리를 거쳐 정언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보덕으로 세자를 호종하였고 그 뒤 전적, 필선을 거쳐 회양부사, 광주목사(廣州牧使), 남양부사 안변부사로 나아갔다.

그 뒤 호조판서 대사간, 동부승지, 부제학, 동지중추부사, 대사성, 이조, 호조, 형조의 참판 및 지의금부사, 대사헌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601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한성판윤이 되고, 1609년 형조판서로 또다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우참찬, 형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하였고 형난공신(亨難功臣) 2등에 책봉되었고 한천군에 책봉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세상은 바뀌어 서인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때 광해군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 분명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광해군을 전주(前主) 즉 전 임금이라는 표현을 써 폐군(悖君)을 존칭하였다는 죄목으로 대간의 탄핵을 받게 되고 관직을 삭탈 당하게 된다. 거기에 광해군 때 공신이 되었다는 이유로 죄목이 가중되어 1628년 해남에 유배되어 풍토병에 시달리다 죽었다.

1675년(숙종 1년) 신원되었고 저서로는 동사보유(東史補遺)가 있다. 그의 묘는 신양면 신양리에 있다.

성흔(成忻) (1555~1626)



성흔의 묘 (신양면 귀곡리)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는 삼괴당(三槐堂), 자는 군열(君悅), 본관은 창녕이다.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팔원(八元) 어머니는 전주 이씨다.

그의 증조는 중종반정공신으로 일족이 모두 반정에 가담한 의(義)를 숭상하는 집안이었다. 삼괴당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

읽기와 글씨 쓰기를 좋아하여 명필가의 소양이 보였다. 선조 21년(1588) 중사마양시(中司馬兩試)에 급제하여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시마사국기사관(洗馬史國記事官)을 거쳐 임진왜란 후 승정원가주서 장예원사의(承政院假注書掌隸院司議)에 이르렀다. 그 당시의 조정은 당쟁이 치열하던 시기라 약화된 왕권과 대북과의 전횡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광해군 5년(1613)에 일어난 계축옥사에 천기(天記) 누설의 죄를 범하자 어지러운 정치, 흔들리는 법도에 실망한 나머지 벼슬을 사직한다. 당시의 민심은 상하가 불복하고 흉흉하여 언제 닥칠지 모를 멸문지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세거지인 양주에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중조 성회옹의 처가(담양 전씨)가 있던 대흥현 원동면 귀곡(현재 예산군 신양면 귀곡리) 산중으로 낙향한다. 이곳에 불천지위의 사당을 모시고 살다 이웃동네인 가재울로 이사하여 옥녀봉 줄기에 선고찰방공 유택을 안장하고 산 아래에 사당과 거사(居舍)를 이전하고 주위에 느티나무 한그루, 마을입구에 한그루, 귀곡초등학교 자리에 한그루 등 3개의 나무를 심고 느티나무 괴(槐)자를 써 삼괴정사(三槐精舍)라 명명하고 자신의 호를 삼괴당이라 호칭하였다.

삼괴당은 이곳을 강학의 서재로 삼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특히 그의 필법은 당시의 서예가 한석봉과 비견되었으나 불행이도 유묵은 전하나 유고는 전하지 않는다.

삼괴당이 처음 불천지위신주를 모시고 낙향한 곳은 귀골(貴谷)이란 지명으로 불렸으며 출타하다 동구 밖으로 쉬어가던 곳은 덕의정(德義亭)이란 이름으로 불리다 후에 충남 제일의 해복지지(명당)가 되었다. 가재울은 성인군자가 가히 살만한 곳이라 하여 그리 불렀다. 그리하여 예산의 창녕성씨 입향의 확고한 세업(世業)이 열린 것이다.

삼괴당은 인조반정으로 다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으나 오로지 가업과 학문과 서예에 몰두하면서 정착하였다.

풍수지리에도 상당한 조예가 깊었고 토정 이지함과 교류가 있었다하나 확인한 길은 없다.

그의 선견대로 후손들이 날로 번창하여 영조 초엽(1730년 전후) 창의사를 창건하여 속칭 가좌울 성씨의 확고한 기반을 뿌리내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삼괴당은 인조 4년(1626) 운명하였는데 창의사 바로 위에 안장되었고 배위(配位)는 안동 김씨다.

사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관 참찬관 춘추관에 증직되었다. 후에 6세손 성야(成埜)에 의해 ‘귀거래사’란 이름의 삼괴당 필첩이 제작되었다.

조익(趙翼) (1556~1613)



포저 조익의 묘 (신양면 신양리)



신도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豐壤),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저(浦渚), 존재(存齋)이며, 장현광 윤근수의 문인이다.

서울 창신동에서 출생하였으며 포저가 예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사후 묘소가 신양면 신양리 백석에 안장되면서 부터다. 생전에는

예산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1986년부터 포저공 추모사업이 시작되면서 예산의 인물로 다시 조명되게 되었다. 임진왜란 중 음보로 정포만호가 되어 1598년(선조 31년) 군량미 23만석을 운반하는 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다시 수학하여 160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임명되어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삼사의 관직을 두루 지내던 중 1611년(광해군 3년) 김굉필, 조광조, 이언적, 정여창 등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고산도찰방으로 좌천되고, 이어 웅천현감을 역임하였다. 뒤이어 인목대비가 유폐되는 사태가 빚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광주(廣州)로 은거하였다가 충청도 신창으로 옮겨 살았다.

1623년 인조가 즉위하자 이조좌랑에 임명되어 신창을 떠나 다시 조정에 들어갔다. 이듬해 의정부 검상사인(舍人)에 임명되고, 이어 응교, 직제학 등을 거쳐 동부승지에 올랐다. 1631년 어머니가 죽자 잠시 벼슬을 떠났으나, 삼년상을 마친 뒤 곧 관직에 복귀하였다.

한성부 우윤, 개성부유수, 대사간, 이조참판, 대사성, 예조판서, 대사헌, 공조판서, 한성부판윤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이원익을 도와 대동법을 확대 관리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636년 예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을 당하자 종묘를 강화도로 옮기고 뒤이어 인조를 호종하려다가, 아들 진양(進陽)으로 하여금 강화로 모시게 하였던 80세의 아버지가 도중에 실종되어 며칠 동안 아버지를 찾느라 직무를 이탈하여 인조를 호종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호란이 끝난 뒤 그 죄가 거론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지만 그 까닭이 효성을 다하고자 한데 있었고 아버지를 강화도로 도피시킨 뒤에는 윤계(尹啓), 심지원(沈之源) 등과 함께 경기지역의 패잔병 등을 모아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을 공격하여 입성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참작되어 그해 12월에 석방되었다. 그 후 3년 뒤에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으로 조정

에 들라는 하명을 받았으나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뒤이어 예조판서, 이조판서, 대사헌의 직이 내려졌지만, 모두 사양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상복을 벗게 되자 1648년 좌참찬이 되어 다시 조정에 나갔다.

이후 1655년 3월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로 죽기까지 우의정, 좌의정과 중추부판사, 영사의 자리를 거듭 역임하였다. 고향 광주에서 77세로 죽으니 효종은 문효(文孝)라는 시호를 내렸다. 대흥현 동화산(東華山)에 장례하였다. 뒷날 광주의 명고서원(明臯書院), 개성의 송양서원(崧陽書院), 신창의 도산서원(道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논술 외에 문집으로 《포저집》 35권 18책이 전하고 《역상개략(易象概略)》은 이름만 전한다.

그 후 묘전에 도산서원을 이전 건립하고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다.

이경전(李慶全) (1567~1644)



대술 방산리에 위치한 한산 이씨 사당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중집(仲集), 호는 석루(石樓) 본관은 한산이다. 아계 이산해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조연수의 딸이다.

1590년(선조 2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사가독서를 하였다. 1595년(선조 28년) 한성참군 1596년에는 예조좌랑, 병조좌랑을 지냈고 1608년 정인홍 등과 함께 영창대군의 옹립을 꾀하는 소북 유영경(柳永慶)을 탄핵하다가

강계에 귀양갔다. 이해 광해군이 즉위하자 풀려나와 충흥도(忠洪道), 전라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1614년(광해군 6년)에 자헌대부에 올랐다. 이듬해 의정부 좌참찬, 지중추부사, 형조판서 겸 오도도순찰사에 올랐다.

1616년 다시 육도제찰사를 겸했다. 1618년(광해군 10년) 한평군(韓平君)을 습봉(習封)하고 좌참찬에 올랐다.

1623년(인조 1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서인들에게 아첨하여 생명을 보전하고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인조의 책봉을 요청하였다. 이어 한평부원군(韓平府院君)에 진봉되고 1627년(인조 5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왕이 강화도로 피난할 때 호종하였고 1636년(인조 14년) 기사(耆仕)에 들어갔으나 그해 병자호란이 일어나 다시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 이 공로로 승록대부 판돈령부사에 올라 문형(文衡)에 천거되었다.

1637년 장유, 이경석 등과 함께 삼전도(三田渡)의 비문 작성의 명을 받았으나 병을 빙자하고 거절하였으며, 1640년 형조판서를 지냈다. 문필이 뛰어나 이름이 높았으며 저서로는 『석루유고』가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명나라 장수들이 회군하던 날 도둑 형개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전공을 칭송해 주지 않았다 하여 노여움을 사 한음 이덕형(漢陰 李德馨)을 몹시 책망하여 일이 커지려 할 때 석루 이경전이 여기에 뽕혀 글을 짓고 한석봉으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해서 한음이 이것을 가져다주니 형개는 금시 노여움이 풀려 그 글을 격절탄상 하였다 한다. 그의 문집 목판본이 대술에 있다.

이춘원(李春元) (1571~163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함평(咸平), 초명은 신원(信元), 자는 입지(立之)라 하였는데 44세 나던 광해군 6년(1614년)에 피기(避忌)할 일이 있어 춘원(春元)으로 개명하고 자(字)도 원길(元吉)로 고치었다. 호는 구완(九腕)이다.

구완은 선조 4년 7월 15일 한성 훈도방(薰陶坊) 경제(京第)에서 출생하니 지금의 남산 밑 중부경찰서 부근이다.

예산과의 인연은 구완의 조부가 덕산현 고산(높은미, 현재 고덕면 몽곡리)에서 기반을 잡아 살면서 구완이 젖떨어지자 데려다 키우면서 부터다. 여기서 6세 연장이었던 큰댁 막내 사촌형인 용계(龍溪) 이영원(李榮元)과 사귀게 되어 학문적 동지로 지내게 되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벼슬길에 나간 후에도 거처를 마련하고 틈틈이 귀향하였다.

일찍이 남양의 홍지성(洪至誠)에게 글을 배웠고 뒤에 박순(朴淳)이 영의정을 그만두고 영평(永平)에 은거할 때 그를 찾아가 다시 배우니 단연 학문에 두각을 나타내었다. 20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6년(선조 2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어 승정원권지부정자에 등용되고 이듬해인 1597년(선조 30년)에는 광양 현감으로 남원을 포위한 왜군과 싸웠다.

그 뒤 장흥을 거쳐 동래부사가 되었는데 《동래부사 이신원(李信元)은 장흥에 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여 병이 되고 있었는데 동래에 와서 더욱 술에 빠져 나라를 막는 중요한 곳에서 날마다 허송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하루도 벼슬에 둘 수 없사옵습니다. 파직을 명령하시기를 청하옵습니다》라는 상소를 받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다음해 선조 41년(1608년) 선조가 서거하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다시 강원감사로 등용된다. 그러나 모 부인 구씨의 서거로 1년 남짓 만에 사직하고 3년 상이 끝난 후 좌승지로 발탁된다. 이어 1613년(광해군 5년) 폐모론이 일어나자 이에 반대 항론하다가 파직되었다. 이듬해 다시 승지로 복직 되었다가 병조참의가 되었으며 가선대부로 승진되었다. 충청감사 시절 권신들이 인목대비의 존호를 폐하고 대비에 대한 모든 의식을 없애려고 하자 이에 극력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그러나 1620년 지돈령부사가 되어 명나라 사신을 안주까지 나가서 맞이 하였는데 갑자기 중풍에 걸려 사직하고 돌아왔다. 1623년 인조가 반정하여 구신들을 많이 등용할 때 한직을 맡겨 정양하게 하려 하였으나 사퇴하였다.

그 후 구완(九腕)은 항상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시부를 읊는 호방한 풍류생활을 즐기다 64세인 인조 12년(1634) 갑술 7월 26일에 서울 경제(京第)에서 서거하여 경기도 광주 서부 감북리 선영하에 장사지냈다. 근래에 광주가 개발되면서 구완(九腕)의 산소도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로 이장하였는데 이곳에 신도비가 있다. 저서에 구완집이 있다.

이명준(李命俊) (1572~163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창기(昌期), 호는 잠와(潛窩) 또는 진사재(進思齋),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아버지는 병마절도사 청강(淸江) 이제신(李濟臣)의 네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목천상씨(木川尙氏)로 봉남(鵬南)의 딸이다.

이정암(李廷菴), 이항복(李恒福),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603년 정시문과에 장원, 성균관 전적에 임명되었으며 예조와 병조의 좌랑을 지냈다.

1604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좌랑, 병조좌랑, 고산도찰방, 덕산현감과 평양서윤 등을 역임하였다.

1613년(광해군 5년) 계축옥사 때 영덕으로 유배되었다. 계축옥사는 대북과가 영창대군 및 반대세력을 누르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로 칠서지옥(七庶之獄) 이라고도 한다. 이 옥사로 김제남이 사사되고 1618년 인목대비도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고 영의정 이덕형과 좌의정 이항복을 비롯한 서인, 남인들은 유배 또는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이때 잠와공은 이항복이 폐모를 반대하다 죄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소를 올리니 극렬한 어조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현리가 감히 받지 못하였다 한다.

1623년 인조반정의 성공으로 장령에 복직되어 영남암행어사, 충청관찰사 호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이괄의 난 때 임금이 공주로 피난하였는데 옆에서 항상 결핍이 없게 한 공으로 가선대부로 승진하였다. 1627년(인조 5년) 정묘호란 때 왕은 강화도로 피신하고 세자를 호종하여 전주로 피난하였다. 그 공으로 호피와 말을 특별히 하사받았다. 이어 강릉부사,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1630년 시폐를 논하는 상소를 올려 대사간이 되었다가 병조참판을 거쳐 병으로 사직하였다. 강릉부사시절에는 시폐를 혁파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양천의 운당골로 들어가 두어 칸을 짓고 살았는데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다. 호를 잠와(潛窩)라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그 집을 퇴사재라고 하였다. 1630년 12월 22일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국록을 먹은 지 30년이 되었으나 제대로 입을 만한 옷 한 벌이 없고 처자는 항상 주린빛이었다. 임금께서 「이명준은 나라 일에 온 정성을 바치었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는데 뜻을 두었더니 불행히 세상을 떠나니 내가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 초상 비용이나 장사의 용역을 모두 국가에서 지급하여 충성을 밝혀주라」고 하였다 한다.

1631년 2월 16일 예장하였으며 묘소는 덕산면 신평리에 있다. 1644년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저서에는 『잠와유고』 등 4권이 있다. 인조(仁朝)때 청백리에 녹훈 되었다.

이의배(李義培) (1576~1637)



이의배의 신도비 (봉산면 봉림리)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의백(宜伯), 삼교 거주. 1599년(선조 32년) 무과에 급제. 선전관이 되고 이어 감찰로 전임되었다.

연해(沿海) 수령을 선임할 때 보령현감으로 발탁되었으나 이때는 임란왜군이 겨우 철수할 때라서 연소(年少)하다는 이유로 부임하지는 않았다.

광해군 때는 출사하지 않다가 1623년 인조반정에 앞장서 정사(靖社)의 밑모에 가담하여 반정 후에는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훈책되어 통정(通政)으로 승진 되고 명천부사에 제수되었다.

이괄의 난 후 전라좌수사로 승진되었다. 이어 안동부사로 전임되고 1630년(인조8년) 한천군(韓川君)으로 훈봉되었으며, 공청도병마절도사(公淸道兵馬節度使), 김해 부사를 역임한 뒤 전라 병사로 승진, 오위도총부부총관, 황해, 평안, 함경도 등의 병사를 역임하고 1635년 공청도병마절도사로 다시 역임하여 그곳에서 병자호란을 맞았다.

소식을 듣고 남한산성으로 가기 위하여 임지 부근의 속오병 수천을 모아 출진을 서둘렀다. 가사를 동생에게 맡기고 부인에게 백주(白紬)로 행전(行纏)을 만들게 하여 청금으로 바지속 양다리에 동여매니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묻는 말에 “임전에 사생을 알 수 없는데 후일 이것으로써 알아차리게 할 일이다.” 하고 결연히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향하였다. 광주부근 죽산에 당도하여 다음 날 남한산성으로 향할하다가 적의 습격을 받아 선봉장(先峰將) 이차형(李次衡)과 이근영(李根永)이 전사하고 다시 적정(敵情)을 살피니 중과부적(衆寡不敵)임을 확인하고 진군(進軍)을 늦추고 협력軍 경상좌절도사 허완(許完) 군과 경상우절도사 민영(閔楳)의 군과 합류(合流) 진군(進軍)하여 경기도 광주 쌍령(廣州 雙嶺)에 군진(軍陣)을 치고 적의 공격 때 아군이 화포 공격으로 적이 퇴각했으나 아군 진중(陣中)에서 화약 취급 잘못으로 폭발하여 아군 군진(軍陣)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흩어진 틈을 타서 적의 공격에 우리 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무너지자 비장(裨將) 안삼오(安三五)와 노귀인(奴貴人)이 말을 대령 하고 피신 권유를 하였으나 물리치고 비장(裨將) 이억(李億)과 노비 조축생(曹丑生)과 함께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모두 적의 화살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경상좌도 “허완” 경상우도 “민영” 절도사도 함께 전사하였다.

광주 쌍령(廣州 雙嶺)에는 3인 병마절도사(三人 兵馬節度使)를 비롯한 전몰장병(戰歿將兵)을 기리는 추모비(追慕碑)를 당시 그 지방민(地方民)들이 세우고 매년 음력 1월 3일 전몰(戰歿)한날 추모제(追慕祭)를 향사(享祀)하는데 지금도 비(碑)가 쌍령(雙嶺) 2차선 길 옆에 비각(碑閣)과 함께

광주 쌍령(廣州 雙嶺)에는 3인 병마절도사(三人 兵馬節度使)를 비롯한 전몰장병(戰歿將兵)을 기리는 추모비(追慕碑)를 당시 그 지방민(地方民)들이 세우고 매년 음력 1월 3일 전몰(戰歿)한날 추모제(追慕祭)를 향사(享祀)하는데 지금도 비(碑)가 쌍령(雙嶺) 2차선 길 옆에 비각(碑閣)과 함께

서 있다.

절도사 이의배(節度使 李義培)는 출전(出戰)하기전 부인(婦人)에게 시켜 흰 명주의 행전(行纏)을 만들어 차고 푸른 비단끈을 바지에 매달게 하여 입었다. 그것은 무관(武官)으로서 국난(國難)때 순국(殉國)을 각오(覺悟)한 평소의 의지(意志)였다.

충장공이 전사한지 65년 뒤(신사년) 영의정 최석정(領議政 崔錫鼎)이 어연(御筵)에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병자년의 쌍령(雙嶺) 전투에서 전몰(戰歿)한 허완(許完), 민영(閔楳), 이의배(李義培) 3인 절도사(節度使) 모두 순절(殉節)하였는데 의배(義培)만은 포미(褒美)를 못하였습니다. 정축년에 산성을 내려온 처음에 조정에서는 진도독(陣都督) 홍범(弘範)에게 자문(咨文)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정상을 들어내 밝혔는데 실로 신(臣)의 선조인 고(故) 상신(相臣) “명길(鳴吉)이 왕명을 받들어 찬(撰)한 것으로서 그 글속에 3인의 전사(戰死)한 실적이 갖추어 실려 있어서 매우 명백합니다. 의배(義培)는 비록 공신(功臣)으로서의 예증(例贈)은 있었으나 마땅히 따로 포증(褒贈)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형조판서 엄즙, 좌상 이세백, 우상 신완, 이조판서 이여, 제공(諸公)이 모두 상진(上陳)하니 임금님이 하교하기를 『부자(父子)가 사절(死節)한 것은 세상에 드물게 있는 일이다.』 이의배에게 의정(議政)을 추증(追贈)하고 사제(賜祭)하며 자손(子孫)을 녹용(錄用)하고 이의배의 부자(父子)와 허완(許完), 민영(閔楳)과 이억(李億), 조축생(曹丑生) 모두에게 정려(旌閭)하라고 명(命)하고 이때 이의배의 용두 신도비(龍頭 神道碑)가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 찬(撰) 시장(諡狀)으로 세워졌다. 처음에는 병조판서가 추증(追贈)되었다가 이때 의정부 영의정(議政府 領議政) 한천부원군(韓川府院君)을 가증(加贈)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여섯 번 곤임(關任-병마수사), 세 번의 고을 수령을 거쳤는데 가는 곳마다 비(碑)를 세워 덕(德)을 기렸다고 한다.

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의 사이에 1남(一男) 목(穆)을 두었는데 부인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증 영의정(贈 領議政) 이경록(李慶祿)의 따님이고 경기감사와 이괄의 난 평정때 부원수인 완풍군 이서(完豐君 李曙)의 매(妹)이다.

“배(配)” 전주이씨(全州李氏)는 병서(兵書)에 심원(深遠)하여 완풍군(完豐君)이 자주 문계(問計)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또한 평소 군대식 내조와 가훈은 후손들이 계속 7대 봉군(七代 封君) 배수(拜受)하고 추존(追尊) 3대까지 계속 10대 봉군(十代 封君)을 배수(拜受)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구전(口傳)돼 오고 있다.

측실(側室)에서는 4남 1녀 稗(간) 棗(내) 秬(비) 秠(유)와 1녀이다.

지방문화재 186호 용두(龍頭)의 신도비(神道碑)는 묘하(墓下)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지방도(地方道) 봉명산노변(鳳鳴山路邊)에 비각(碑閣)과 함께 서 있다.

신계영(辛啓榮) (1577~1669)



신계영의 신도비 (대솔면 송석리)

조선 중기 때의 문신으로 자는 영길(英吉), 호는 선석(仙石), 본관은 영산(靈山)이다. 서울 낙산 아래서 출생하였으며 호조좌랑 종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남양 홍씨이다.

1601년(선조 34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27세 때인 1603년(선조 36년) 예산군 신암면 오산리 선영 아래로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몇 년 뒤 부모상을 당하였으며 광해군의 난정에 혐오를 느껴 과거를 보지 않다가 1619년(광해군 11년) 알성문과에 급제하였다. 같은 해 검열을 거쳐 병조좌랑, 예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1624년(인조 2년) 통신사 정립의 종사관이 되어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와의 사립(嗣立)을 축하하고 이듬해 귀국하였다. 이때 임진왜란때 포로가 되어 잡혀간 조선포로 146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당시에 일본에서 겪은 감회를 읊은 기행시가 그의 시문집인 『선석유고(仙石遺稿)』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634년 동부승지가 되었고 1637년에는 병자호란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귀환시키는 속환사(贖還使)가 되어 심양에 다녀왔는데 이때 속환인 600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 뒤 나주목사, 강화유수 등을 거쳐 전주부윤을 역임하였다. 1639년에는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맞으러 부빈객(副賓客)으로 심양에 갔었고, 다시 1652년(효종 3년)에 사은사(謝恩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55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한가하게 자연을 벗삼으며 보냈다. 1655년(현종 6년) 지중추부사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고, 1667년에는 판중추부사에 특제되었다.

시호는 정헌(靖憲)이다. 저서로는 시문집인 『선석유고(仙石遺稿)』가 있으며 가사작품(歌辭作品) 『월선헌 십육경가(月仙軒十六景歌)』를 남겼다. 『월선헌 십육경가』 가사로 1655년(효종 6년) 작자가 치사(致仕)한 후 예산에 들어와 살면서 그곳의 풍경과 유유자적한 자기의 생활을 내용으로 하여 읊었다. 『선석유고』에 실려 전하며 총 246수로 되어 있다.

『선석유고(仙石遺稿)』 가사로 작자의 문집 선석유고에 수록되어있으며 따로 필사본으로 「선석가사」라 하여 전하는 것도 있다. 『월선헌 십육경가(月仙軒十六景歌)』 1편, 시조 작품으로 연군가(戀君歌) 3수, 탄로가(歎老歌) 3수,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10수 도합 16수의 총칭, 내용은 흔히 볼 수 있는 연군(戀君), 탄로(歎老), 전원한정(田園閑靜) 등으로 되어 있다. 표현도 순탄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의 묘소는 대솔면 송석리(숯골)에 있으며 신도비는 대솔에서 온양가는 길가 산 하쪽에 세워져 있다.

박안행(朴安行) (1578~1656)

덕산현 장촌면 석곡리(현 응봉면 송석리)에서 살았다. 자는 성지(性之)이고 석곡(石谷)은 그의 호이다.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인인 제주목사 박성석(朴星錫, 1650~1709)의 증조부이다.

형조참판을 지낸 광영(光榮)이 고조이고 증조 조(藻)는 별재(別提)요, 밀성박씨 큰 세가를 이루는 낙촌공파의 파조 낙촌 박충원(朴忠元)이 조부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공의 나이 15세에 왜란을 만나 가정이 파산되고 다만 형님 한 분이 계셨으나 장질부사에 걸렸다.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학문에 힘쓰며 자립의지를 세웠다. 1612년 광해군 임자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이인 창락도(利仁 昌樂道)역 찰방을 했고 상의원직장(尙衣院直長)으로 옮겼다가 다시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에 승진되었다.

이때 적신 이이첨(李爾瞻)의 공정치 못한 모략이 있자 곧바로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시 1624년(갑자년)에 사헌부 감찰에 있다가 익위사 위솔(翊衛司衛率)을 거쳐 용담현감(龍潭縣監)으로 나가서 고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관대하게 하고 위민정치를 펴니 아전과 백성들이 편안했다 한다.

그 뒤에 당진현감(唐津縣監)이 되어 도적을 많이 잡아 백성의 피해를 덜어줬다. 의금부도사로 있을 때 병자호란(1636년)을 당하자 임금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갔다가 포로가 해제되자 곧 벼슬을 버리고 고향 응봉으로 돌아와서 벼슬을 주어도 부임하지 아니했다.

은일(隱逸)로 청명(淸名)을 날리며 지내다 다시 벼슬부름이 있어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과 통례원봉례(通禮院奉禮)를 역임했고 최후에 정선군수(旌善郡守)를 했다.

안행은 광해군 때 벼슬하면서 고관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소신과 원칙을 지켜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세도(世道)가 밝을 때도 하위직에 머물다 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 석곡리에 묻혀 시속을 바로잡고 사림을 보양(保養)하는 일을 했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할 때 모든 관원이 조정에 모여 폐비를 주장할 때 안행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외직을 청하였으나 광해 임금은 한 달이 지나도록 보류하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은자(銀子:돈)를 바치도록 하자 “어찌 스스로 더럽히려고 하느냐”며 크게 탄식하고 마침내 외직을 역임한 사실을 볼 때 안행의 재주와 지조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우암 송시열이 약관(20세)의 나이 때 역여(여관)에서 안행을 뵈자 우암에게 며칠을 다정하게 지내주며 “가르칠 만한 인물이다”며 도덕적 칭찬을 해주었다고 사후 안행의 묘갈명에 우

암이 기록했다.

종부시정(宗簿侍正, 정3품 당하관)을 지낸 3남 박승건(朴承健, 1609~1667)이 우암과 도의로 사귀던 가까운 벗이었고 승건의 넷째 따님인 밀성 박씨(1644~1681)를 우암의 장손인 송은석(宋殷錫, 1645~1692)에게 출가시켜 사돈관계를 맺었다.

안행은 손녀딸이 광해군의 세자빈(世子嬪)으로서 그 위세를 펼쳤던 박승종과는 종숙부(從叔父:오촌)가 된다. 허나 박승종과는 뜻이 같지 않아 매번 대립적 관계였다. 박승종은 마침내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그 일족이 오랫동안 요직에 앉은 사실을 자책하여 자흥(子興)과 같이 한낮에 목매어 자결했다.

안행은 부친을 병화에 잃어 버림을 크게 슬퍼하고 일평생 간략한 생활을 했으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고 자손들을 경계하여 장사를 후하게 치르지 말도록 했다.

승정병신(崇禎丙申, 1656) 10월 10일 향년 79세로 별세했다. 처음 대흥에 장사 지냈다가 뒤에 예산 왕자지동(王子池洞)으로 옮겼다.

손자 신주(新胄)의 추은(推恩)으로 통정대부병조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에 증직되었으며, 묘소는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龍宮里)에 있다.

조극선(趙克善) (1595~1658)



조극선의 효자문 (봉산면 시동리)



신도비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유제(有諸), 호는 야곡(冶谷). 본관은 한양이고 아버지는 경진(景璉)이며 박지계(朴知誠), 조익(趙翼)의 문인이다.

봉산면 효교리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가 극진하여 당시에 후대에도 효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처음에는 잠와 이명준 선생한테 주자서를 얻어 보고서 그것을 크게 즐겨하여 스스로 초하고 외우며 평소 공부하던 과문을 태우고서 말하기를 사람은 천지의 가운데에서 서 있으니 곧 장차 가장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였다. 겸퇴해서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하류에 마음을 달게 먹고 스스로 처했으니 진실로 죽히 부끄럽다고 하였다.

1623년(인조 1년)에 추천을 받아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고 호조정랑, 면천군수(沔川郡守) 등을 역임하였으나 사직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야곡은 벼슬을 그만두고 있었으나 그 소식을 듣고 필마로 향하였으나 길이 막혀 다시 돌아왔다. 1637년(인조 15년)에 순창군수, 형조정랑, 사어(司禦)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648년(인조 26년)에 온양군수가 되었다.

효종이 즉위하고 포저가 정승이 되자 공을 천거하여 경학이 마땅히 대학의 스승이 될 만하다 하여 곧 성균관 사업을 배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다시 강화부 경력과 순창, 익산 군수와 공조정랑을 제수함에 부임하기도 하고 사임하기도 하였다. 다시 사헌부 지평과 장령을 지냈으며 사직하였으나 다시 부임을 명하여 장령에 임하였다. 1658년 율하에서 급성 중풍에 걸려 집에 돌아와 이틀 만에 졸하였다. 향년 46세였다. 장사용품이 관급되었다.

그의 묘소는 처음에 덕산면 대성산에 무덤하였다가 추후에 부덕산통산(봉산면 시동리)에 이장하였고 배위는 강화최씨이며 숙부인으로 증직되었다.

사후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시호는 문목공(文穆公)이다. 도고 도산서원(道山書院)과 덕산 회암서원에 배향되었다.

조극선은 효자로서 귀감이 된 인물로 12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눈이 올 때마다 묘역을 끌고 장마시에는 비를 무릅 쓰고 두루 살펴 타의 귀감이 되었다. 아버지 적순공을 섬김에는 정성을 다하여 벼슬직에 있을 때에도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였고 정월과 동지에는 향불을 피워놓고 시골 아버지를 향하여 재배하였다. 아버지가 풍질에 걸려 5년여 손수 빨래도 하였으며 갑자기 병환이 급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소생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여 항상 공급하였으나 죽자 다시는 회를 먹지 아니하였다.

그의 서모를 섬김에도 사랑과 공경으로 극진히 하고 자매부를 만남에도 동기간과 다름없이 하고 매씨가 과부가 되고 가난해지자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출가시켰으며 종족과 향리에서 미천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애경사에도 극진하였다. 그가 건너 다녔던 다리를 효교라 해서 효교리가 되었고 그의 효행에 대한 나라에서 하사한 효자정문은 봉산면 시동리에 있다.

이목(李穆) (1599~1624)



이목의 묘 (경기도 양주군 청송면)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명원(明遠),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의배(義培)의 아들이다. 삼교 이리 출생이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 행적은 간단하다.

인조반정은 서인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당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능양군인 인조를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1618년에 발생한 인목대비 유폐사건은 대북파에게 눌러지내던 서인일파에게 반동투쟁에 좋은 구실을 주었다. 서인의 이귀, 김유, 김자점, 이괄 등은 마침내 거사하였다. 이

때 장단으로부터 군사를 몰고 참가한 경기감사 겸 부원수가 된 “이서(李曙)”는 이목(李穆)의 외숙(外叔)이다.

이괄(李适)은 인조반정 때 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정이 끝난 후 겨우 2등에 책봉되어 한성부윤에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아들 또한 반정에 참여하였지만 논공에서 제외되고, 아우 수(遂)도 문관으로 등용되지 못하는 점 등에 많은 불만을 가졌다. 그러던 중 관서지방에서 변란이 있을 징조가 있다 하여 이괄이 다시금 도원수 장만의 휘하에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좌천되어 영변에 머무르게 되자 그의 불만은 더욱 커져 반란을 꾀하게 되었는데 밀고되어 인조가 그 부자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여 드디어 그의 아들이 체포당하게 되자 부하들과 함께 1624년(인조 2년) 반란을 일으켰다. 1만여의 병력으로 정부를 공격하자 평안도, 황해도 일대는 반군 수중에 들어갔다. 토벌군과 장만의 추격군이 막았으나 반군은 승리하여 개성을 통과하여 서울을 점령하였다.

이목은 1624년 초시에 장원하고 복시(覆試)에 행차 중 이괄의 난으로 인조왕은 파천하였다. 어림군(御林軍)으로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 경기감사 완풍군 이서(完豐君 李曙)를 부원사(副元帥)로 하여 대적케 하니 이목(李穆)은 외숙(外叔)의 청(請)에 따라 막하 종사관(幕下 從事官)으로 들어가 송도(松都)에서부터 방어에 참여 하다가 서울이 함락되어 장령(將令)에 따라 이괄의 진중을 정탐(偵探)코저 서울 소덕문으로 잠입 정탐(偵探) 중 발각되어 이괄(李适)에게 끌려가 회유해도 거절하고 철근을 맞아 불굴이사(不屈以死)하니 나이 25세 었다.

흥분된 정부군 쪽 “장만” 추격군한테 이괄의 반군이 질마재 고개에서 참패하고 이괄마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자 이괄의 난은 17일 만에 끝났다.

왕은 이를 차탄(嗟歎)하고 애도하며 불굴이사(不屈以死)한 기개(氣概)를 높이 찬양(讚揚)하여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추증(追贈)하고 한원군(韓原君)으로 봉(封)하고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묘는 경기도 양주군 청송면 대탄리(楊州郡 靑松面 大灘里)에 있다가 개발지역으로 수용되어 2011년 청명일(淸明日)에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산 31번지로 천묘(遷墓)하였다.

이만(李曼) (1605~1664)



이만의 신도비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지만(志曼), 본관은 전주이다.

양녕대군의 후손이고 형조참의 휴(休)의 아들이다.

1627년(인조 5년) 박사(博士)에 뽑히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형조낭청 겸 기사관을 거쳐 예조좌랑, 정언을 지내고 지평으로 있다가 대사간 정운을 옹호하다가 체직되었다.

1636년 부수찬을 거쳐 수찬으로 있을 때 적극적인 척화를 주장하다가 병자호란을 맞았다. 호란 후에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한때 관계를 떠나 있었다.

1639년 복직하여 헌납, 교리, 수찬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다시 향리로 돌아간다.

1644년 교리가 되고 정랑을 거쳐 승지가 되었으며 이어 황해도 관찰사로 부임, 이듬해에 완원군(完原君)에 봉해졌다. 1647년 도승지가 되고 이어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정명수의 증용으로 교체되어 대사간이 되었다가, 1649년에 경상도 관찰사로 나가 적폐(積弊)를 시정하고 성지(城池)의 수축과 병졸의 훈련 등으로 국방에 힘썼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병조참판이 되고 이듬해인 1650년(효종 1년)에는 대사헌을 거쳐 도승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경상감사로 있을 때 표한선(漂漢船)이 있어 조정에는 이를 청나라로 압송하면서 그 주문에 왜정가려(倭情可慮)라는 이유로 남방의 수성연졸(修城鍊卒)을 주장한 일이 있다. 즉 '왜국의 정세가 염려스러우니 성을 보수하고 병사를 훈련시키자는 말'인데 청나라는 이것이 병자호란의 규약 위배라며 사신을 보내어 추궁하니 당시 동래부사였던 조경과 영의정이었던 이경석 등이 책임을 졌는데, 그도 영변으로 귀양갔다 풀려났다.

이듬해에는 황해도 관찰사, 강화유수를 거쳐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고,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그가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시 완도의 국금지(國禁地)에 설장(設莊)하여 치부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현종이 즉위하자 공조참판으로 복직하였다가 1616년(현종 2년) 공충도관찰사로 나가 부모의 묘지를 개장하면서 민기를 철취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우의정 원두표(元斗杓)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1662년 호조참판에 임명되고, 이듬해 진하 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한성부윤이 되었으나, 일행가운데 금물도매자(禁物盜賣者)가 있다는 탄핵을 받아 정사 정유성(鄭維城)의 강력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아산의 시골에서 죽었다. 그는 지방관으로 오래 있는 동안 농사짓는 방법과 토질을 잘 가려내는 일 등에 일가견이 있었으나 너무도 인색하고 이재(理財)에 밝다는 이유로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였다 한다.

이억(李億) (1615-1637)



이억의 정려문 (봉산면 금치리)



중수기

공의 휘는 억이요 호는 신암이며 증병조참의는 남한산성의 구국전에서 순국한지 65년만에 나라에서 추서한 훈작이다.

공은 현감 휘 석립과 함평 정씨사이에서 1615년 음3월 11일 덕산현 외북면 금치리에서 출생하였다. 공의 본관은 경주로 시조는 신라 6촌장의 한 분인 알평공의 후예이시다. 공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외직에 계시기 때문에 향리인 금치리에서 조부의 슬하에서 자라면서 훌륭한 인재감으로 주위의 촉망을 받았다.

나이 6세에 조부께서 출타하시어 밤 늦게까지 돌아오시지 않으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다려 주위로부터 지극한 효심이라고 칭송을 받았으며 밤을 새면서 주야로 독서에 열중하고 틈틈이 무예를 연마하니 당시 영상 구인후와 공청도병사 이의배 장군께서 공을 격려했다는 것을 보아도 비록 20세의 약관인데도 공에게 거는 기대가 대단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국가 존망지추를 당하여 왕께서 남한산성으로 파천하고 그 산성이 오랑캐 군사 10만 여로 포위되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으니 후세 사가들이 이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한다.

이에 왕께서 간절한 격소를 전국 방방곡곡에 부치게 하니 공께서 이를 보시고 어찌 출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은 향리 친우와 가노 등 70여기를 이끌고 충청병사 이의배 장군 휘하에 들어가 장군의 비장으로 출정하여 독전하였다. 그러나 성안에는 일만 여 군병과 50일분 식량뿐이었는데 성은 오랑캐에게 포위된지 18일에 식량은 바닥이 났고 추위는 혹독하고 1만 여군병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찌 저 무뢰한 오랑캐의 위세를 감당할수 있는가 공은 허기진 병사를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고 이의배 장군과 함께 결사항전 하였으나 전세는 이

미 기울어 최후의 결전을 각오하고 옷을 벗은 후에 손가락을 단지하여 그 피로 옷에 혈서를 써서 따르는 노복에게 주면서 만일 네가 이 전쟁에서 살아 남는다면 이 옷을 집에 전해주라고 당부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활로 적을 사살하다가 화살이 떨어짐에 창으로 적을 찌르며 독전하다가 장렬히 산화하시었으니 그날이 바로 공이 23세 되시는 해의 정월초 3일이였다. 그 거룩한 위국단충이 어찌 임진왜란에 명장 김덕령 장군이나 세조조의 명장 남이 장군만 못하다고 할 수 있는가?

더욱이 공의 애마가 울부짖으면서 천리길을 달려와 혈의의 비보를 전하고 하루 밤 하루 낮을 먹지도 않고 울다가 죽었으니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유의 일이다.

이를 지켜 본 부인 죽산 박씨는 혈의를 땅에 묻어 공의 초혼단을 만들고 그 아래에 공의 애마를 후히 장사 지내주고 그곳에 여막을 짓고 6년간 시묘를 살다가 공의 기일을 맞이하여 제를 지내려고 하산하여 목욕을 하고 일어나시다가 혼절하여 운명하였기에 공의 초혼단에 합편하였다.

공이 순국한지 65년후인 숙종28년에 덕산현감 이근행과 유림100여명이 나라에 포창을 발의하니 조정에서 이를 실시한 연후에 증병조참의를 추서하고 충신 및 열녀 정려문을 하사 덕산현감에게 정려각 건립을 명하였다. 그리고 공의 유물을 보관하도록 석함을 어명으로 하사하였다.

그로부터 157년후인 1858년[철종9년]에 중수하였고 1986년 11월 19일 공의 내외묘와 애마의 묘 석함 정려문을 함께 묶어 충청남도문화재 제282호로 지정하였다.

공의 상세한 행적은 증직의 서훈을 받은 후에 당시 영의정 조두순이 찬한 행장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이곳은 공이 어려서부터 지극한 효성을 다한 곳이니 효지단이요, 국가의 위난시를 맞이하여 목숨 받쳐 싸우니 충지단이요, 비록 말이라도, 주인을 위하여 죽었으니 의지단이요, 부인 죽산박씨는 6년 시묘후 남편 따라 죽으니 열지단이라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 후세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여발(李汝發) (1621~1683)



이여발의 묘비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군실(君實),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정사공신(靖社功臣) 한천부원군(韓川府院君) 의배의 손자이다. 조부가 병자호란으로 전사하자 16세에 삼촌 간(稔)과 당숙 육(陸)과 함께 광주쌍령에 가서 시신(屍身)을 수습하였다.

현 봉산면 사석리(德山縣 石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의 집안은 이의배가 인조반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사공신으로 녹훈되었고, 병자호란에는 무신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으며 여발의 아버지 이목 또한 이괄의 난에 참여하였다가 죽은 충을 중시한 집안이었다. 의배·이

목·여발 3대에 걸쳐 무과에 급제하여 국가에 봉사한 가문이다.

1651년(효종) 무과에 급제 한 뒤 비변사낭관, 도총부도사 경력을 거쳐 1653년 숙천부사가 되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선정을 베풀었다. 이어 만포첨사, 영흥부사, 장단방어사, 충청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회령부사에 제수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에 오르고 한흥군(韓興君)에 봉해졌다.

회령은 북방의 거진(巨鎭)으로서 야인들과 가까이 있어 서로 거래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들이 왕래에 하등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해가 많았다. 이때 그는 부임하여 출입인들을 320명 이내로 하고 체류일수를 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으므로 많은 피해를 덜게 되었다.

1660년(현종 1년) 삼도통제사에 제수되고 이어 함경도 병마절도사, 훈련도정, 포도대장, 병조 참판 등을 지내고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어 나갔는데 성을 수축하고 병기를 정비하여 군사들에게 사예(射藝)를 훈련시켜 북방수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 뒤 훈련대장 이완이 면직되자 상국(相國) 정태화(鄭太和)의 천거로 그 후임이 되었으며 이어 어영대장, 한성부 좌윤, 우윤, 비변사제조, 포도대장, 총융사 수원부사 등을 지내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과묵하고 웃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으며, 사졸들을 따듯이 위무하고 제교(諸校)를 예의로 대하였으므로 모두 그 덕을 우러러 그에게 충실하였다.

정태화, 여성재 등과 가까이 지냈다. 시호는 정익(貞翼)이다. (領議政 藥泉 南九萬撰諡狀)

1683년(숙종 9년) 63세에 죽었으며 그의 묘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2번지에 있고, 분묘 앞 약 10m 아래에는 신도비가 있다. 2002년 2월 4일 인천광역시기념물 제50호로 지

정되었으며 한산 이씨 정익공과 종중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정익공(貞翼公) 4세(四歲) 때 일화소개’

부(父) 한원군(韓原君) 이목(李穆)이 전사한 것을 속여 왔는데 1624년(신유년) 공(公)이 4세되던 해 또래의 아이가 목(穆)의 죽음을 말해 공(公)이 곡(哭)을 하다가 땅에 쓰러졌다.

한천부원군(韓川府院君) 이의배(李義培) 부인(婦人)이신 할머니가 달래기 위해서 데리고 친정집인 완풍군(完豐君) 이서(李曙)택으로 갔는데 완풍군(完豐君)의 부인(婦人)이 고기를 주면서 아이들과 춤을 추게 했다.

공은 울면서 할머니한테 돌아가기를 청하고 할머니 귀에 대고 말하기를 「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상인(喪人)입니다. 고기를 주고 춤을 추라고 하니 가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듣는 사람들을 경탄(驚歎)케 하여 지금까지도 효예(孝禮)의 귀감으로 구전하고 있다.

조사석(趙師錫) (1632~1673)



충정 조사석의 묘길비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공거(公擧), 호는 만회(晩悔) 또는 만휴(晩休), 향산(香山). 나계(蘿溪)이고, 본관은 양주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계원이고 어머니는 영의정 신희의 딸이며 태구의 아버지이다. 1660년(현종 1년) 진사가 되고, 1662년 중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의 관직과 주서 등을 거쳤다.

1666년 사관(史官)인 검열이 되었고, 이어 봉교, 검설서로 승진하였다. 사관으로 있을 때인 1667년 왕이 지난해에 정태화(鄭太和), 홍명하(洪命下), 허적(許積)을 탄핵한 이숙(李肅), 박증휘(朴增輝) 등 7명의 간관을 유배 보내면서 사관들에게 이를 사초에 기록하지 말 것을 명하였으나 왕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거절하고 이를 사초에 기록하였다. 이 길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 당하였으나, 파직의 왕명이 곧 철회됨으로써 복직되었다.

그 뒤 전직, 정언, 사서, 지평을 거쳐 1672년 말에 접위관(接慰官)이 되어 동래에서 왜인을 접대하였다. 그 후 부교리, 헌납, 이조정랑을 거쳐 통정대부로 승진하였다. 1675년(숙종 1년)에 수원부사를 거쳐 이후 황해도관찰사, 예조참의, 승지, 강원도관찰사, 충청도수사, 경기도관찰사, 이조참판 겸 수어사, 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고 1680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어 대사헌, 호조판서, 강화유수, 병조판서, 판의금부사, 우참관, 좌참관, 이조판서 등을 거쳐 1687년에 우의정이 되었다. 그 사이 1683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동지사란 대개 동지를 전후하여 가기 때문에 동지사라 했으며 정사(正使)는 3공(三公) 또는 6조의 판서가 담당하고 부사(副使)와 서장관(書壯官)이 수행하였는데 공물(貢物)로는 한국의 특산물인 인삼, 모피, 수달피, 화문석, 종이, 모시, 명주, 금 등이었는데 세조 때부터 금을 거절하였고 1864년까지 계속되었다.

1688년 좌의정이 되었는데, 이때 인조의 손자인 동평군 향(東平君 杭)의 횡포를 논하다가 처벌된 박세채(朴世采), 남구만(南九萬) 등을 변호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다음해 판돈령부사가 되었고, 이어 영돈령부사가 되었으나 1691년 전해에 있었던 왕세자책봉 하례에 참석하지 않은 죄로 고성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3년 뒤인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복관되었다. 이 사건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소론이 집권하게 되어 노소의 쟁론이 시작되었던 사건이다. 시호는 충정이고 묘는 대흥면 갈신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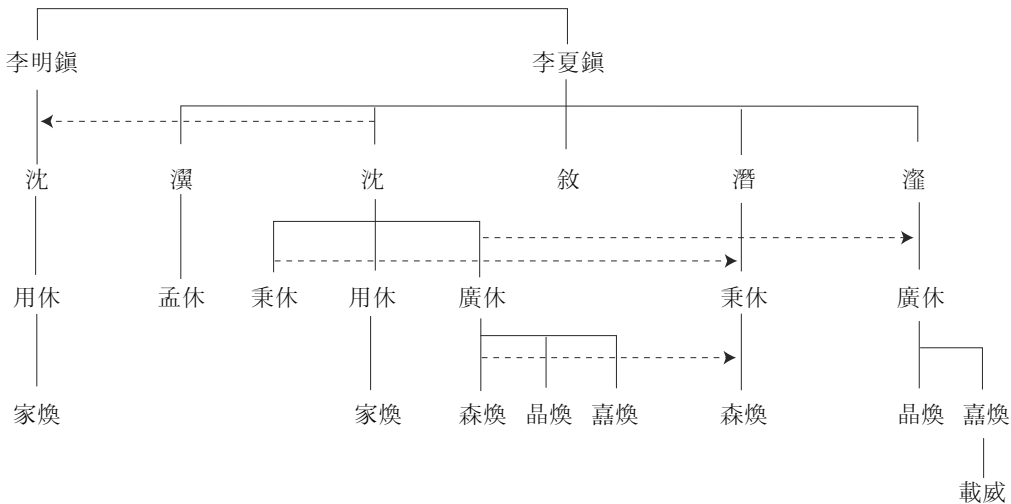
다음해 판돈령부사가 되었고, 이어 영돈령부사가 되었으나 1691년 전해에 있었던 왕세자책봉 하례에 참석하지 않은 죄로 고성에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3년 뒤인 1694년(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복관되었다. 이 사건으로 남인이 축출되고 소론이 집권하게 되어 노소의 쟁론이 시작되었던 사건이다. 시호는 충정이고 묘는 대흥면 갈신리에 있다.

이명진(李明鎭) (1641~1696)

1694년부터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당시지명;장천리)에 여주 이씨 일문이 정착하였는데 경기도 안산에서 처음 이주한 낙향조가 이명진이다.

이명진이 후손이 없어서 그의 형 이하진의 넷째 아들 침(沈)을 양자로 맞았고 그의 후손이 예산 땅에 세거하면서 이하진의 다섯째 아들 익(瀾)의 실학(實學)을 가학(家學)으로 이어받아 각 부문별로 전념 연구하였으며 이들의 수고본(手稿本), 전적(典籍)등이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음이 밝혀짐으로써 예산지방에 실학이란 정신적 유산이 있었음을 발굴해 내게 되었다.

예산실학의 대종을 이루었던 여주 이씨 일문의 세계도(世系圖)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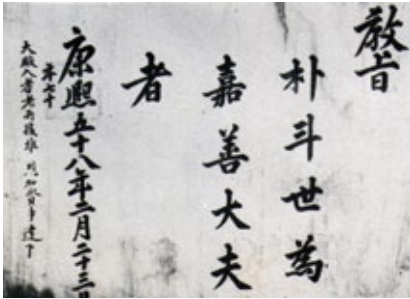


학계에서는 실학을 3개 유파로 대별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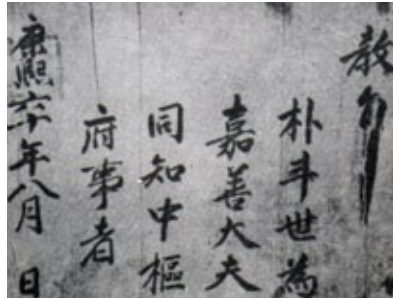
- ① 이익(李瀾)을 대종으로 하는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 즉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한 학파(18세기 전반기)
- ② 박지원(朴趾源)을 중심으로 한 이용후생파(利用厚生派), 즉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구, 일반 기술면의 혁신을 지표로 한 학파(18세기 후반기)
- ③ 김정희(金正喜)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게 된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 즉 경학(經學) 및 금석전고(金石典攷)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학파(19세기 전반기) 등이다.

실학의 각 학맥은 혈연, 사제, 교우관계를 통해서 학문경향을 같이 해온 3개유파를 형성 했는데 18세기 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약 1세기 반동안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3개 유파중에서 2기의 이용후생파는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으며 1기의 경세치용파와 3기의 실사구시파는 모두 지방에서 자리잡았으며, 특히 예산지방이 그 실례라 하겠다.

박두세(朴斗世) (1650~1733)



박두세의 기로교지



교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아(士俄)이고 호는 동암(東岩)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현감 을의 아들로 대흥현 관음리(광시면 관음리) 출신이다.

어려서 신앙면 서계양리 용암사(속칭 벼락절)에서 공부하였다 하며 그의 호도 거기에서 따 동암(東岩)이라 하였다.

1677년(숙종 3년) 증광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1682년(숙종 8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직을 제수 받았으며 1686년 의금부도사로 권대운(權大運)을 압송할 때 편리를 봐 주었다 하여 파직되었다. 그 뒤 진주목사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는 남인에 속하였으며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였다. 그러나 문장에 능하였으며 운학(韻學)에도 매우 밝았다. 작품으로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가 있는데 그 내용은 1678년 과거에 실패한 선비가 귀향하던 길에 요로원 주막에서 양반인체 하면서 유식을 자랑하는 인물을 상대로 주고받는 이야기다.

여기서 당시 사회의 실정을 폭로하고,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세태를 풍자하였다. 운학에 관한 저술로 『삼운보유(三韻補遺)』와 그것을 증보한 『증보삼운통고(增補三韻通考)』가 있다. 그의 묘는 대흥면 갈신리에 있다.

[요로원 야화기]

수필집이며 혁신적인 비판정신으로 당시의 국가제도·사회정책을 문답형식으로 날카롭게 풍자한 것이며 당시의 다른 작품과 달리 그 때의 말씨나 사고방식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 사본과 한문 사본이 각각 전한다. 작품의 ‘나’는 충청도 선비로 1678년 과거에 낙방하고 귀향하던 도중 소사를 지나 요로원에 이르러 주막에 들게 된다. 우연히 동숙한 서울 양반이 고단하고 초라한 행색이 시골 선비인 그를 멸시한다. 그는 짐짓 무식한 체

하며 서울 양반을 기롱(譏弄)하고 경향풍속을 풍자한다. 서울 양반의 제의로 육담풍월을 읊게 되자 서울 양반은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교만하였던 언행을 부끄러워한다. 둘은 4색 편론, 학문, 수양 등의 대화로 밤을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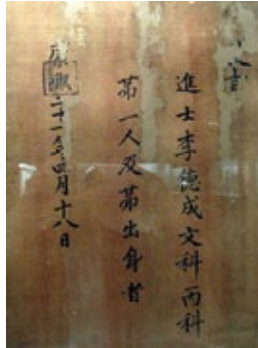
서로 주고받은 여러 편의 시를 통하여 낙방한 선비로서 당대의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세태를 풍자한다. 이윽고 동창이 밝아오자 서로는 성명도 모른 채 헤어진다.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하여 양반층의 횡포와 사회의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향토양반들의 실태와 그들의 교만성을 서울 양반에게 빗대어 지적한다거나 양반의 허세에 초라한 향인의 모습으로 도전하는 풍자성은 이 작품의 실기형태이면서도 문학적 기법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태묘사 부분은 사회사 연구 측면에서 간접적 자료가 될 수 있다. 1949년 을유문화사에서 이병기(李秉岐)가 가람본을 주해하여 출판하였다.

이덕성(李德成) (1655~1704)



반곡 이덕성 영정 (부산시립박물관)



문과급제 교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 자(字)는 득보(得甫)이고 호는 반곡(盤谷), 지비자(知非子)라 하였다. 정종의 아들인 덕천군 후생(德泉君厚生)의 8대손이고 아버지는 후영(後英)이고 어머니는 창녕조씨로 호조참판 문수(文秀)의 딸이다.

1655년(효종 6년) 5월 7일에 출생하였으며 8세때 조실부모하여 숙부 서곡공(西谷公)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1677년(숙종 3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82년(숙종 8년) 춘당대정시(春唐臺庭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곧 부정지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어 《현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의정부사록, 의금부도사, 성균관전적이 되고 공조좌랑, 사헌부지평 등을 거쳤다.

1685년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는데 이때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다가 순안현감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곧 병조좌랑을 거쳐 다시 정언, 지평이 되어 국정전반에 걸쳐 시폐(時弊)를 개혁하기 위한 적극적인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뒤 병조좌랑, 사복시정을 거쳐 동래부사가 되었는데 이때 내상(來商)들의 잠매행위(潛賣行爲)와 왜인들의 불법을 징치하는데 크게 힘썼다.

기사환국 때에 일시 사직하여 향리에 돌아갔다가 1690년 해주목사 1694년 병조참지 1695년 의주부윤이 되었다. 이어 1696년 장혜원 판결사, 병조참의를 거쳐 황해도 관찰사가 되고 동부승지 예조참의가 되었다. 1699년(숙종 25년)에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가서 사서(史書)를 구입하다가 금령에 의해 파직되었다.

다시 복직되어 형조참의, 무주부사, 1701년(숙종 27년) 강원감사, 형조참의를 거쳐 1704년(숙종 30년)에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그해 5월 9일 공주감영 선화당에서 졸하니 향년 50세였다. 동년 8월 26일에 과천 작천면(鵲川面)에 안장하였다.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고 후에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팔봉산에 이장되어 예산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묘지명은 영의정 서종태가 지(誌)하고 묘표(墓表)는 대제학 윤순이 기(記)하고 서(書)하였으며 묘갈은 예문관제학 이덕수가 찬(撰)하고 강원도 관찰사 진순이 근서(謹書)하였으며 태사간 진수가 액전(額篆)하였다.

반곡(盤谷)은 덕행이 바르고 학문이 출중하였다. 또한 성품이 강직하고 바른 말을 서슴없이 하여 벼슬이 올라가지 못하였다. 1694년 정월 16일에 병조참지로서 왕명에 의하여 어제소학서(御製小學序)를 썼다. 필적으로는 자의대비옥책초본(慈懿大妃玉冊草本), 문사발우(文史拔優), 반곡공수목첩 등이 전하고 비명으로는 광주 헌릉신도비를 비롯하여 예조참의 고한영비, 구례 최승지묘표, 광주목사 이적묘갈, 대전 송국전묘표 등이 남아 있으며 저서로는 반곡집이 전하고 있다.

김진규(金鎭圭) (1658~1716)



김진규가 덕산 현지 석문담과 와룡담에 새긴 글씨들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달보(達甫), 호는 죽천(竹泉),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영돈령부사 만기(萬基)의 아들이며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이고 송시열의 문인이다.

1682년(숙종 8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6년(숙종 12년)에 정시문과에 장원하여 이조좌랑을 거쳐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면서 거제도도 귀양 갔다가 1694년(숙종 21년)에 갑술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재집권함에 따라 지평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에 소론인 남구만으로부터 척신(戚臣)으로서 궁중출입이 잦고 월권행위가 많다는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 1699년에는 스승을 배반하였다는 명목으로 윤증을 공박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1701년 대사성을 거쳐 1706년(숙종 36년)에 병조참판에 이르렀다가 소론에 의하여 유배당하여 2년 뒤 풀려났다. 1710년 대제학에 오르고 1713년 강화유수에 임명되었으며 그 밖에도 홍문관의 여러 관직과 사인, 빈객, 이조참판, 병조참판, 공조판서, 좌참찬 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문장에 뛰어나 반교문(頒敎文), 교서, 서계(書啓)를 많이 작성하였으며, 전서, 예서 및 산수화, 인물화에 능하여 신사임당(申師任堂)의 그림이나 송시열의 글씨에 대한 해설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의 글씨로는 “강화충렬사비(江華忠烈祠碑)”와 “대헌심의겸비(大憲沈義謙碑)”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표적인 노론정책으로서 스승인 송시열의 처지를 충실히 지켰다. 거제의 반곡서원(盤谷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영조가 1776년 치제(致祭)하였으며 1773년 그 문집간행에 재물을 하사하고 서문을 친제(親製)하였다. 문집으로는 『죽천집』편서로 여문집성(麗文集成)이 전한다.

김진규가 예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덕산현으로 귀양을 오면서 부터이다. 덕산현지에 와룡담, 석문담에 김진규가 글자를 새겨놓고 세이암이란 글자도 김진규가 모사체로 써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이암이란 고운 최치원의 글씨는 김진규의 모사체인 것이다. 김진규는 덕산

회암서원 창립에도 관여한다. 덕산 향교지에 “김관서(김진규)가 이곳의 지명과 주부자(朱夫子)가 사시던 지명이 같음을 보고 착안하여 호서유림들과 상의하여 도신(道臣)에게 고유(告諭)하고 창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태구(趙泰耇) (1660~1723)



조태구의 글씨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덕수(德受), 호는 소헌(素軒), 하곡(霞谷), 본관은 양주(楊州)이고 우의정 사석(師錫)의 아들이다. 조부는 병조판서 계원이고 태채, 태억은 종형이다.

1683년(숙종 9년)에 생원이 되고 1686년 별시문과에 종제 태채와 함께 병과로 급제, 설서, 문학, 승지를 거쳐 1702년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705년 형조

참의, 대사성을 지냈다. 그 뒤 우참찬에 오르고, 1720년(경종 1년), 복상(卜相) 때에 우의정에 올랐다. 당시 영의정은 김창집, 좌의정은 이건명이었는데 신임사화로 노론 4대신을 사사(死賜)하고 영의정에 올랐다.

신임사화란 1721년 1722년 신축, 임인년에 일어난 사화로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경종은 성격이 온순하고 게다가 무자다병(無子多病)하므로 하루속히 왕세자(王世子)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시의 노론 4대신이었던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 등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이 관철되어 경종 원년 8월(1721) 왕제(王弟) 연잉균(후에 영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자 소론과의 우의정 조태구, 사간 유봉휘(柳鳳輝) 등은 시기상조론을 들고 그 부당함을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김창집의 건의에 의하여 왕세자가 정무를 대리하게 됨에 따라 최석항, 조태억, 박태항, 이광좌, 한배하, 이조 등과 함께 이를 반대하여 대리청정의 환수를 청하여 실현시켰다. 이어 같은 해 12월 전승지인 김일경과 이진유, 윤성시, 박필몽, 서종하, 정해, 이명의 등이 상소하여 건저(建儲)를 주장하던 노론 4대신을 4흉(兇)으로 몰아 탄핵한 뒤 목호룡으로 하여금 4대신을 역모로 무고케 하여 결국 4대신은 사사(死賜)되고 노론 일파는 몰락하게 되었다. 이 화옥으로 소론이 집권하게 되고 목호룡은 동성군(東城君)의 작위까지 받았으며 조태구는 영의정에 올라 최석항, 김일경 등과 극론을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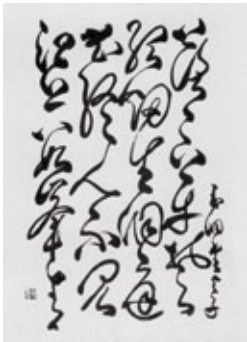
이후 노론은 과격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정책결정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는 윤순(尹淳)과 함께 온건파의 주장이 되었다. 성격은 온아하고 위풍이 있었으며,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여 여러번 외직에 나갔어도 재물이 쌓이지 않았다. 다만, 강인한 성격이 못되어 과단성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공무에 남의 부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였다고 한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하자 신임사화의 원흉으로 탄핵을 받고 관직이 추탈당하였다. 글씨를 잘

썼고 산법(算法)에 관계되는 책을 펴냈는데 양전(量田)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편서로는 『주서관견(籌書管見)』이 있고 글씨로는 『이충무공고하도유허비』 『왕자연령군명비』 『완산백조구석비』 『길성군허유례비』 등이 있다.

이서(李敘) (1662~1723)



옥동 이서의 글

인수체(仁壽體)의 김구(金絀, 1488~1534년) 이후에 조선서예사상 다시 한 시기를 갖는 서예가를 꼽는다면 동국진체(東國眞體)의 창시자인 이서(李敘, 호는 옥동;玉洞)라고 할수 있다.

옥동(玉洞)은 그의 계씨(季氏)인 성호 이익에게 예산지방 실학(實學)의 학통을 이어주는 대학자였다.

그런데 이 옥동(玉洞)이 예산지방과 인연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의 중제(仲弟) 침(沈)이 계부(季父) 명진(明鎭)에게 출계(出系)하여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에 향저(鄉邸)를 가짐으로부터이다.

침(沈)에게는 재예겸비한 자제(子弟)와 제손(諸孫)이 있어서 옥동(玉洞)의 서법(書法)을 전수 받았던 바 이들이 이곳에 살면서 가풍(家風)으로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전수받아 전파함으로써 예산지역은 서향(書鄉)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이서(李敘)의 향저(鄉邸)는 포천(抱川) 청량포(淸涼浦)인데 시광(是鑛)이 침(沈)의 혈손(血孫)으로 고덕에서 나서 옥동의 후사로 출계하여 옥동의 종맥(宗脈)을 고덕으로 옮겨와 옥동의 유품이 아울러 예산으로 따라오니 이로써 옥동이 예산지방과 인연을 가지게 된다.

17세기 전반에 인조반정으로 율곡계의 서인과 퇴계계의 남인이 주축을 이룬 순성리학과와 집권이 이루어짐으로부터 진정한 조선 성리학적 이상정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중국대륙에서는 한족(漢族)인 명(明)이 여진족 청(淸)에 멸망하여 정통이 단절되는 듯하자 조선이 곧 중화라는 자부과 긍지에 충만해 있던 당시의 사대부들은 중화성시문물(中華盛時文物)의 회복을 표방하여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조선 독자적인 고유색을 고양(高揚)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사조를 바탕으로 하여 글씨에서는 옥동이 나와 동국진체를 이룩하였다.

옥동의 서예는 고도의 성리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이루어져서 그의 뒤를 잇는 사대부(士大夫)서예 대가들이 줄이어 나오게 되니 윤두서(尹斗緒, 1668~?), 윤순(尹淳, 1680~1741년), 이광사(李匡師, 1705~1777년)가 옥동의 학예(學藝)를 대대 상전(相傳)하여 문호(門號)를 크게 빛냈다.

권석(權碩) (1671~1729)

조선후기 때의 효자로 자는 덕이(德而)이고 품계는 통덕랑(通德郎)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1671년 1월 19일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였고 후에 장성하여서 더욱 더 타의 모범이 된 효자로 추앙된 인물이다.

그는 젊었을 때에는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려 하였지만 그 당시(19세 때)는 기사사화(己巳士禍)로 노소론(老少論), 예송분쟁으로 노론파의 사류(士類)들이 사사 혹은 유배되던 시기라 부친인 절도공에게 품언하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 입신하는 도가 있겠지만 지금은 과거에 응시할 때가 아닌 듯 하오니 원하옵건대 아버님께서 응하지 않게 하여주소서” 하였다.

부친이 동의하여 이후 심학공부(心學工夫)에만 전심하고 여가를 이용하여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성리학(性理學) 등 서책을 구하여 두문불출 서책만 탐독하고 그것으로 낙을 삼아 모든 근심 해소하며 명리를 추구하려는 욕심에서 탈피하였다. 그리고 신미, 임신(辛未, 壬申)년간 사화 때를 당하여 시대적 상황을 비관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모든 교유를 폐하고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던 중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끊으려 하자 어머니가 만류하여 미수에 그쳤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아버지 입에 흘려 넣었더니 잠시 깨어 유언을 하고 운명하였다.

그 후 어머니의 나이 85세 그 또한 60세에 가까운 나이에 잠시도 어머니 봉양을 소홀히 않았으며 외가집이 가난하여 제사조차 할 수 없자 제수 일체를 마련하여 주었고 제전도 마련하여 주었다. 어머니가 5개월 동안 병중에 누워 있을 때 모든 일을 손수 수발하였으며 상을 당하여는 아버지 때와 같이 상례를 다하고 묘막을 설치하고 아침 저녁으로 호곡하고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존배(存拜)했으며 죽만 먹으니 그로 인해 병이 되었다.

가사가 넉넉하여 자매에게도 재산을 분배하였고 고아가 된 여동생 가족을 성장할 때까지 보살피어 출가시켰다. 숙부를 섬기기도 부모같이 하였으며 일가 중에 빈궁한 자에게도 양식을 대주고 혼사에도 보살피어 주었다. 향리(鄉里)에 거처할 때는 충신을 위주로 가난한 자를 구휼하였다. 1729년(영조 7년) 1월 28일 죽었으며 묘는 응봉에 있다.

현상벽(玄尙壁) (1673~1731)



관봉 현상벽의 묘 (예산읍 관작리)

조선후기의 학자로 자는 언명(彦明), 호는 관봉(冠峯), 본관은 팔거(八莸, 현재 星州)로 아버지는 구령(九齡)이고 어머니는 신평(新平)이씨이다.

강문팔현의 한 사람인데 이는 숙종 때 학자인 권상하의 문하생들로 권상하는 일찍이 송시열의 문하에서 배워 그의 충애를 받았던 인물로 강문팔현의 학문기조는 다음과 같다.

그들의 분당기에 살면서도 정치현실 보다는 서경덕, 이황, 기대승, 이이, 성혼 등 선유(先儒)들로부터 제기된 조선시대 성리학적 기본문제에 대하여 성리학 자체의 학적체계나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를 새로이 검토하여 보다 철저히 규명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에 정립된 이황, 이이의 이론 중 이이,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학통을 계승하고 그의 문인 등에 의해 전개되는 호락논변(湖洛論辨)을 학파적 성격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의 동이논쟁(同異論爭)인 호락논변이 제자 이간(李柬)과 한원진 사이에 제기되자 “인성이 물성과 다른 것은 이(氣)의 국(局)이며 인리(人理)가 곧 물리(物理)인 것은 이(理)의 통(通)이다”라고 한 이대의 이통기국이론(理通氣局理論)을 들어 정통적 기호학파의 학설로 한원진의 상이론(相異論)이 주축을 이룬다.

인성물성의 상이론을 주장한 그 발상은 본성을 후천적인 것, 즉 기질의 다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여 동물성으로부터 분별, 보호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성의 문제를 물성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태도는 인성론이 자연물에까지 확대된 형이상학적 전개로서 이황, 이이 이래 조선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이 예학에 의하여 구체적 사회규범으로서 경직 되어가는 학문 풍토에서, 인성, 물성, 상이론의 제기는 예학적 학문 이론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관봉은 영조 때 유일로 천거되어 장릉참봉, 익위사세마에 제수하였으나 불취했다. 시재가 뛰어나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에 입각하여 기발이승일도설이라는 사문(斯文)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이간과 함께 낙론에 속하여 인(人)과 물(物)의 성(性)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한덕소에게 답한 별지는 그의 대표적인 성리설의 집약으로 『중용』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맹자』의 성선설을 인용하여 태극을 통한 오성(五性)의 본원을 밝힘으로써 이이의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계속 발전시켰다. 예론에도 정통하였고 저서로는 『관봉문답』 『관봉유집』이 있다.

그의 묘소는 예산읍 관작리에 있으며 그의 서재는 거무실 관모봉 중턱에 있었다 하나 그 자리를 확인할 길은 없다.

김흥경(金興慶) (1677~1750)



김흥경의 묘 (신암면 용궁리)



백송



신도비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유(子有), 숙기(叔起), 호는 급류정(急流亭)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두성의 아들이며 서산에서 태어났다. 김정희(金正喜)의 고조다. 1699년(순종 25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 주서, 정언, 부교리, 집의승지,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경종 때에는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있었는데 그때 경종은 우유부단하고 병이 잦아 국정 수행업무에 과단성이 없었다. 병약하고 후손이 없는 경종의 급서를 염려한 대신들은 하루속히 왕세자를 책봉할 것을 주상께 건의하여 윤허를 받고자 하였다. 그 주축은 노론 4대신들로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종추부사 이이명, 관중추부사 조태채 등이었는데 이 주장이 관철되어 왕제 연잉군(후일 영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그 후 김창집 등의 건의에 따라 업무를 맡겨 정무수행을 대리하게 되었다. 이에 소론은 승지 김일경으로 하여금 노론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목호룡으로 하여금 노론 4대신을 역모로 무고하여 4대신 이하 노론일파는 극형을 당하였다. 이화옥으로 소론이 집권하게 되자 목호룡은 동성군(東城君)의 작위까지 받았다. 이때 김흥경도 노론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724년 경종이 죽자 영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소론일파가 제거되면서 도승지가 되었고 이듬해 우참찬으로 동지사(동지전후 중국에 가는 사절)로 청국에 다녀왔다.

1727년(영조 3년) 영조는 신임사화를 일으킨 김일경, 목호룡을 처단하고 노론과 소론을 모두 등용하는 탕평책을 시도하기 위하여 노론세력의 일부도 제거하였다. 이에 김흥경도 쫓겨났다. 이 사건을 정미환국이라 한다. 이듬해 다시 우참찬으로 복직되었으나, 영조의 탕평책에 반대하다 다시 쫓겨났다. 소론일파의 피비린내 나는 신임사화를 겪었던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730년 좌참찬에 복직되고 이조판서를 거쳐 다시 영전하여 1732년(영조 8년)에 우의정에 오르고 1735년(영조 11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70세가 넘어 기로소에 들어가고, 관중추부사로 치사하여 봉조하가 되었다. 기로소란 태조때 경로,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으로 70세 이상이 되었거나 임급도 연로하면 들어가는 관청서열로는 으뜸이다. 시호는 정헌(靖獻)이다. 묘소는 신암면에 있다.

전시원(田始元) (1677~1728)



전시원의 묘 (덕산면 사천리)



묘비

자는.대숙(大叔) 본관(本貫) 담양(潭陽).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 겸홍주진 영장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 도정. 숙종(1677.11.출생) 1702년에 무과에 급제 선전관을 거쳐 운총만호 참상부장. 훈련판관. 전라좌수우후

금위파총. 김천군수, 보성군수 홍주진 영장을 두루 역임하다 선전관 재임시 춘당대에서 왕이 친임하여 무사들의 무재를 관전할적에 단연 수등에 거하였고 보성군수 재임시에는 치하에 고질적인 악폐를 혁신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위하여 농상정책을 수립하여 잘 진행하게 하고 특히 주(周)홀(恤)과 선(善)진(賑)을 공평무사하게 실시하였더니 임기가 끝나고 돌아온 후에도 백성들이 영세불망 지의(영세(永世)불망(不忘)지의(之意))로 비각을 세우고 춘추로 기념향사 하였다 하며 전후 거상(居喪)구년(九年)중에 특히 생부인신 감찰공 상사를 당하여서는 노쇠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애함이 너무 법도에 넘치게하여 마침내 애상함을 이기지 못하여 몰하니 인 리(里) 향당과 조정에서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묘는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송산 주봉하 계좌원이다.

영부사 청사.김재로 영상이 묘표를 찬하다 풍수가들이 영구음수형의 길지라 칭한다. 영(靈)구(龜) 음(飲)수(水)형(形) 신명한 거북이 물마시는 형국 정부인 한산이씨는 병조정낭 정내의 따임이요 문장공 토정 지함의 오대손녀인데 여장군이였다 말밥을 잡수시고 힘이 장사이었으며 슬하 자손들이 다 현귀하여 병사 수사와 주군(州郡), 부(府)목(牧)이 20여명이였다.

윤봉구(尹鳳九) (1681~1761)



신도비



윤봉구의 묘 (봉산면 궁평리)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로 자는 서응(瑞鷹), 호는 병계(屏溪), 구암(久菴), 본관은 파평이다. 참판 비경(飛卿)의 손자로, 명운(明運)의 아들이며 우참찬 봉오(鳳五)의 형이다.

권상하의 문인으로 1714년(숙종 40년) 진사가 되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1725년(영조 1년) 청도군수가 되었다.

1733년 사헌부지평, 이듬해 장령이 되었고 1739년 집의에 올랐다. 1741년 부호군이 되었는데 이때 주자(朱子)를 보은 춘추사(春秋祠)의 송시열 영당에 추봉할 것을 주장하다가 삭직 당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군자감정이 되었다. 1743년 사과, 1749년 진선, 1754년 서연관(書延官), 이듬해 찬선을 차례로 역임하고 1760년 대사헌에 특제(特除) 되었으며, 1763년 지둔령(知敦寧)에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다.

한원진(韓元震), 이간(李柬), 현상벽(玄尙璧), 채지홍(蔡之洪) 등과 더불어 권상하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 불리며, 인성(人性), 물성(物性)에 대한 이동(異同)을 논한 호락논쟁(湖洛論爭)의 중심인물로 꼽힌다. 호락논쟁(湖洛論爭)의 분과는 이들 중 이간과 한원진에게서 심화되어 심성론(心性論)의 한 줄기를 형성하는 데 인성과 물성이 서로 같다는 인간의 학설은 뒤에 이재(李穡)와 박필주(朴弼周)에 이어져 ‘낙론(洛論)’이라 불리고, 인성과 물성은 서로 다르다는 한원진의 주장은 윤봉구와 최징후로 연결되어 호론(湖論)으로 지칭되었다.

윤봉구의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간추리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의 형성 이전에 부여되는 천리(天理)는 동일한 것이나 일단 만물이 부여된 이(理) 즉 성(性)은 만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의 생애는 사회적·현실적 활동보다 심성론을 주로 한 성리학자로서의 입론(立論)에 치중하였으며, 저술내용면에서도 경전의 강의나 주석 및 성리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서로 『병계집』 『화양존주록(華陽尊周錄)』이 있다.

그의 묘소는 덕산에서 봉산 궁평리로 옮겼다. 예전에는 가야산이 그의 문중 산이었으나 대원군이 남연군을 면제하면서 빼앗아 묘지소유로 하고 공주군 유구면 탐곡리, 명곡리 일대의 산을 환지하여 주었다. 그의 호는 가야동 계곡을 가리키는 옥병계(玉屏溪)에서 연유한 것이다.

한홍조(韓弘祚) (1681-1712)



암촌 한홍조의 묘 (봉산면 궁평리)



단양우씨의 정려문

선생의 휘(諱)는 홍조(弘祚)고 자는 영숙(永叔)이요 호는 암촌(岩村) 또는 손재(損齋)이며 아버지 윤원과 어머니 전의 이씨의 2남 1녀중 장남으로 1681년 예산현 현내 봉암 [현 예산

읍 암하리=산성리]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본관은 상당한씨(上黨韓氏)로 상당은 청주의 고포이다. 고려조에 태위(太尉)를 지내신 휘(諱) 란(蘭)이 비조(鼻祖)로 이후부터 대대로 높은 벼슬로 헌상(軒裳)을 승계하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대제학을 지내시고 포은 정몽주 선생과 더불어 도의(道義)를 논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증영의정 시호(諡號)가 문경(文敬)으로 장단서원에 배향되신 휘(諱) 수(脩) 세칭 유향선생(柳巷先生)시에 이르러 가내 문운(門運)이 번창하였고 그의 아드님 휘(諱) 상경(尙敬)은 조선조 개국공신의 원훈(元勳)이요 영의정이며 시호가 문간(文簡)으로 묘정에 배향되신 분이 선생의 9대조로 선생이 서술한 선왕고 부군 가장(家狀)에 기술되어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이 남과 달라 문일지십 즉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총명함으로 조선조 후기에 18년간이나 대제학을 역임하시고 율곡선생을 비롯하여 기호학파의 적전이신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선생의 문인으로 입문하여 수학하시었다.

수암께서는 남한강의 상류인 황강(黃江)에서 강학을 하시었는데 선생에게 배우려고 모여든 문인이 수백명에 이르렀으나 그중 한수재집(寒水齋集)에서 많이 거명이 되는 분은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외암 이간(巍巖 李柬), 병계 윤봉구(屏溪 尹鳳九), 추담 성만징(秋潭 成晚徵), 관봉 현상벽(冠峯 玄尙璧), 매봉 최징후(梅峯 崔徵厚) 화암 이이근(華岩 李頤根), 암촌 한홍조(岩村 韓弘祚) 봉암 채지홍(鳳巖 蔡之洪)등이다.

이분들을 후세 학자들은 강문8학사(江門八學士)라고 칭한다. 원래 암촌 선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32세에 지병으로 타계하시기까지 짧은 생애 중에도 수암 선생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니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자 선생의 애제자 안회(顏回)가 단명하여 공자 앞에서 타계하였어도 선생의 수제자(首弟子)가 된 것과 같이 수암 선생도 암촌의 성실함과 총명함을 칭찬한 것을 수암집(遂庵集)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으로 보아 얼마나 제자 암촌을 사랑하였는 지를 알 수 있으며, 그에게 써준 격려문 한편을 소개한다. [원문을 생략한 번역문]

고재라서 바른 길에 뛰어나기 그만인데
 외진 산 멀리 찾아 뜻이 너무 열심일세
 나는 선사로부터 직자하나 받았으니
 작별함에 이걸로써 그대에게 준다오

이렇게 사랑하던 제자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선생의 아픈마음이야 오죽하였으리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편의 시를 남기셨다. 제목은 한영숙 홍조 만(韓永叔 弘祚 挽)이다.

선생은 강문8학사의 한분으로 수암선생(遂菴先生) 문하에서 울곡학과(栗谷學派)의 이기설(理氣說)을 연구 계승하였으니 그의 학문 연원은 울곡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조 중 말기에 동양철학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이론을 전개한 이기론(理氣論)과 이후에 더 발전한 소위 호락논쟁(湖洛論爭)이라고 하는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과 미발심체선악론(未發心體善惡論)에서 선생은 기발이이승지(氣發而理乘之)의 일도설(一途說)을 주장한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의 학설에 동조하였고 호락논쟁에서도 호학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과 미발심체선악공존론(未發心體善惡共存論)에 동조하였다.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사셨기에 선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많이 전해 오는 것이 없으나 선생의 학문이론은 참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학자이셨다.

선생의 저서로는 강상문답(江上問答), 동유록(東遊錄), 구봉선생래파변(九峰先生來派辯)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강상문답이 가장 유명하며 당쟁시절에 서인(西人)편에서 서인의 논리정립을 위하여 서술한 문장으로 총16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도 학자들이 당쟁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유록은 현재 전하여 오는 것이 없고 구봉선생래파변은 기호학과를 열어놓은 구봉송익필(九峰 宋翼弼)선생에 관한 세론에 대한 변론이다.

구봉은 원래 서출(庶出)이라 출신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 연유로 구봉선생은 고양 구봉산 아래로 거처를 옮기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1575년 학계가 동서로 분당되자 구봉은 울곡 이이(栗谷 李珣), 우계 성혼(牛溪 成渾), 송강 정철(松江 鄭澈)등과 교류하자 동인(東人)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들의 송사로 구봉가(九峰家)를 환천(還賤)시켰는데 이 일의 부당함을 변론한 내용이다.

이 일로 타계 후에 정파들 간에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었으나 단명하였기에 계속 선생의 학설과 이론을 정립할 수 없음이 가장 애석한 일이다.

선생의 초장(初葬)은 예산 봉암하에 안장하였고 그 배위(配位) 단양우씨는 열녀정려(烈女旌閭)를 받고 부군(府君)과 합폄(合窆)하였다가 선생의 6대 손 석호(奭皐)가 봉산 궁평리로 면봉하였고 묘전에는 충대 명예교수이시며 화서학과의 적전이신 학산 조종업 박사가 찬술한 묘갈비와 묘 앞 대로변에 단양우씨의 정려문이 이건(移建)되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깃을 여미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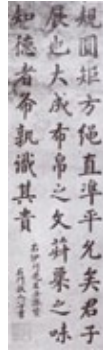
윤봉오(尹鳳五) (1688~1769)



석문 윤봉오 영정



석문집



유묵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계장(季章), 호는 석문(石門) 본관은 파평이다. 참판 비경의 손자, 명운의 아들이며 판서 봉구의 아우이다.

일찍이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왕세제(후에 영조)를 가까이에서 보필하였고 1725년 영조가 즉위하자 시직(侍直)이 되었다. 1746년(영조 22년)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필선(弼善)이 되었고 부수찬,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홍천(洪川)현감으로 나갔다가 1759년(영조 35년)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대사헌에 올랐다.

1763년(영조 39년) 특진관(特進官),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겸했고, 1768년(영조 44년)에 사직(司直)을 거쳐 이듬해에 우참찬(右參贊)이 되고 70세가 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시호는 숙간(肅簡)이다. 저서로는 『석문집(石門集)』 8권이 있다.

그의 형 봉구와 함께 문장에 능하였으며 명도선생(明道先生)의 화상찬(畫像贊)을 봉구가, 이천선생(伊川先生)의 화상찬을 봉오가 썼는데 모두 80세가 넘는 고령의 작품이다.

그는 선대부터 덕산 가야산을 소유하여 가야동은 그들의 학문을 수양하던 곳이었다. 지금의 상가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원효봉 아래 사기점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되는 부근에 넓고 깨끗한 백석암반이 있고 바위를 거쳐 내리는 폭포가 절경을 이루는 데 이곳이 석문담이다. 옛날 송시열이 취석(醉石)이란 두 글자를 새겼고, 김진규가 석문담(石門潭)이란 석자를 각자하였고 윤봉오의 아호 석문은 이곳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의 형 봉구의 호 또한 가야동과 연관이 있는데 가야동 계곡을 흘러내리는 산모랭이에 있는 기암절경의 바위와 연못을 병계(屏溪)라 하였는데 그의 호도 여기에서 연유하였다.

봉구·봉오 형제의 학문적, 세업적 기반이었던 가야산은 풍수설에 미친 대원군의 명당터 때문에 모두 빼앗기고 그의 묘 또한 유구로 갔으며 그의 형 봉구는 봉산면 궁평리로 이장되었다.

서해조(徐海朝) (1689~1770)

본관은 연산(連山)이며, 자는 종지(宗之)이고 호는 구구재(九九齋)이다. 숙종 17년 연산 서욱(昱)의 아들로 광시면 구례리에서 태어났다.

1714년(숙종 40년) 생원이 되고, 1732년(영조 8년) 성균관의 반제(泮製)에서 장원하여 전시에 직부(直赴)하라는 특전을 받았으나 이복령(李復齡)과 시권(試券)이 바뀌었음을 자백하여 취소되었다. 이해 이 일을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제수하였으며, 이듬해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으로 옮겼다. 1735년 장릉참봉(章陵參奉)으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37년 자여찰방(自如察訪)으로 나갔다가 목릉별검(穆陵別檢)을 거쳐 1742년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하였다. 1745년 예조·병조좌랑과 병조정랑을 거쳐, 연풍현감으로 나가 빈번한 사행(使行)으로 인한 민폐를 덜어주었다.

1751년에 지평으로 직무가 번거로운 내직을 피해 외직을 원하던 조재호(趙載浩)를 탄핵하였다. 곧이어 이조정랑으로 옮겼으며, 1753년에는 황해도의 향시(鄉試)를, 1755년에는 전라도의 향시를 주관하였다. 1763년 병조참의에 오르고, 1770년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가 졸하였다.

효성과 우애가 극진하였으며, 30여년의 관직생활 동안 한번도 권세있는 사람에게 아첨한 적이 없었다. 두보(杜甫)의 시를 좋아하였고, 춘추좌씨전의 문장을 좋아하였다.

저서로는 두시보주(杜詩補注)·좌사초류(左史抄類)가 있고, 특히 제례에 밝았다.

항상 청렴 결백하고 사재로 어려운 관비를 보충하였으며 조선 중엽의 사색당쟁(四色黨爭)이 심할 때에도 오직 중도를 지켜 적이 없는 정치가였으며 청빈하여 칠십에 향리로 낙향 할 때에는 전토는 물론 기거할 집조차 없어 타인의 집에서 섭포살이 하면서도 후학에 전념하였으며 두시(杜詩)에 주를 내었다 하나 전하지 않고 그 후손들이 대흥, 광시에 세거(世居)하여 구례리에 묘소가 있다.

전운상(田雲祥) (1694~1760)



자천 전운상 영정

1694년(숙종 20년)~1760년(영조 36년).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담양(潭陽). 자는 사룡(士龍), 호는 자천(紫泉). 홍주 영장(營將) 시원(始元)의 맏아들이다.

1717년(숙종 43년) 24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함경도 정평부사로 있을 때 농업을 권장하고 흉년을 당하여 이재민과 질병을 앓는 사람을 잘 보호하여 왕의 특별한 포상을 받았고, 또 강원도 춘천에 재임 중에는 삼공(蔘貢)의 민폐를 통감하고 관비의 절약보조로 보삼고(補蔘庫)를 설치하여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이된 무비(武備)를 정비하고, 연무청(鍊武廳)을 신축하여 장병을 훈련시켜 유사시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그는 관직에 있는 동안 이원익(李元翼)의 거관승묵(居官繩墨) 1편을 손수 써서 책상 머리에 두고 항상 읽고 외우며 공무에 전심하였기 때문에 처결에 잘못이 없고 관찰과 판단이 공정하였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1740년(영조 16년) 전라좌수사로 있을 때에 수군의 특수함정인 해골선(海鵝船)을 건조한 것이다.

영조실록에 “전라좌수사 전운상이 해골선을 지었는데, 몸체가 작고, 가볍고 빨라서 바람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해골선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주목할만한 군선이었다.

1746년 경상병사로 있으면서 독륜전차(獨輪戰車)라는 독특한 육전(陸戰)의 전구(戰具)도 제작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자천(紫泉)공의 詩에 曰

“嗟我行年迫七旬 何因來坐豆江垠 南天回首雲千里 北闕懸心月一輪 絕塞爲官何異謫 胡山隔水便同隣 而今最幸邊無警 聖祖威靈服遠人 胡天無日不寧風 閉戶低頭勉奉公 身似老驥糜糲上 心如孤鶴鎖籠中 枕邊歸夢行千里 夢裏鄉山隔萬重 厄運從來難可免 人間事事係蒼穹”

아 슬프다. 내 나이 70 이 임박한데 / 어찌하여 두만강 가 언덕에 와있는가? / 머리 돌려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은 까마득하고 / 마음은 쓸쓸한 관아에 있는데 둥근달이 회포에 젖

게 하누나! / 험한 요새 관장되니 귀양 온바 다르라! / 강 건너 오랑캐의 산이 이웃 같고 / 이제 보니 경계할 것 별로 없어 다행이네. / 임금 위엄 그 영험에 먼 곳까지 승복함이로다. / 오랑캐 땅 하늘에는 거친 바람 잘날 없고 / 문을 닫고 머리 숙여 공무처리에 힘을 다한다네. / 이 몸은 늙은 준마 가죽나무에 매었는데 / 마음은 새장속의 외로운 학! / 베개머리 꿈속은 천리 길을 왔다갔다 / 꿈속의 고향산천 만리처럼 아득하고 / 액운이 다가 와도 피할 길 없어 / 인간 만사가 다 하늘에 매었거늘...!

임금께 받은 표창장 (정평부사 때)

賜 熟馬 劄書

今觀本道監司宋眞明狀啓則爾六年居職一心奉公自備各穀至於二千餘石之多近三千饑民優優繼活以其餘穀一次白給於數萬元民勤渠鍊熟之治既居諸邑之右而吏功表異如此誠爲可嘉特熟馬一匹爾其領受

이에 본도감사 송진명이 보고한 글을 본즉 그대가 6년간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나라에 정성을 다하는 한편, 나라에서 받은 녹봉의 각종 곡식을 비축하기를 2천 여석이나 되게 하여 3천명에 이르는 굶주린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그 나머지 곡식을 한꺼번에 수만의 여러 백성에게 나누워 주어 그 고을을 잘 다스려서 여러 고을의 으뜸가는 모범을 보인 것은 공직자의 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로서 그 성심 참으로 기쁘게 여기고 특별히 잘 길들인 말 한 필을 내려 주나니 그대여 받으라.

전일상(田日祥) (1700~1753)



석천 전일상 명정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희중(羲仲), 호는 석천(石泉),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일상이 예산의 인물로 조명된 것은 그의 유품인 영정 및 한유도가 1979년 12월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서울에서 유묵전시회를 열던 중 당시 중앙일보 문화부장이던 이종석 기자에게 취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127호)로 지정되어 현재 그의 7세손인 전용국(田溶國)씨의 집(고덕면 호음리 22)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석천은 숙종 26년 2월 12일 홍성에서 출생하였고, 어려서부터 스스로 장수가 되어 군진(軍陣)의 놀이를 좋아하였다. 1722년(경종2년)에 무과에 2등으로 뽑힌 후 선전관으로 배명(拜命)받은 지 두 달 만에 춘당대내시(春塘臺內試)에 특지(特旨)로 절충장군에 승진되었다. 이어 고령첨사로 근무하다 수어천총(守禦千總)이 되고 1726년(영조 2년) 단천부사가 되었다.

1728년(영조 4년) 나주영장으로 부임하였는데 충청도 청주에서 이인좌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후이기 때문에 호남지역도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적들이 횡행하여 민심이 흉흉하였다.

석천은 도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도적 괴수까지 잡아 민심을 가라앉혔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왔으나 곧 삼척영장으로 나갔다. 이는 영장이란 직책이 지방군직이었으나 현종 때부터 도적을 잡는 토포사를 겸직시켜 석천이 나주영장 시절 도적을 잘 다스린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삼척영장시절에는 군정(軍政)의 일로장계를 올려 부사를 파직당하도록 하였다.

삼척 영장으로 재직할 당시 군진의 축성과 다수의 공공건물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의 힘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큰 돌에 운반하기 어려운 것들은 직접 자신이 운치하여 종용한 가운데 일신하게 완축하였다. 그 공로를 도신 이형좌가 국왕께 아뢰어 왕으로부터 특별히 좋은 말 한 필을 하사 받았다. (하사한 유서와 말 그림이 종가에 전해지고 있음) 삼천 진영의 영루를 신건하고 하사마를 받은 후 題陟州營樓(제척주영루)라는 제목 하에 詩一律을 술회하니, 시문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新起高樓壓海頭 새로 세운 높은 누각바다 위를 앞도하여
 登臨五月爽如秋 올라보고 내려보니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기 가을 같네.
 鵬翔萬里扶搖壯 봉새가 만리를 나래하니 온 하늘이 장대하고
 鼇戴三山縹渺浮 자라가 삼신산을 이었으니 온 지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斷岸北來當檻盡 끊어진 언덕은 북에서 내려왔으니 영루에 난간을 당하여 다하였고,
 長川東向抱城流 기나긴 냇물은 동으로 향하는데 성벽을 안고 흘러간다.
 將軍出坐軍容整 장군이 나와 앉았으니 군사들의 군기가 엄정하고
 欲效愚忠抒國愁 나의 충성을 나라 근심 없애는데 받치고자 하네.

라고 하여 삼척 영누에 계하였다.

그 후 내직으로 돌아와 금군장이 되었으나 친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복을 마치고 경원부사를 제수 받았으나 친병(親病)으로 부임치 못하였다. 1736년(영조12년) 칠곡부사가 되어 자비로 야은일고(櫟隱逸稿) [고려말기 야은 전녹생의 시문집]을 간행하였고 1741년(영조 17년) 삼화방어사(평남 용강)로 나갔다. 그때 전임군수가 연이어 3명이나 죽어 부임하는 자가 없었으나 부임하여 민심을 가라 앉혔다.

1743년(영조 19년) 무산부사, 1745년(영조 21년) 창원부사가 되었다가 1747년(영조 23년) 전라우수사로 발탁되었으며 부임지에서 권세를 믿고 방종하여 규율을 범하는 자를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군현에서 위법하는 수령들을 장계를 올려 파직당하도록 하니 남도 연안에 우수사의 위풍(威風)이란 말이 생겼다.

1749년(영조 25년) 죽산부사로 나갔으며, 부임지에서 창고를 지을 때 손수 재목을 들어 권면(勸勉)하는 모범을 보이니 관민이 모두 합심하여 큰 창고를 짧은 기간 내에 지어 노적하는 폐단을 시정하였다.

1752년 경상좌병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치 못하였고 같은 해 여주목사에 임명되었으나 김포에 도적떼가 일어나자 조정에서 김포군수를 파직하고 함께 겸직토록 하여 먼저 부임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인 1753년(영조 29년) 11월 7일에 결성리제(結成里第)에서 고종(考終)하니 향년 54세였다.

묘는 홍성군 은하면에 있었는데 지난 2009년 4월 17일에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수산 주봉 아래 후좌원에 이장하였다. 그리고 석천영정과 한유도는 2008년 4월 1일에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소재 장충 영각에 백씨 자천공 영정과 함께 봉안하고 매년 4월 넷째주 토요일에 향사한다.

이사관(李思觀) (1705~1776)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숙빈(叔賓). 호는 장음(長陰), 본관은 한산이다. 종성부사 기성(基聖)의 아들이나 기한(基漢)에게 입양되었다.

1729년(영조 5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37년 통덕랑으로서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승문원에 들어갔다. 1747년 정언으로 청요직(淸要職)에 발을 들여놓은 뒤 2년 후 지평, 사서 등을 역임하였고, 1759년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직전 논란이 있어 황주목사로 파견되었다가 결국 1762년 다시 충청 감사가 되었다.

그 이듬해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천거로 병조참판으로 탁용되었고 도승지를 거쳐 병조판서에 올랐다. 그 뒤 호조, 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일시 한성부좌윤이 되었다가 다시 예조판서, 호조판서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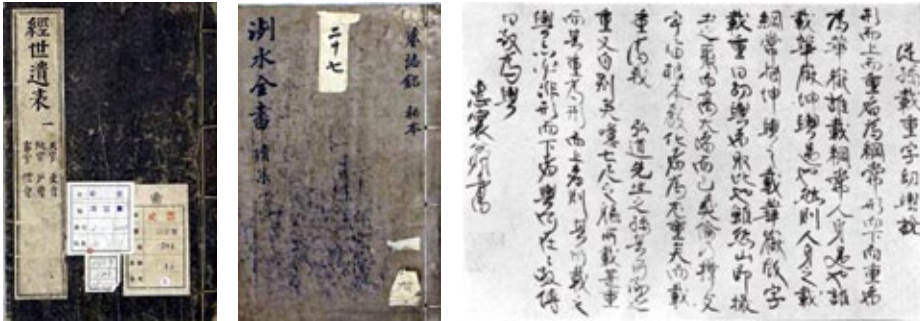
1772년 문소전 「이태조의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사당으로 1396(태조 5년) 건립하여 인조전(仁照殿)이라 하였는데 1408년(태종 8년) 문소전으로 개칭하고 1433년(세종 15년)에는 태조와 태종의 위패를 봉안하였다가 명종 때 폐쇄하였다」의 옛터에 비각을 건립하는 데 공이 있다 하여 가자가 되었고, 그 뒤 무고를 받고 한때 파직되었으나 다시 판중추부사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으며 1774년 70세가 넘자 벼슬을 떠나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이듬해 병으로 영중추부사의 한직을 맡았으나 영조가 나이가 많고 50여년의 장기간 통치에서 정조에게 양위하고 대리청정을 하게 되자 다시 우의정이 되어 국사를 돌보게 되었다. 노구를 이끌고 등청하던 그는 쓰러져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졸하다. 영조는 직접 제문을 지어 승지를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문장이 매우 능하였고 글씨도 매우 뛰어났다고 하지만 사신(史臣)은 그가 문식이 있고 명망이 높았으나 재상에 올라 일을 크게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식재상(伴食宰相)으로 적고 있다. 시호는 효정(孝靖)이다.

묘는 경기도 양주군 석적면 삼비리에 있다가 도시계획으로 수용되어 2011년 청명일(淸明日)에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 산 31번지 선조 충장공 묘하로 천묘(遷墓)하였다.

이용휴(李用休) (1708~1782)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에 해환제 이용휴를 칭송하는 글을 많이 실었다. (사진 오른쪽이 이용휴를 칭송하는 글)

조선후기의 학자로 자는 경명(景命), 호는 해환재(惠寰齋) 본관은 여주이다. 기(沂)의 아들이며 잠(潛)의 조카로 실학의 대가 가환(家煥)의 아버지다. 작은 아버지 익(瀾)의 문하에서 배웠다.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과거를 보지 않고 시속의 풍조를 벗어나 경전에 묘법을 두고 고인지법(古人之法)에 맞는 문장을 이룩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음보는 벼슬이 첨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그의 작품은 자기 가통의 작품을 따라 천문, 지리, 병농 등 실학의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상에 입각한 것이 많다.

『해서개자』라는 한문소설에서 거지가 순진하고 거짓 없는 마음씨를 가졌다고 한데 이어서, 거친 들판 산협에 숨은 선비 또는 농촌에서 일하는 이들 가운데 참된 사람이 있으리라고 하여 하층민의 입장에서 전(傳)을 썼다. 이는 전의 본래적 성격과 다른 것이었다.

그의 문학관은 영달을 위한 수단이 아닌 문학 그 자체의 진실을 추구하자는 것이었고 주자학적 권위와 구속을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상적 고민이 깊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문인의 사명과 창작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하였고, 당대 30여년을 문장가로 남인계의 문권을 잡았다. 작품으로는 신광수(申光洙)가 연천고를 원으로 부임할 때 지어 준 『송신사군광수지임연천(送申使君光洙之任連川)』 등이 있고 저서로는 『탄만집(歎曼集)』, 『해환시초』 등과 『해환잡기』가 있다. 『해환잡기』에 한문소설 『해서개자』가 실려 있다.

『해서개자(海西皆者)』: 구소설(舊小說). 문장은 한문. 실학과 작품으로 꼽힌다. 내용은 황해도 시골의 한 비렁뱅이와의 대화를 통하여 명리(名利)를 버리고 자연에 의탁하여 천수를 누리려는 고고한 선비의 뜻과 비록 가산을 헤쳐 거지의 몸이 되었으나, 가벌(家閥)을 과장하지 않고 참된 바탕을 잃지 않는 비렁뱅이의 품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여주이씨가 덕산현 고현내면 장천리(현 고덕면 상장리)에 정착하게 된 근원은 조선조 선

조 때 좌찬성에 이르렀으며, 인재를 등용하는데 색(色)을 가리지 않고 공평했다고 하는 소릉(小陵) 이상목(李尙穆)의 손(孫) 이명진(李明鎭) (양근군수 등 역임)이 낙향 정착한 곳이 고덕면 상장리였다. 이명진이 후손이 없어 형 이하진의 넷째 이침을 양자로 맞았고 그의 후손이 세거하면서 여주이씨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병휴(李秉休) (1711~1776)



정산잡저 및 시집

이름은 병휴(秉休), 호는 정산(貞山), 본관은 여주(驪州)이다.

성호(星湖)를 중심으로 한 그 자(子), 질(姪), 손(孫)들이 모두 서학(西學)으로 유명한 가운데 정산(貞山)은 경학(經學)으로 숭앙(崇仰)을 받을만한 뚜렷한 존재이다. 그는 경학(經學)중에서도 예학(禮學)에 대한 논저(論著)가 가장 우위(優位)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성리학(性理學)에 주력했으나 그밖에도 문학(文學), 사학(史學), 역학(易學), 역법(曆法), 산수(算數)등에도 정통했다.

그의 예학(禮學)은 성호(星湖)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성공했다. 예(例)로 심의(深衣)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圖面)을 남겼고, 성리학(性理學)에서도 주로 이(理), 기(氣)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성호(星湖)의 미진한 점을 밝게 설명하고 있다.

그의 예학(禮學)은 성호(星湖)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성공했다. 예(例)로 심의(深衣)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圖面)을 남겼고, 성리학(性理學)에서도 주로 이(理), 기(氣)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성호(星湖)의 미진한 점을 밝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 퇴계(退溪)의 학파(學派)를 영남(嶺南), 영북(嶺北)으로 나누었는데 영남파의 대표로는 한강(寒岡), 정구(鄭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등을 꼽았고, 영북파로서는 오직 성호(星湖)만이 퇴계를 사숙(私淑)하여 그 도통(道統)을 계승했다고 단언했다.

정산(貞山)은 가정에서 성호(星湖)를 사사(師事)하다가 성호가 돌아간 뒤에는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를 스승으로 삼았고 하빈(河濱), 순암(順庵)과는 친우로 교류(交遊)했으며, 그의 자질(子姪)로서는 가환(家煥), 삼환(森煥), 구환(九煥)등 재종형제가 찬란한 광채를 나타냈고, 제자들 중에서는 이기양(李基讓), 권철신(權哲身) 등의 재주와 학문을 겸비(兼備)한 인재가 배출(輩出)되기도 했다. 그런데 뒤에 이(李), 권(權) 두 제자와 가환(家煥)이 모두 서학(西學)에 순신(殉身)했으니 이는 역시 후배에 대하여 정산(貞山)의 학문적인 개방에서 기인(起因)한 것이라고 하겠다.

서병덕(徐秉德) (1712~1806)



서병덕의 영정



서병덕의 갈배, 갓, 금옥, 관자, 호패 등

자는 수호(修好), 익호(諡号), 정익공 숙종 38년 연산서(連山徐) 희조(喜朝)의 자로서 현 광시면 구례리에서 출생하여 6세부터 문장에 총명하였고 특히 시문에 재질이 있었으며, 이십 약관으로 벼슬에 나아가 부승지, 예조참판, 도총관지중추, 한성판윤 등을 두루 거쳤으나 극심하였던 조선중기의 사색당쟁 등에 휩쓸리지 않고 너그러운 인품과 명석한 사리의 판단은 주변사람의 흠앙을 받으며 정사를 보았고 항상 청빈하여 낙향할 때에는 숙부 해조(海朝)와 더불어 안빈낙도로 95세의 장수를 하였으며 유품으로는 영정, 요대, 옥배등을 후손이 보관하고 있어 조선중엽의 사료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묘는 광시면 마사리에 있으며 후손들은 대흥, 광시와 홍성군 구항면 일대에 세거하고 있다.

이길유(李吉儒) (1714~1783)

공의 휘는 길유(吉儒)고 자는 사적(士迪)이요. 관향은 신평인(新平人)이다. 계출(系出)은 고려조 평장사(平章事)로 시호(諡號)가 문간(文簡)이신 휘 덕명(德明)을 시조로 하고 성균관 생원 증(贈)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가선대부 이조참판이신 고위 국형(國馨)과 비위 정부인 파형 윤씨 사이에서 4남중 3남으로 숙종 갑오년에 덕산 현북 내야면 칠진곡(현 봉산면 옥전리 옷밭골)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침착하였고 문재와 필법이 비범해 6세에 재상(宰相) 조태채(趙泰采)가 참판덕에 와 소년의 농필(弄筆)을 보시고 “네가 대자(大字)를 쓸 줄 아느냐” 하문하니 소년이 쓸 수 있다고 답하고 대자 2자를 쓰니 상공께서 칭찬하시었다.

7세에 숙종대왕이 승하하시니 이 소년이 흰 옷을 입고 삼베로 만든 띠를 띠고 있기에 주위에서 물으니 소년이 답하기를 “나라에 국상(國喪)이 있는 연유”라고 하니 주위에서 매우 기이하게 여기었다.

11세에 엄친(嚴親) 참판공으로부터 통감을 시작으로 글을 익히니 날로 학문이 성취되어 갔다. 24세에 처음으로 과거를 응시하였으나 미해(未解)한 부분이 있어 집에 돌아와 두문침사(杜門沈思). 4개월에 부모봉양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투필(投筆)하니 주위에서 매우 아깝게 여기었다.

그 후 영조 갑자식년시에 무과장원으로 급제하시니 그때 나이가 31세였다. 합격 후 유가일(遊街日)에 좌상 송인명(宋寅明) 대감을 뵈게 되니 배석한 총용사 정찬술이 대감에게 문무를 겸비한 기대되는 한량이라고 아뢰니 송공이 기뻐하며 그대가 바로 그 이모(李某)냐고 반문하고 장(將), 상(相)이 합석한 연석에서 그의 합석을 허락하시었다는 일화가 문중에 전해 오고 있다.

유가를 마치고 바로 국경수비에 나가시니 이어 비랑이 되시고 다음에 훈국주부에 오르고 다음해에는 일본에 가는 상사(上使)의 막료로 가시었다.

무진년에 조정에 돌아와 충부도사에 승진하시고 기묘년에 영종방어사 임오년에 봉산군수로 다음해엔 의망으로 여주부사로 계시다가 호남좌수사로 다시 조정에 계시다가 가선대부 영남 좌병사로 부임하였다.

재임 중 왜구의 침범을 대비해 장졸의 훈련과 성곽의 보수에 진력하던 중, 질자(姪子) 도찬(道燦)의 사건으로 사직하고 향리로 귀향하니 영조께서 공의 무고함을 아시고 부르시니 또 의망(擬望)으로 누차 천거되었으나 한번도 상경하지 않고 집에서 두문(杜門) 사객(謝客)하

고 사시다가 정조 임인년 향년 69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초 장지는 덕산 외면 마산 응봉에 하관하였다가 순조 갑자년에 덕산현 내면 중안리 내공에 이طم 하시었다. 묘전에는 하마비가 있었으나 일제시대에 없어지고 지명만 한인말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전광국(田光國) (1715~1767)



전광국의 묘비 (덕산면 사천리)

田光國 字 聖賓 (號는 성재), 전시원의 손, 본관 담양
 절충 장군 공충도 수군절도사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 의금
 부사 훈련원 도정숙종 을미(1715년) 9월에 출생하고(자천공의
 차남) 英祖 辛酉(1741년)에 무과에 등제하여 훈련원에 종사하던
 중 丙寅丁卯 즉 1746년부터 1747년에 걸쳐 연경(중국)과 일본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되어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잘 지
 내게 하고 모든 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특히 뛰어난 문
 장으로 중국과 일본에 명망이 대단하였다. 그 사실이 연로록 및 유
 해록에 등재되어 있다. 정해 1767년 6월에 53세를 일기로 별세함.

선전관, 내금위장, 이천부사 수어중군을 역임하다. 그리고 공충도 수군절도사를 제수하다.
 묘는 예산 덕산면 사천리 덕송산 주봉하 임좌원에 있다.

김한신(金漢薰) (1720~1758)



월성위 김한신과 화순옹주의 합장묘 (신암면 용궁리)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유보(幼輔), 본관은 경주, 아버지는 영의정 흥경이며 어머니는 황하영의 딸이다.

김한신은 1732년 영조의 둘째딸 화순옹주(和順翁主)에게 장가들어 월성위(月城尉)에 봉해졌고 벼슬은 오위도총부도총관, 제용감제조(濟用監提調)를 지냈다. 이때는 우리나라 역대 정치사상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영조의 확고한 탕평책으로 표면적으로나마 조정이

안정되었고 영조 또한 50여년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재위기간 흔들림 없이 왕권을 쥐고 있었으므로 문화면에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월성위는 부마로서 흔들림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39세의 나이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으므로 그의 관심은 자연 예술방면, 즉 서예였다. 그리하여 팔분체(八分體)에 뛰어나, 애책문(哀冊文), 시책문(諡冊文) 등을 많이 썼고 전각(篆刻)에도 뛰어나 인보(印寶)를 전각하였다.

그러나 39세에 자식도 없이 죽으니 화순옹주 역시 14일 동안 굶어서 남편의 뒤를 따라 순사하였다. 아마도 후사가 없음에 전적으로 남편만 바라보며 살던 생활에 의지할 기둥이 없어져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영조는 식음을 폐하리 만큼 애통해 하였고 왕명으로 이들의 묘막(墓幕)을 55간의 규모로 짓고(이는 영조의 지나치리만큼 편협된 자식편애와 왕족중심 사회의 모순이라 하겠다) 월성위의 장형 한식(漢植)의 3자 이주(頤柱)로 뒤를 잇게 하여 국왕의 외손으로 청요(淸要)의 직을 거치게 하니 그의 자손들이 차례로 등과하여 장자 노명은 예조참판, 차자 노성은 수원판관, 4자 노경은 이조판서에 이르게 된다. 4자 노경의 아들이 김정희로 바로 서예에 있어서 일가경의 극치를 이룬 추사체를 이루었다.

월성위의 묘는 신암면 용궁리에 화순옹주와 함께 있다. 시호는 정효(貞孝)이다.

화순옹주(和順翁主) (1720~1758)



화순옹주 홍문 (신암면 용궁리)

화순옹주는 영조(英祖)의 둘째 딸로 어머니는 정빈이씨(靖嬪李氏)이다. 1725년(영조 1년) 2월 18일에 화순옹주(和順翁主)로 봉해졌다.

1732년(영조 8년)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燾)에게 하가(下嫁)하니, 김한신은 겸판서(兼判書) 김흥경(金興慶)의 아들이며, 추사 김정희의 증조부이다.

이 부부는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로 불릴 만큼 당시 아름다운 부부로 손꼽혔다. 혼인한 지 16년이 지나 김한신

이 38세에 죽자 화순옹주는 따라 죽기로 결심하고 그야말로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다.

딸이 굶고 있다는 말을 들은 영조는 몸소 찾아가 미음 먹기를 권했으나 옹주는 미음을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영조는 이미 딸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탄식했다. 음식을 끊은 지 14일 만에 옹주는 죽었다.

영조는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리면서도 부왕의 뜻을 저버린 데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열녀정문을 내리지 않았으나, 후에 정조가 이 옹주 고모에게 열녀문을 하사해 유려한 문장으로 그 덕을 칭송했다. 그 일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 참으로 매섭도다. 옛날 제왕의 가문에 없었던 일이 우리 가문에서만 있었으니, 동방에 믿음 있는 여인이 있다는 근거라. 어찌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법도가 빛나지 않겠는가. 더구나 화순 귀주는 평소 성품이 부드럽고 고우며 본디부터 죽고 사는 의리의 경중을 잘 알고 있었으니 외고집의 성품인 사람이 자결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 참으로 어질도다”

화순옹주는 조선왕조의 왕실에서 나온 유일한 열녀라고 한다. 화순옹주홍문(和順翁主紅門)은 유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되었으며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있다. 능원도 정려문 인근에 월성위 김한신과 합장되어 있다.

전문현(田文顯) (1741~1803)



전문현의 묘 (덕산면 사천리)

田文顯 字 士舜 (전시원의 증손, 본관 담양)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지 훈련원사. 영조 신유(1741년)에 출생 영조 을유(1765년)에 즉 24세에 무과에 등제하고 그 해에 비변사랑청에 제수되고 다시 선전관과 훈련원 주부 훈련관관 총융좌총이 되다. 다시 사헌부감찰과 도총경력을 역임하고, 다시 함중부사로 출사하여 치적이 현저하였고 다시 상주 영장으로 이임하였다가 다대포첨사로 다음해 금위

천총에 특제 행수 선전관을 역임한 후 창성방어사로 이임되고 다시 남한 유명별장과 훈련관사와 행수선전관과 수어별장으로 특제한다. 다시 통진부사로 제수되었으나, 신병으로 미부하고 어영천총과 훈국좌우천총, 내승 등 별군직을 수행하다가 황해 수군절도사가 되다. 다시 특교로 內移僉樞(내이첨추)하고 어영별장과 훈국 우별장을 겸임하고 다시 행수선 전관에 제수되었다가 충청 병마절도사에 제수하다. 공(公)이 차례로 삼조를 섬기면서 특히 정조조의 은총을 받아 별군직에 14년을 복무하였다. 순조계해(1803년)에 졸하니 63세이다.

묘는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승산 주봉하 임좌원이다.

이가환(李家煥) (1742~1800)



이가환의 필적

조선후기의 문신 학자로 자는 정조(廷藻), 호는 금대(錦帶), 정현(貞軒)이고 본관은 여주이며 익(翼)의 종손이며 용휴의 아들이다. 천주교인 이승훈의 외숙이다. 그의 학문적 교우로는 정약용, 이벽, 권철신 등 초기 천주교 신자가 많았다.

1771년(영조 4년) 진사가 되었고, 1777년(정조 1년) 중광문과에 을과를 급제하였고 1780년에 비인현감이 되었다. 1784년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는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오히려 설득당하여 천주교인이 되었다. 이벽은 본관이 경주로 1777년 권철신, 정약전 등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천주교 서학에 흥미를 느꼈다.

이승훈에게 부탁하여 중국에서 서적을 구입 해다가 서학연구를 계속하였다. 남인들 사이에 동지를 규합하여 천주교 보급에 투신 이승훈에게서 세례를 받고 이승훈, 권철신과 더불어 지도자로 활약하였던 인물이다. 이가환은 이벽으로부터 서학입문서와 『성년광익(聖年廣益)』 등을 빌려 탐독하고, 제자들에게도 전교하는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그러나 1791년 신해박해 때에는 교리연구를 중단하고,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서 천주교를 탄압하였고, 그 뒤 대사성, 개성유수, 형조판서를 지냈고, 1795년 주문모신부 입국사건에 연루,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천주교인을 탄압하다가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천주교를 연구하고 1801년 이승훈 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하였다. 역설적이게도 그를 천주교 신자로 만들었던 이벽은 아버지가 그를 말리다 목매어 죽자 그 충격으로 배교자 이기경의 권유로 천주교와 절연, 교리를 끊고 있다가 그 이듬해 페스트로 죽었다.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였으며,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하여 그 자신이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라고 할 만큼 수학의 대가였다. 저서로는 『금대유고』가 있다.

김조순(金祖淳) (1750~1820)



김조순 정려비

조선 숙종40년(1714) 10월 예산지방의 선비들이 자암(自庵) 김구(金絳)(1488~1534)선생을 숭배하여 예산 금오산 동쪽 덕잠골(향천리)에 독배향(獨配享)서원을 지었는데 이때 숙종은 제문과 덕잠서원(德岑書院)이라는 액자를 하사하였다.

그후 100년이 지난 순조 13년(1813)에 건물이 많이 상하였으므로 크게 중수하였고 그때 이 서원의 원장이 김조

순이었으며 순조의 장인인 영안부원군이다.

김조순은 덕잠서원의 원장을 맡으면서 예산과 인연을 맺게 되고 중수비용도 전담하였는데 자암이 명현으로 얼마만큼 숭앙받았는지도 알 수 있으며 덕잠서원은 1856년에 김조순의 아들 김좌근이 원장을 맡았다.

정만석(鄭晩錫) (1758~1834)



정만석의 묘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성보(成甫), 호는 과재(過齋), 또는 죽간(竹澗).

대흥군 이남면 소티(현 광시면 신흥리) 출생이나 묘소는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가산리에 위치하고 있어 포천군 향토유적 14호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생지인 예산에서 보다 포천에서 인물사에 더 조명되고 있다.

1783년(정조 7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그해 중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85년 성균관전직, 병조참의를 거쳐 1794년에 지평에 이르렀다. 그해 11월 양근가평어사가 된 뒤 호남호서 암행어사로 나가 명성을 떨쳤다. 1798년 영일현감으로 외보(外補)되었다. 1801년(순조 1년) 교리를 거쳐 하정사(賀正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파견되었다. 그 뒤 경상우도 암행어사를 거쳐 1803년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뇌물을 받고 대마도와의 통신서계(通信書契)를 위조한 역관을 처벌하였다. 1807년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18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발생하자 민심수습을 위하여 관서위무사(關西慰撫使)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민심수습을 위한 호포(戶布) 징수상의 문제와 논공행상의 불철저로 일시 파직되었다가 곧 평안감사가 되었다. 그는 감사로 있으면서 홍경래난과 관련 죄인들의 문초를 담당하였는데, 이 기록을 관서신미록(關西辛未錄)이라 하여 임금께 올렸다. 이것은 그가 또 계첩기략(啓牒記略)이라 하여 올린 것과 함께 조정에서 이용된 홍경래난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815년(순조 15년) 한성부판윤 이후 호조판서를 거쳐 1819년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외보(外補)되었다가 다시 경직(京職)으로 돌아와 요직(要職)을 역임(歷任)하였고, 1829년 우의정이 되었다. 외보되었을 때에는 청백리로 일컬어졌으며, 중앙에서는 국가경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호조판서, 선혜청당상이 되어 명성을 떨쳤으나 번세(煩細)에 얽매어 대체(大體)에 어두웠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현재 전하는 저서로는 관서신미록이 있다. 시호는 숙헌(肅獻)이다.

김이교(金履喬) (1764~1832)



죽리 김이교 영정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공세(公世), 호는 죽리(竹里) 본관은 안동이다.

관찰사 방행(方行)의 아들로 1789년(정조 13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 수찬, 초계문신(抄啓文臣), 북평사(北平事) 등을 거쳐 1800년(정조 24년) 겸문학(兼文學)이 되었다.

이해 정조(正祖)가 죽자 순조가 6월 즉위하고 대왕대비 김씨(영조의 계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노론 벽파가 정권을 잡고 시파를 탄압하였다. 이때 시파로서는 벽파에 의해 함경북도 병천에 유배당하고 동생 이재도 전라남도 고금도에 안치되었다.

에 안치되었다.

1806년 귀양에서 풀려나 동부승지가 되고 이조참의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1810년 10월 10일 일본통사에 임명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호조판서 심상규를 탄핵하다가 일단 나포되고 통신사도 교체하기로 되었으나, 같은 달 16일에는 다시 통신사로 재임되었다.

1811년 2월 12일 통신사로 사명을 띠고 출발하여 5월 22일 부사 이연구와 함께 대마도 부중의 객관에서 동무상사 미나미토와 부사 후지야스에게 국서전명을 거행하고 공사예단을 증급하였다. 사명을 다하고 동년 7월 3일 대마도를 떠나 부산에 도착하였고, 7월 26일에 복명하였다.

이듬해에도 대마도에 건너가서 국서를 전달하였다. 그 뒤 성균관 대사성, 사헌부대사성, 도승지, 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이조판서, 평안도관찰사,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31년 우의정에 올랐는데 이때 영의정과 우의정이 모두 공석 중이었으므로 한때 국정을 도맡아 수행했으며 글씨도 잘 썼다. 순조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저서에 『죽리집』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김이교의 묘는 예산군 신양면 죽천리에 있다.

김노경(金魯敬) (1766~1837)



김노경의 묘 (신암면 용궁리)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가일(可一), 호는 유당(酉堂), 본관은 경주이다. 조선후기의 훈척가문의 하나로 월성위 한신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판서 이주이고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며 부인은 기계유씨(杞溪俞氏)이다.

1801년(순조 1년) 선공부정(繕工副正)을 지내고 1805년 현감으로서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지평을 거쳐 승지, 이조참판 및 경상도와 평안도의 관찰사를 지냈다. 또 1819년 예조판서를 비롯하여 이조, 공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뒤 대사헌을 거쳐 1827년 판의금부사, 광주부유수, 지돈령부사 등의 요직을 거치고 사행(使行)으로서 1809년 동지부사 겸 사은부사로 1822년에는 동지사로 연경에 다녀왔다. 동지부사로 연경에 갔을 때에는 아들 김정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추사가 연경에 체류하면서 옹방강(翁方綱), 완원(阮元) 같은 거유와 접촉할 기회를 주었다. 이 시기의 연경학계는 고증학의 수준이 최고조에 달하여 점차 난숙해 갔으며 본래 경학(經學)의 보조 학문으로 존재하였던 금석학(金石學), 사학, 문자학, 음운학, 천산학, 지리학 등의 학문이 모두 독립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금석학은 문자학과 서도사(書道史) 연구와 더불어 독보적 학문분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추사의 금석학은 아버지 김노경의 동지부사 수행 때 결정적인 계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노경은 익종의 대리청정을 할 때 김로(金路), 홍기섭(洪起燮) 등과 같이 중직에 있으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이조원의 옥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1830년 지돈령부사 재직 중 삼사와 의정부의 탄핵을 받아 강진현의 고금도에 위리 안치되었다가 1837년에 죽었다. 묘소는 경기도 과천 존암리에 안장되었다가 현재는 신암면 용궁리로 이장되었다.

1857년(정종 8년)에 시원임대신(時原任大臣)의 연차(聯筭)로 신원되고 관작이 복구되었다. 글씨를 잘 써 아들인 추사 김정희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신라경순왕전비』 『신의왕후탄강구묘비』 등의 글씨를 전한다.

김려(金鑣) (1766~1821)



문학비



담정 김려의 묘 (신양면 연리 두지동)



유배중에 쓴 우해이어보 (마산시가 책자로 제작)

조선후기 문인이다.

문학적 성취도 뛰어나고 시대에 대한 깊은 눈을 가진 담정(潭庭). 그가 남긴 뜨거운 가슴과 섬세한 시정은 시공을 넘어 기억되고 있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사정(士精). 호는 담정(潭庭) 서울 노론 명문가 출신으로 성균관을 거쳐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였다.

덕산 가야동에서 각종 특권을 40여년 동안 독점 군림해 오던 병계 윤봉구 일가의 비리를 바로 잡았던 덕산 현감 김재철(金載七1737~1799)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봉구 일가의 폐해를 고심하던 조정에서 10개월 동안 덕산현감을 발령하지 못했으나 젊고 패기있는 강직한 선비 김재철을 선발해 담정 선생이 태어나던 해 영조42년(1766) 12월 28일 덕산현감으로 도임했다.

담정의 문체는 당시 정조 임금의 싫어한 ‘소품체’였다. 1797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서학을 믿는다는 죄목으로 (실제로는 소품체가 밋보여)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었고 4년 뒤에는 신유사옥에 걸려들어 진해로 유배되었다. 이후 1806년에 유배에서 풀려나 연산현감에 이어 함양군수로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

『坎窟日記』 『牛海異魚譜』 등 책과 많은 시문을 남겼으며 자신을 포함한 문인 열여섯 명의 글을 모아 『潭庭叢書』를 발간했다.

조선 후기에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연암과 다산이지만 또 한 부류를 들자면 감성적 언어와 직관으로 현실을 인식한 담정 김려(金鑣)를 들수 있다. 그리고 소품체로 유명한 문무자·이옥 등을 포함한 ‘담정 그룹’이다.

담정은 1797년 서학을 연구하던 강이천의 유언비어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고 정조 사후 오히려 형량이 더해져서 10여 년간 유배생활을 했다. 변방으로 떠돌면서 좌절할 법

도 하건만, 이 시기에 그는 권력에 대한 비판, 여성과 하층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중세적 신분차별을 넘어선 평등의식을 과격적인 시문으로 예견했다. 삶의 현장을 날 것으로 포착하면서 변방을 묘사해 낸 ‘사유악부’, 남해 어류의 생태와 인정을 묘사한 ‘우해이어보’, 신분을 넘어선 결혼을 담은 서사시 ‘방주의 노래’ 등을 남겼다.

조선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 정약용의 한문서사시 道康警家婦詞(팔려간 신부)와 조선 문단의 이단아로 불리는 김려의 한문 서사시 蚌珠歌(방주의 노래)는 최고의 걸작이다.

작품에는 여성문제, 평등의식, 계급갈등, 농민과 어민의 고난, 양반과 백정의 혼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조선후기 서사시의 자질과 완성도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했다.

최근에 북한의 고전문학자 오희복의 번역으로 담정의 주요 작품을 발췌한 작품집이 ‘글짓기 조심 하소’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토박이말로 정성스럽게 읊긴 이 책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글짓기 조심하소’는 담정이 부령 유배시절 연정을 가졌던 관기 ‘연희’가 한 말. 이미 청년기에 순정치 못한 문체로 요주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유배시절 필화를 당하기도 했지만 똑심 있게 세상과 만나는 글을 쓴 담정의 고단한 청춘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말이기도 하다.

담정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魚譜)이면서 경남 마산지역의 어류생태를 집필한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를 저술했다.

담정 김려 선생이 1803년 마산 진동에서 유배중에 쓴 ‘우해이어보’를 최근 마산시가 책자로 제작했다

근대 이전에 쓰여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보로는 ‘우해이어보’와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남아 있는데, ‘우해이어보’는 자산어보 보다 11년 정도 먼저 만들어졌다.

‘우해이어보’는 ‘물고기 족보’로서 문절망둑, 감성돔, 볼락 등 어류 53항목과 대게, 달랑게 등 갑각류 8항목, 전복, 반달조개, 앵무소라 등 패류 11항목 등 모두 72항목이 실려있다.

여기에는 각종 어류의 명칭과 형태, 성질, 분포 뿐만 아니라 잡는 방법, 조리방법, 유통과정 등도 함께 담겨 있다.

마산시는 ‘우해이어보’를 총 40페이지 분량으로 모두 1천부를 제작했으며 교육청과 학교 등에 배부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남연군(南延君)이구(李球) (1774~1822)



남연군의 묘



묘비석

조선후기의 왕족으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며 명은 구(球) 인조의 왕자 인평대군 요의 6세손이다. 그는 죽어서 연천땅에 묻혔으나 그 아들 흥선대원군은 20세에 흥선군으로 피봉 되었으나 순조, 철종비가 다 안동 김씨로 척족의 횡포에 불우한 처지에서 있던 중 풍수설을 믿고 당시의

지사 정만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덕산 가야산에 2대(二代)의 왕위에 오를 명당이 있다는 말을 실토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백제 때 창건되고 고려 때 공주 망이·망소의 난으로 불탄 후 다시 지은 가야사가 있는 자리였다. 정만인은 발설해서는 안되는 천기를 누설한 것이다.

대원군은 집요하게도 중들을 기만하여 가야사를 불살라 버린다. 그리하여 천년고찰은 불타버리고 대원군은 패기만만하게 남연군을 면례하게 된다. 행여의 운구는 통과하는 지역의 부락민을 동원하였고 최종적으로 동원된 광천리 주민에게 그 행여(남은들 상여)는 증여되어 민속자료 제31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 묘를 쓸 때 300여 푸대의 석회를 써서 오페르트의 도굴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그는 철종이 후사가 없음을 알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에 뿌리박혀 있는 풍수지리설을 이용한 것이다.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후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조대비(趙大妃-翼宗妃)와 밀계가 있어 자기 둘째 아들 명복(命福-고종)을 세자로 삼고 자기는 대원군이 되어 섭정하며 정책 결정권을 부여받았다.

그는 과단성이 있는 인물로 안동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서원철폐, 탐관오리숙청 4색등용 등 실로 조선의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했으나 결국 시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판단을 그르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반대세력들에게 밀려 하야하고 만다.

그 후 고종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2대왕을 배출한다고 예언하였던 정만인의 말대로 고종에 이어 순종으로 조선조는 망하고 만다. 남연군, 그는 예산 땅에 묻히며 한말의 풍운을, 시대적 비운을, 권력의 무상함을, 대원군의 무모했음을, 우리에게 묘만이 남아 말해준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에 이어지는 외편이 흥과 함께 쌓아 올려진 그의 무덤은 왕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좌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무모함을 또한 그 무모함이 결국 한 나라의 운명을 결단내고야 말았던 비극적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김만진(金萬珍) (1780~?)



김만진은 무한천변에 수로를 내는 데 역사를 도모했다.

조선시대의 논은 천수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던 조선의 후기에 예산땅 국사봉 아래의 무한천 변에 수로를 내는 대역사를 도모하여 오가평야에 새 농토를 개척하도록 한 인물이 김만진이다.

김만진은 오가면 노계리(지금의 오촌리)에 거주하면서 부인 광주노씨(廣州盧氏)를 맞아 혼인을 했는데 18세 신부는 우례(于禮)를 시댁에서 치르던 날 밤 기이한 꿈을 꾸다. 신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서 깊이 잠든 낭군을

깨워서 꿈 얘기를 하게 된다. 얘기인 즉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더니 「나는 이곳의 들을 맡고 있는 신령이다. 너는 복이 많은 여인으로 부귀를 누리게 되리라. 내가 오늘 밤에는 서리가 내리도록 할 것이니 그 서리를 따라 수로(水路)를 내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집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흥왕(興旺)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신랑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 대문 밖에 나가 보니 과연 마당 앞에서부터 들판으로 하얗게 한 줄기 서리가 깔려 있어서 조랑말을 타고 서리 자국을 따라 달리니 그 자국은 오가 들판이 끝나는 국사봉 아래 무한천 변에 다달아 있었다.

김만진(金萬珍)은 부모의 승낙을 얻은 다음 대동(大洞)회의를 열어 보(洑)막는 일과 수로(水路) 내는 일을 협의하고, 다음해 이른 봄부터 대역사(大役事)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예당호 제방 끝자리는 이 보가 모체가 된 것이고 그 당시의 수로는 현재도 같은 용도로 개축되어 있다.

김만진은 혼인 후에도 계속 공부하여 대과에 급제하고 끝내는 공조참판에 이르렀으며 그의 5세손 김춘서(金春叙)는 곤양군수, 부산진 방어사, 홍주목사 등을 역임했다.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추사 김정희 영정

조선말기의 문신, 서화가, 실학자로 자는 원춘(元春), 호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예당(禮堂), 시암(詩庵), 과과(果坡), 노과(老果), 천축고선생(天竺古先生) 등 백여 가지나 되었다. 본관은 경주, 정조 10년 6월 3일 신암면 용궁리에서 이조판서 김노경과 기계유씨(杞溪俞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큰아버지 노영 앞으로 출계하였다.

1819년(순조 19년)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 예조참의, 설서, 검교, 대교, 시강원 보덕을 지냈다. 그러나 1830년 생부 노경이 윤상도의 옥사에 배후조종 혐의로 고금도에 유배되었으나, 순조의 특별배려로 귀양에서 풀려나 판의금부사로 복직되고, 그도 1836년에 병조참판, 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그 뒤 1834년 헌종이 즉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그는 다

시 10년 전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어 헌종 말년에 귀양이 풀려 돌아왔으나, 1851년 친구인 영의정 권돈인의 일에 연루되어 또 다시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만에 풀려 돌아왔다. 이때는 안동김씨가 득세하던 시기였기에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과천에 은거하면서 학예와 선리(禪理)에 몰두하다가 생을 마쳤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기에하여 일찍이 북학파의 일인자인 박제가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학문방향은 청나라의 고증학 쪽으로 기울어졌다.

24세 때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연경에 체류하면서, 옹방강, 완원 같은 거유와 접할 수가 있었다. 이 시기의 연경학계는 고증학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러 점차 난숙해 갔으며, 종래 경학의 보조학문으로 존재하였던 금석학, 사학, 문자학, 음운학, 천산학, 지리학 등의 학문이 모두 독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금석학은 문자학과 서도사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경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귀국 후에는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고, 금석자료의 수탐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산순수비를 발견하고 『예당금석과안록』 『진흥이비고(眞興二碑攷)』와 같은 역사적인 저술을 남기게 되었으며,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후학을 지도하여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시켰다.

한편, 그의 경학은 옹방강의 ‘한성불분론’을 근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그의 경학관을 요약하여 천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 『실사구시설』은 경세치용을 주장한 완원의 학설과 방법론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음운학, 천산학, 지리학 등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음이 그의 문집에 수록된 왕복서신과 논설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그의 학문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불교학이다. 신암 용산의 저택 경내에 화암사라는 가족의 원찰을 두고 어려서부터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불전을 섭렵하였다. 그는 당대의 고승들과도 친교를 맺고 있었는데, 특히 백과와 초의 대사와의 관계가 깊었으며, 많은 불경을 섭렵하고 고증학적인 안목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승려들과의 왕복서간 및 영정의제발 등이 그의 문집에 실려 있다. 이와 같이 그의 학문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두루 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거유들이 그를 가리켜 ‘해동 제일통유’라고 칭찬하였으며, 그 자신도 이 미칭을 사양하지 않을 만큼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문화의 거성적 존재였다.

또한, 그는 예술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예술은 시·서·화 일치사상에 입각한 고답적인 이념비의 구현으로 교도의 발전을 보인 청나라 고증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그래서 종래 성리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보여 온 조선 고유의 국서와 국화풍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바로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예술성(특히 서도)을 인정받아 20세 전후에 이미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그의 예술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역시 연경에 가서 명유들과 교류하여 배우고 많은 진적을 감상함으로써 안목을 일신한 다음부터였다. 옹방강과 완원으로부터 금석문의 감식법과 서도사 및 서법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고서 서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했다. 옹방강의 서체를 따라 배우면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 조맹부, 소동파, 안진경 등의 여러 서체를 익히고, 다시 더 소급하여 한·위 시대의 여러 예서체에 서도의 근본이 있음을 간파하고 본받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들 모든 서체의 감정을 밑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독창적인 길을 창출한 것이 바로 졸박청고한 추사체 이다.

추사체는 말년에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완성되었는데, 타고난 천품에다가 무한한 단련을 거쳐 이룩한 고도의 이념미의 표출로서,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에 구애되지 않는 법식이 있었다. 한편, 그는 시도(詩圖)에 대해서도 당시의 고증학에서 그러했듯이 철저한 정도의 수련을 강조했다. 스



추사의 묘

승인 용방강으로부터 소식(蘇軾)·두보(杜甫)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시도의 정통과 이상으로 삼았다. 그의 시상이 다분히 실사구시에 입각한 것은 당연한 일로서 그의 저술인 『시선제가 총론』에서 시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화풍은 대체로 소식으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시·서·화 일치의 문인취미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그림에서도 서권기와 문자향을 주창하여 기법보다는 심의를 중시하는 문인화풍을 매우 존중하였다. 마치 예서를 쓰듯이 필묵의 아름다움을 주장하여 고담하고 간결한 필선으로 심의를 노출하는 문기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는 난을 잘 쳤는데, 난 치는 법을 예서를 쓰는 법에 비겨서 말하고 ‘문자향’이나 ‘서권기’가 있는 연후에야 할 수 있으며 화법을 따라 배워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서화관은 가슴 속에 청고 고아한 뜻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문자향’과 ‘서권기’에 무르녹아 손끝에 피어나야 한다는 지고한 이념의 구현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그의 예술은 조희룡, 허유, 이하응, 전기, 권돈인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서화가로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선 후기 예원을 풍미하였다. 현전하고 있는 그의 작품 중 국보 제180호인 『세한도』와 『모질도』 『부작관』 등이 특히 유명하다.



글씨



세한도

시·서·화 이외에 그의 예술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전각이다. 전각이 단순한 인신의 의미를 넘어서 예술의 한 분야로 등장한 것은 명나라 중기였으며, 청나라의 비파서도(碑波書道)가 낳은 등석여에 이르러서 크게 면목을 새롭게 하였는데, 그는 등석여의 전각에 친밀히 접할 수가 있었고, 그밖에 학자들로 부터 자신의 인각을 새겨 받음으로써 청나라의 진각 풍에 두루 통달하였다. 또 고인의 인보를 구득하여

직접 진한의 것까지 본받았다. 그의 전각 수준은 청나라와 어깨를 겨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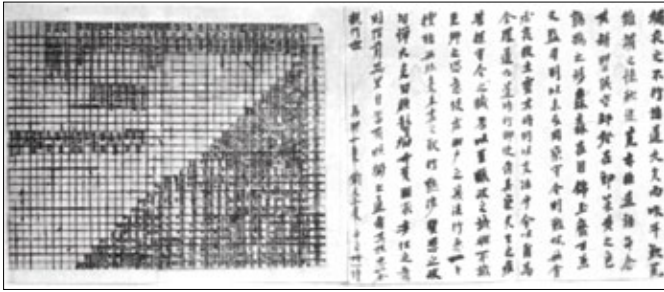
그의 별호가 많은 만큼이나 전각을 많이 하여서 서화의 낙관에 쓰고 있었는데, 추사체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독특한 자각풍인 추사각풍을 이룩하여, 졸박청수한 특징을 드러내었다. 그의 문학에서 시 아닌 산문으로서 한묵(翰墨)을 무시할 수 없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편지 형식을 빌린 문학으로서 수필과 평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그의 문집은 대부분이 이와 같은 편지글이라고 할 만큼 평생 동안 편지를 많이 썼고, 그를 통해서 내면생활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글편지까지 많이 썼다는 것은 실학적인 어문의식의 면에서 높이 평가할 일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그의 친필 언간이 39통에 이르는데 제주도 귀양살이 중에 부

인과 며느리에게 쓴 것이 많다.

국문학적 가치로 볼 때 한문서간보다 월등한 것이며, 또 한글 서예 면에서 민족예술의 뿌리가 되는 고무적인 자료이다. 한문과 국문을 막론하고 그의 서간은 학문적 가치 면에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예명을 남긴 사람들이 많지만 이만큼 그 이름이 입에 오르내린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도 학문·예술의 각 분야별로 국내의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예술가·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기를 산 신지식의 기수로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왕조의 구문화체제로부터 그의 문집은 완당척독(1867), 담연재시고(1867), 완당선생 (1868), 완당선생전집(1934)이 있다.

성수묵(成遂默) (1792~1850)



하어사 성수묵봉서



암행어사 성수묵복명서

자는 성집(聖執), 본관은 창녕이니 부사 긍주(肯柱)의 아들이다. 1825년(순조25년)에 진사에 오르고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1829년에 전라우도 암행어사가 되고 1831년(순조31년)에는 무안(武安) 현감을 지냈다. 1834년(순조34년)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837년(헌종3년)에 동래 부사가 되어 이듬해 대마도와의 외교문서를 관장했다. 1845년(헌종11년)에는 함경도관찰사가 되었고 1847년(헌종13년)에는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850년(철종1년)에는 진위겸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역시 청나라에 다녀왔고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그는 문장에 능하여 많은 저술이 남아있고 예산에 묘소가 있다.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면암 최익현 영정



면암 최익현의 묘

한말의 문신, 애국지사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菴), 대(岱)의 아들이며 경기 포천 출신이다. 6세 때 입학하여 9세 때 김기현의 문하에서 유학의 기초를 공부하였고, 14세 때 벽계에 은퇴한 성리학의 거

두 이항로의 문하에서 『격몽요결』 『대학장구』 『논어집주』 등을 통하여 성리학의 기본을 습득하였으며, 이항로의 ‘애군여부 우국여가’의 정신 즉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배웠다. 1855년(철종 6년) 명경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로 출사한 이후 순강원수봉관, 사헌부지평, 사간원정언,

신창현감, 성균관직장, 사헌부장령, 돈녕부도정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1870년(고종 7년)에 승정원동부승지를 지냈다. 수봉관, 지방관, 언관으로 재직 시 불의와 부정을 척결하여 자신의 강직성을 발휘하였고, 특히 1868년에 올린 상소는 경복궁 재건을 위한 흥선대원군의 비정을 비판, 시정을 건의한 것이다. 이 상소는 그의 강직성과 우국애민정신의 발로이며 막혔던 언로를 연 계기가 되었다.

또 1873년에 올린 『계유상소』는 1871년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흥선대원군이 그 위세를 몰아 만동묘를 비롯한 많은 서원의 철폐를 단행하자 그 시정을 건의한 상소다.

이 상소를 계기로 흥선대원군의 10년 집권이 무너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한편 고종의 신임을 받아 호조참판에 제수되었고 누적된 시폐를 바로잡으려 하였으나, 권신들은 반발을 하여 도리어 흥선대원군 하야를 부자이간의 행위로 규탄하였다. 이에 『사호조참판검진회소』를 올려 민씨 일족의 옹패를 비난하였으나 상소의 내용이 과격, 방자하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1873년부터 3년간의 유배생활을 계기로 왕도 정치적 명분이 상실된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우국애민의 위정척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 첫 시도로서 1876년 『병자지부소』를 올려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을 결사반대 하였다. 이 상소로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나 그 신념과 신조는 꺾이지 않았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칩목을 지켰다. 이 시기는 일본과의 개국 이래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운동, 청일전쟁 등 여러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국내의 정세가 복잡하였던 때였다.

특히 1881년 신사척사운동이 일어나 위정척사사상이 고조되고 있을 때 이 운동의 선봉에 섰던 그가 칩목을 지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칩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항일투쟁의 지도이념으로 성숙하게 된 것은 그의 위정척사사상이 고루한 보수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항일정치투쟁방법도 이제까지의 상소라는 언론수단에 의한 개인적, 평화적이 아닌 집단적, 무력적인 방법으로 바뀌었고 위정척사사상도 배외적인 국수주의로부터 민족의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각된 민족주의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그의 구국이념은 1895년 을미사변의 발발과 단발령의 단행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청토역복의제소(請討逆復衣制疏)』를 올려 항일척사운동에 앞장섰다. 이때 여러 해에 걸쳐 고종으로부터 호조판서, 각부군선유대원(各府郡宣諭大員), 경기도관찰사 등 요직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고 오로지 시폐의 시정과 일본을 배격할 것을 상소하였다.

당시 올린 상소는 1896년에 『선유대원명하후진회대죄소(宣諭大員命下後陳愼待罪疏)』, 1898년 『사의정부찬정소(辭議政府贊政疏)』와 재소, 『사궁내부특진관소(辭宮內府特進官疏)』의 삼소, 사소 『수옥헌주차(漱玉軒奏箚)』, 『궐외 대명소(闕外待命疏)』와 재소삼소사소 등이 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와 재소를 올려서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할 것과 망국조약에 참여한 박제순 등 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수단에 의한 위정척사운동은 집단적 무력적인 항일의병운동으로 전환되었다. 1906년 윤4월 전라북도 태인에서 궐기하고 한편으로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려 의거의 심정을 피력하고 궐기를 촉구하는 『포고팔도사민』의 포고문을 돌리고 일본정부에 대한 문죄서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를 발표하였다.

74세의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켜 최후의 진충보국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지 대마도 옥사에서 순국하였다. 그러나 그의 우국애민의 정신과 위정척사사상은 한말의 항일의병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 계승되었다. 그의 학문은 위정척사운동에 비하여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그는 성리학에 기본을 두고 있는 이항로의 학문을 이어받고 있었으나 이기론(理氣論)과 같은 형이상학적 관심보다 애국의 실천도덕과 전통질서를 수호하는 명분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이기론은 이항로의 설을 조술하고 스승의 심전설을 계승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이념은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둔 실천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구국애국사상으로, 또 민족주의 사상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었다. 여기서 위정척사사상의 역사적 역할과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저서는 『면암집』 40권, 속집 4권, 부록 4권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최익현의 묘소는 본래 1907년 논산군 노성면의 국도변에 있었으나 일제의 강요로 1910년 광시면 관음리로 이장되었고 춘추대의비가 세워졌다.

제향은 청양 모덕사(慕德祠)와 포천, 해주, 고창, 곡성, 순화, 무안, 함평, 광산, 구례 등에서 봉향되고 있다.

이문수(李文秀) (1840년대 전후)



이문수가 건립한 일산이수정 (신양면 서계양리)

신양초등학교가 설립되던 때 그 개교의 첫교실이었던 일산이수정(一山二水亭)을 건조(建造)했으며 이곳(현재의 신양면 서계양리)에 세거(世居)하는 명문가(名門家) 전주이씨의 후손이다.

이문수는 신양면의 달천(達川)과 죽천천(竹遷川)이 합류, 격양촌(擊壤村)에서 내천(奈川)을 이루어 서류(西流)하여 예당호로 흘러가는 합류지점의 작은 바위봉우리 위 노목 숲속 경치좋은 곳에 기와

지붕의 정자를 짓고 1849년 추사 김정희선생을 초대한다. 이유인즉 정자 이름을 짓고 현판 휘호를 간청하고자 함이었을 것이며 추사를 초빙한 이문수는 4~5일간 추사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이때는 추사가 제주도 귀양에서 9년만에 풀려난 다음해였다. 문헌에 보면 이문수를 옹(翁)이라 칭했고 추사는 당년 65세였으니 서로 비슷한 연령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추사는 3~4일에 걸쳐 정자 이름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짓고 4~5매를 썼다. 그런 다음 이를 모두 벽에 붙여놓고 앉아서도 바라보고 누워서도 바라보고 하더니 떠나던 날 그중의 한 장만 주인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주머니에 넣고 갔다고 전해진다.

추사는 정자의 이름을 일산이수정(一山二水亭)이라고 짓고 한자(漢字)로 “一”자와 “山”자를 아래위로 겹쳐 “山二水亭”으로 엮어서 단순한 첫글자 “一”자와 복잡한 끝글자“亭”자와의 균형을 유지해서 종이에 휘호했는데 그 후 근동(近洞)의 학인(學人)들이 이 정자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시도 짓고 풍류도 즐겼다.

문장로(文章魯) (1846~1919)



문장로의 묘 (광시면 장신리)

태안 원북면 방갈리에서 1893년 2월 초 상암 박희인을 통해 같은 동네 조운삼과 아들 구석(龜錫)과 함께 동학에 입도하여 적극적인 포덕활동을 펼쳐 방갈리 접주가 되었다. 북접 내포지역 동학혁명의 횃불을 밝혔던 방갈리 기포의 주역이었다. 예포의 기포령에 의해 30여인의 동학 두목을 구출하기 위한 비밀 회의를 방갈리 자택에서 모의한 후 태안관

아로 직결하여 동학 두목 30여인을 구출하고 태안 관아를 점령하였다. 여세를 몰아 면천 승전곡전투, 신례원 관작리 전투, 홍주성 전투에 많은 태안지역 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했다.

1894년 10월 29일 홍주성 패퇴 후 천신만고로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당도하였으나 이미 관군의 지목 인물이 되어 체포령이 내려져 전 가족이 뿔뿔히 흩어져 태안 반도 일대 해안 토굴과 야산에 은신하였다 계속되는 추격에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자 아들인 태안 접사 구석(龜錫)은 부친을 위해 대신 죽기로 작정하고 대도발전(大道發展)과 충효를 생각하여 “내가 대신 죽겠으니 아버님을 살려 달라” 고 애원하면서 자진체포되어 11월 16일 태안에서 총살당했다.

문장로는 재산을 처분할 시간 조차 없이 구호물만 간신히 챙겨 1895년 태안군 이원면 만대정씨 집으로 피신하고 가족들은 소원면 의항리 막골 조모 친가로 피신시키고 이후 소원면 소근리 철마산 산중에 토굴을 파고 8년 여를 태안지역 산중일대를 피신생활 하면서 예포동학 조직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1900년 경자년 동학지도부들이 내린 조직강화 밀명을 받고 태안 수접주로 봉임되어 조석현,곽기풍, 이광우 등과 함께 비밀리에 조직 재건에 활약한다.

1902년 1월 공주 부의 이민직은 “동학도인은 물론 태안 문장로와 가족을 체포하면 상금을 포상한다”는 방을 붙이고 대대적인 색출작전을 실시하자. 2월 7일 밤에 이원면 만대 산중해안토굴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생사를 하느님께 의지한다. 대도(大道)를 위하여 꼭살아야 한다. 세업가산탕진(世業家産蕩盡)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자. 이 밤으로 사지(死地)를 벗어나야 산다”고 말씀하시고 목선을 구하여 천우신조로 안면도-원산도를 거쳐 2월 9일 광천에 도착하였다.

2월 10일 홍성군 홍동면 화신리 “홍거미” 김명수(金明洙)씨 안내로 산중에 토굴 움막을 지어 변성명(變姓名)하고 은거하다가 신분이 노출 될 위험이 있어 1904년 2월 공주군 사곡면 “연진동” 인적없는 산중으로 피신하였으나 관의 지목이 있어 1908년 정월 공주군 신상면 장천리 산중으로 숲장수로 변신하고 토굴에 은거했다.

1910년 경술국치로 동학관련자에 대한 지목이 느슨하자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무한천변 갈대밭으로 이주하여 불모지를 개간하고 천도교 포덕활동 및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다 1919년 9월 환원하셨다. 묘소는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에 있다.

박창로(朴昌魯) (1847~1918)



홍주의병 기념비

한말의 의사(義士)로 자는 덕순(德順)이고 호는 이은(二隱)이며 본관은 울산이며 아버지는 박영(朴橫)이다.

1807년 5월 12일 광시면 은사리 오류동에서 태어났으며 청소년기에는 의협심이 강하고 언변이 능하였으며 과거에 뜻을 두고 수학하던 선비였다.

1894년 동학란을 진압한 일본군은 철군하지 않고 한국의 내정개혁을 강제로 실시하고 1895년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살해되자 이를 일제에 의한 반역행위로 단정하고 홍주부 소속인 22개군(홍주, 결성, 정산, 덕산, 대흥, 예산, 보령, 청양, 서산, 해미, 당진, 면천, 태안, 한산, 서천, 비인, 남포, 홍산, 임천, 신창, 아산, 평택)을 중심으로 한 유생들이 전승지(前承旨) 김복한(金福漢)을 총수로 하여 반개화(反開化) 반침략 투쟁을 벌였다.

1895년 11월 28일 박창로를 비롯한 홍주일대의 유생 100여명이 청양 화성에서 향회(鄉會)를 열어 군사행동을 결의하고 180여명의 민병을 모집하였다. 이때 전직 관료인 승지 김복한, 이설 등이 참여하여 사기를 북돋았다. 그리하여 김복한을 총수로 추대하였다. 그는 통문을 띄워 호당 1인의 의병을 응모하도록 요청하니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관찰사 이승우의 관군한테 주모자가 체포되어 1차 의거 계획은 실패하였다.

1895년 11월 28일 박창로를 비롯한 홍주일대의 유생 100여명이 청양 화성에서 향회(鄉會)를 열어 군사행동을 결의하고 180여명의 민병을 모집하였다. 이때 전직 관료인 승지 김복한, 이설 등이 참여하여 사기를 북돋았다. 그리하여 김복한을 총수로 추대하였다. 그는 통문을 띄워 호당 1인의 의병을 응모하도록 요청하니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관찰사 이승우의 관군한테 주모자가 체포되어 1차 의거 계획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김복한, 이설 등은 개화정책과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고 박창로, 안병찬, 채광묵 등은 의병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정산에 거주하는 전참판 민종식(前參判 閔宗植)을 찾아가 총수의 책임을 맡아주기를 청하였고 민종식은 이를 수락하고 전답을 팔아 5만 냥의 군자금을 만들었다.

1906년 1월 26일 의병들은 홍주성을 함락시키기로 하고 광시장터에 모였는데 3천여 명이나 모였다 한다. 조직은 창의대장 민종식, 종사관 홍순대, 중군사마 박창로, 행군사마 안병찬, 유희장 유준근, 우량관 성재환 등이다.

이들은 홍주성을 향하여 진격하였으나 관군이 저항하자 대부분 해산하고 광시로 되돌아 왔다가 홍주관아를 진격하기 위하여 청양군 비봉면 묵방에 이르렀으나 공주병력과 정병이 오고 있다는 척후의 보고를 받고 도중에 화성으로 진로를 바꾸어 화성장터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의병을 추격하여 온 공주병력은 묵방에서 흔적을 발견하고 화성으로 진격하여 의병군의

부근에 매복하였다. 이어 밤이 되어 총격을 가하자 의병들이 다투어 도망하고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거나 산간벽지로 숨어들었다. 이때 안병찬, 박창로 등 40여명이 체포되어 공주관찰부로 압송되었다가 4월 12일 석방되었다.

민중식은 탈출한 후 다시 재기하여 홍주성을 점령했으나 80여명의 전사자와 130여명의 포로를 남기고 다시 빼앗겼다. 박창로는 홍주의병의 실패 후 분함이 맺혀 병을 얻어 1918년 11월 1일 72세에 고향에서 죽었다.

묘는 광시면 오류동에 있었으나 광복 후 대전국립묘지로 이전하였다.

경허(鏡虛)(1849~1912)



경허 영정

경허 성우(鏡虛 性牛, 1849~1912)선사는 수덕사 만공월면의 스승으로 조선말기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중흥조로 출현하여 무애자재로운 생활속에서 전등의 법맥을 이으며, 선불교(禪佛敎)를 진작시킨 선의 혁명가이자 대승(大乘)의 실천자였다. 스님의 법명은 성우(性牛), 법호는 경허(鏡虛)이다. 9세 때 경기도 과천 청계사로 출가하여 계허 스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절에 와 있던 어느 거사에게서 사서삼경을 배우고 기초적인 불교 교리를 익혔다.

이후 동학사의 만화강백에게 천거되어 불교경론을 배우니 그는 불교의 일대시교(一代時敎)뿐 아니라 유서(儒書)와 노장(老莊)등의 사상을 고루 섭렵하였다. 어느날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문자공부가 죽음의 두려움을 조금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오로지 영운선사의 “나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던 중 “소가 되어도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라는 한 사미의 질문에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

이때부터 육신을 초탈하여 유유자적하였다. 그후 천장암에서 1년간 보림 후 활연대오하니 생사에 자재(自在)하였으며 56세에 만공에게 전법계를 전한 후 비승비속(非僧非俗)의 생활로 말년을 보냈던 스님은 1912년 4월 25일 함경도 갑산 웅이방 도하동에서 입적하니 세수 64세, 법랍 56세였다.

경허 스님은 전국 곳곳에 선원과 선실을 개설하여 불교계에 선수행의 풍토를 조성, 선풍을 진작시켰고 스님의 문하에는 만공(滿空), 혜월(慧月), 수월(水月)등이 있다.

이남규(李南珪) (1855~1907)



수당 이남규 영정



이남규 고택 (대술면 방산리)



평원정

한말의 문신이며 의사(義士)로 자는 원팔(元八), 호는 산좌(汕左), 수당(修堂), 서울 미동에 서 출생하였으며 대술면 방산리에도 거처가 있었다. 호직(浩植)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청송심씨(淸松沈氏)이다.

1861년 허전(許傳)의 문하에 들어가 일찍이 유학으로 이름을 떨쳤다. 1875년(고종 12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883년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에 올랐다. 1885년 홍문관교리에 임명되고, 그뒤 사간원정언, 후영군사마 부수찬, 사헌부장령, 지평, 부응교, 장령, 집의, 장악정, 사간 등을 역임하고 1893년 승정원동부승지, 첨지중추부사를 지냈고 1894년 형조참의에 이른다. 이해 5월 일본공사 오오도리(五鳥圭介)가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자 상소를 올려 일본의 무도함을 규탄할 것을 요구하였고, 갑오경장의 부당성과 명성황후의 시해에 대한 통분함을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영흥부사의 직을 사임하고 향리인 대술 방산으로 돌아왔다. 민비시해와 단발령으로 촉발된 의병운동은 영남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국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영남이 남인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여 남인계통인 이남규를 안동관찰사로 임명하여 의병해산의 임무를 부여하고 영남지역을 회유하려 하였다. (주: 황현의 매천 야록 참고) 그러나 이미 안동부는 의병이 점령하여 상주에서 업무를 보았다. 그 후 1878년 중추원의 관을 지내고 1899년 가선대부에 오르고, 1902년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그 후 함경남북도 안렴사, 비서승을 역임하다 우국충정의 상소문을 올리고 낙향하였다.

1906년 병오의병 당시 민중식이 주도한 홍주의병에 선봉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참여하지 않았고 홍주의병이 패한 후 민중식 등이 은신을 요구하자 숨겨주었으며 이 일로 인하여 의병과 관련이 있다 하여 공주 옥에 아들과 함께 투옥되었으나 얼마 후 석방되었다. 공주에서 석방

된 뒤 며칠 후 홍주에 출정했던 일본병 100여명 한테 이남규 부자는 압송당하며 오형제 고개 넘어 온양 평촌 냇가에서 살해 당하였다. 이때 그의 아들 충구는 그 아버지의 몸을 가리다 죽고, 교구꾼 김응길도 대항하다 모두 함께 죽었다.

그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났고, 특히 고문(古文)에 능하여 그가 올린 『청토적소(請討賊疏)』 『청절왜소(請絕倭疏)』 등은 명문이며 잡저속의 『기삼비사(記三婢事)』도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글이다.

그의 사상은 성리학적 전통질서를 재정립하여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주자학적인 이단배척의 이념에서 비롯된 위정척사론에 바탕을 두었다 하겠다. 그 당시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던 주도 세력들은 보수적인 유학자나 전직관리들이었으나 그들은 도덕성과 명분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민족정기를 높이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근대사상사에서 높이 평가된다.

수당은 그 후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수여되었다.

묘소는 대술면 방산리에 있으며 그의 고택이 보존되어 있다.

박인호(朴寅浩) (1855~1940)



춘암 박인호



유허비 (삼교읍 하포리)



독립기념관 추모공원의 어록비

1855년 밀양인(密陽人) 박명구(朴命九)와 온양방씨(溫陽方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호는 춘암(春菴), 출생지는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이다.

29세때 동학에 입교(入敎)하여 중년에는 동학(東學), 후반기에는 천도교(天道敎)에 몸을 담아 일제(日帝) 식민지의 한을 민족의 개명(開明)과 개화(開化)를 하는 데에 두고 육영사업(育英事業)에 몸을 바쳤다.

동학이 초대 교주 최제우(崔濟愚)에 이어 2대 교주(敎主) 최시형(崔時亨)에 이르러서 최시형이 동학혁명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자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고 박인호는 동학혁명(1894) 때에 7,000명의 교도를 이끌고 예산-홍성 등지에서 활약했다. 1908년 54세로 교주(敎主)를 승계한 박인호는 3.1운동 때는 손병희를 도와 천도교 측 독립 투사들의 연락에 힘쓰며 48인의 한사람으로 활약했다.

박인호는 민족계몽운동에 전력(全力)을 쏟아 문자매체(文字媒體)의 대중화를 위해서 보성사(普成社)를 창설하여 문화의 대중화에 힘쓰고 잡지(雜誌) 「개벽(開闢)」을 발간하여 지식인의 교화(敎化)에 힘쓰고 또한 「농민(農民)」을 발간(發刊)하여 농촌(農村)의 문명화(文明化)에 힘썼다. 또 「어린이」를 발간(發刊)하여 민족개조(民族改造)의 대역사(大役事)를 소리 없이 진전(進展)시켜 나갔다. 계몽사업(啓蒙事業)의 대중(大宗)은 육영(育英)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은 공(公)은 학교(學校)를 세우기로 결심하여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 보성소학교(普成小學校)를 인수(引受)하여 경영(經營)하고 동덕여학교(同德女學校)를 설립(設立)하였다. 신간회(新幹會)를 창설(1927년)함에는 그 아들 말홍(末弘)씨를 잃는 아픔도 겪고 무인멸왜운동(戊寅滅倭運動 : 1938)은 일제침략(日帝侵略)에 민족항쟁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여준 사건의 하나라고 하였다.

이근주(李根周) (1860~1910)



이근주는 이응노의 작은아버지. 사진은 이응노 생가

한말의 의사(義士)로 자는 문약(文若), 호는 청광(淸狂),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청광은 1860년 2월 3일에 출생하였다. 그는 효도와 우애로 가정에 충실하였으며 신의를 중히 여기고 집이 가난해도 아침하거나 비굴하지 않았다.

1895년(을미) 민비(명성왕후)일파의 친러적 세력을 없애기 위하여 일본공사 미우라 등이 변란을 일으켜 명성왕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우라는 흥

선대원군을 받들고 훈련대 장병 및 일본인 자객을 앞세우고 경복궁으로 쳐들어와 호위병을 죽이고 다시 궁내부대신 이경식과 연대장 홍계훈을 살해하고 옥호루에서 민비를 살해하고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살라 버린 사건이다.

이는 국내외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단발령과 함께 민심을 크게 흔들어 의병이 각처에서 봉기하게 되었다. 이에 홍주지역에서도 의병활동이 있어 관찰사에게 글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켜 역도를 토벌할 것을 말하고 김복한 등이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관찰사의 금지로 모두 잡혀갔다.

이때 이근주는 모병하려고 외지에 있다가 이 변을 보고 자진하여 출두하려 하였으나 어머니와 두 형이 말려 실행하지 못하였다. 경술국치인 한일합방을 접하자 자결하려고 했으나 백씨의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아 미루었다. 당진 우거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었으나 결국 1910년 9월 18일 자결을 결행하였다.

묘는 덕산면 낙상리 진과정(眞果亭)에 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유림들의 공의가 일어 비석을 세워 이근주 의사의 공적을 기렸다.

문장준(文章俊) (1861~1945)



문장준의 묘 (도고면 효자리)



문장준이 효자리에 처음 정착해 사용한 우물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서 남평문씨 성길(成吉)의 장남으로 1861년 10월 14일 출생했다. 1894년 2월 상암 박희인으로부터 동학을 전수받아 이때

부터 포교활동을 하였다. 방갈리 집주 문장로와 8촌간이며 조석현의 아들 명승(明承)이 사위이며 육임의 직임 중에 도집(都執)을 맡고 있던 중 갑오년 9월 그믐날 방갈리 기포 모의를 장로와 함께 주도했다.

홍주성에서 대패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목욕리(沐浴里)에 퇴거했다가 민보군과 일본군의 추격이 뒤따라오자 천신만고 끝에 농민군을 이끌고 고향으로 와 해산 피신하였다가 11월 15일에 관군이 민보군을 앞세워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체포되었다. 서산으로 이송되었다가 해미성으로 잡혀가 10여일동안 추위와 기갈로 고생하다 관군 지휘관인 이범서(李範緒)에 의해 천우신조로 문장권과 함께 풀려나 3일 동안 유리 걸식하며 본가로 돌아왔다. 그러나 민보군의 끈질긴 색출처형이 극심하자 가족의 목숨을 도모할 수 없어서 김선여(金善汝), 김성칠(金成七), 강운재(姜雲在), 김명필(金明弼), 김황운(金黃雲) 등과 식솔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도피하였다.

그는 1895년에 숙부 댁에 몰래 잠입하여 흩어진 동학교도 소식을 파악하고 박덕철의 밀지를 전달하던 조석현과 함께 동학도인의 규합을 위해 여러 포중을 돌며 도리강론을 했으며 향후 대책을 긴밀히 논의하였다.

보은 갈목리에 피신중인 상암 박덕철의 집안물품과 먹거리를 조달해주었다. 1897년 박덕철의 공문과 2백여의 교첩을 가지고 각 지역 두목이 모인 동해리 조석훈 집에서 교수(教授)에 피임되었다. 1909년 11월부터 태안 대교장 조석현씨 대신 관내 대소사를 총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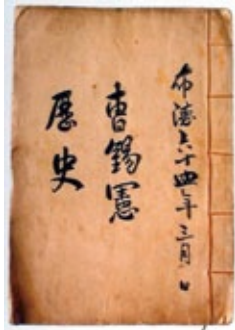
1911년 1월에는 온양 동변리에서 11명이 모여 49일 참성(參聖)공부를 했다. 1913년 중앙시천교로 귀거했다가 병진년(1915년) 중앙시천교가 흩어져 천도교로 돌아왔다.

후손들에게 전해오는 문장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증손자 문형식의 말에 의하면 “증조부께서 효자리로 정착하여 살고 계실 때 집을 가려면 항상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어

느 날 밤에 증조부께서 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돌팍내라 부르는 냇가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신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랑이 입에 비녀가 박혀 있어 증조부께서 비녀를 뽑아 주었더니 호랑이가 등에 태워 집까지 증조부를 태워다 주었다”는 동화적인 이야기가 전해오는 데 사실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문장준은 갑오년 이후 원주 전결언리에 은신하고 있던 해월 최시형 선생과 다부리에 있던 상암 박덕칠등의 동학지도자들에게 은신생활에 필요한 먹거리를 대 주었으며 그 후 천도교 의식행사에 소를 잡아 봉물로 받칠 정도로 많은 활약을 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면서도 천도교를 위해선 심지어 이불, 옷까지도 보태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한 인물이었다.

조석헌(曹錫憲) (1862~1931)



조석헌의 북점일지2호 표지



북점일지2호 내용



역사 북점일지 3호 내지

본은 창녕 계은(繼殷)의 10세손이며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서 1862년 11월 14일 사남(四男)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 응진(應振)은 종 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직을 지냈으며 그의 조부는 윤복(允復)이며 호조참관을 증직 받았다. 석헌은 동학혁명 발발이 전에 경주 최씨 인수(仁秀)의 딸 최헌자(崔憲子)와 결혼하여 딸 셋을 두어 셋째 형 석훈(錫勳)의 이남(二男) 명승(明承)을 양자로 삼아 후사를 이었다. 석헌의 장녀는 박희인의 장남 문규와 결혼했으며 삼녀인 열승은 서면 접주 변봉호의 차자 변판국(삼교 송산리)과 혼인하였다. 1893년 계사년에 예포 대접주 상암 박희인으로부터 동학에 입교하여 파도접주로 활약했다. 방갈리 기포에 참여하여 태안 서산 관아 점령을 적극 주도했으며 면천 승전곡 전투 관작리 전투, 홍주성전투 까지 참여했다. 홍주성 전투 패퇴 과정에서 진중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방황하다가 우연히 상암 박희인을 만나 함께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조석헌은 그의 동학혁명 참여와 활동 및 도피등에 대한 기록을 생생하게 회고체 일지로 남겼는데 제1권은 1894년~1908년 이전까지의 기록이고 제2권, 3권은 1909년~1931년까지의 기록이다.

조석헌 북점일지는 내포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참여인물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내포 동학혁명사의 복원과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내포되어 있다. 그의 형 주암 조석훈씨도 김기태(金基泰)와 함께 경성감옥에서 3년 옥고 만에 1903년 3월 2일 석방되었다.

조석헌은 관의 지목이 심해 도피 생활중에 1903년 1월 27일 처남 사망, 동년 2월 2일 장인 사망, 닷새 후인 2월 7일 작은 처남이 사망하는 줄초상을 겪기도 한다.

이영규(李榮圭) (1863~1915)



이영규

천도교 예산교당 도정 수암 이용우의 조부 이영규(변성명 聖天. 족보명 天凡. 도호는 靈庵)는 1863년(계해) 12월 14일에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에서 출생하였다. 체구가 장대하고 성품이 청렴했으며 용기가 있어 타인의 시비에 명변하고 중인의 집회와 설득에 능하여 동학 당산포(堂山包)로 조직활약 하였다. 원북면 방갈리 동학도우 김상배의 매씨와 혼인하여 함께 동학혁명에 참여했다. 관작전투에서 대승하고 홍주성전투에 참여 빙고치 부근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여 성 공격을 감행했으나 왜군의 신무기에

당할 수 없어 수많은 동료를 잃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생명을 보존하였다. 후퇴하여 당산리 생가인 배나무안집에 귀하였으나 동학군을 체포하여 대창과 작두로 무참하게 살육하니 목선을 타고 여러 도인들과 함께 바다로 피신했지만 풍랑이 심해 항해할 수 없어 안면도 해안가에 대피했다가 새벽에 광천나룻배 턱에 상륙하여 보부상으로 위장하여 호구책과 서로 연락하면서 천안 광덕산 만복굴에서 움막집을 짓고 정착하였다. 이곳에서 철점을 설치하고 술장사로 연명 하면서 목천 일대를 다니면서 동학비밀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 지목이 뜬한 1905년경 함께 피신했던 교인들과 함께 은신에서 벗어나 무한천변인 탄중리로 옮겨 중앙본부 의암 손병희, 춘암 박인호 등의 명을 받들어 동학포덕사업과 갑진개화운동을 펼쳐나갔다. 농민군의 집단 정착지 탄중리가 동학재건 및 항일 애국 독립운동의 단초를 연 본거지가 되었다.

왜경의 지목이 날로 심해지는 탄중리에서 왜경은 총으로 무장한 일인 괴한을 보내 애국운동의 선구자인 이영규를 무한천 모래 둔치로 끌고가 1915년 12월 24일 무참히 살해했다. 이때 영암 이영규의 나이 52세이니 슬하에 2남을 두었는데 장자가 10세의 나이로 동춘(同春)이요 자는 회환(會還)이며 도호는 동암(同庵)이다. 차자는 동선(同仙)이요 자는 회문(會文)이며 도호는 선암(仙庵)이다. 동춘은 부친의 피습광경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총명이 남달리 영리한 동춘은 후일 어렸을 때 사건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 후손들은 동학정신과 애국운동의 뜻을 펼치다 돌아가신 영규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사상의 정립과 세계인류의 평화 실현과 후천개벽을 발현시키 위해 동학의 맥을 잇고 있다.

영규할아버지에 대한 증거자료 유물은 탄중리 99번지에 살 때 주택이 낮아 장마에 침수되어 귀중한 가보자료인 도첩(道帖)기록 및 가게 등이 유실되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후일 가게는 태안 만대까지 더듬어 족보편집인 회인(會仁)을 찾아가 확인하여 가게를 잇고 있다.

김용우(金溶禹) (1868~)



호서은행 (예산읍 소재)

자(字)는 진섭(鎭燮) 호(號)는 성제(省齋)로 45세 상업은행 중역(重役)이 되었고 48세에 호서은행(湖西銀行)을 창립하여 다년간 두취(頭取)로 활약하였으며 거액(巨額)을 예산농촌훈련소에 기부하였다.

오대산(五臺山) 월정사(月精寺)에 건립되어 있는 그의 송덕비명(頌德碑銘)의 말미(末尾)를 아래에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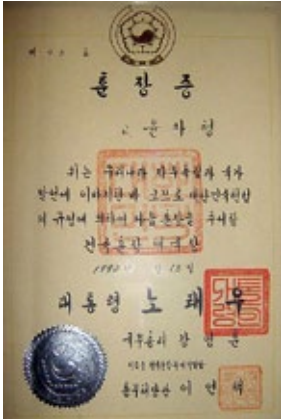
공(公)의 업적에 초인적인 면을 여섯 가지로 꼽을 수 있다.

- 부(富)하면 어질지 않고 어질면 부하지 않다고 했는데 공은 부하고 어지니 그 첫째요.
-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모은 것을 쓸 수가 없는데 공은 모으고 나누어 주니 그 둘째요.
- 세상에서 베푸는 사람은 일생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보시함으로써 큰 금액이 되는데 공은 한번의 승낙으로 큰 보시를 하니 셋째요.
- 새것을 갖지 않고도 그 옛날 땅을 돌려받아 세조의 공이 없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그 넷째요.
- 토지가격이 전에는 낮았지만 지금은 높게 되었으니 사찰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실제로 새 것보다 두 배가 된 것이 그 다섯 번째요.
- 여러 정골(頂骨)을 위해 희사하였으니 조선불교 전체를 수호하여 공덕이 바르고 평등하게 한 것이 그 여섯 번째이다.

믿음의 길이 돈독하지 않으면 이(利)에 밝음을 얻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공의 부인(夫人)은 인동(仁同)장씨로 범명이 무학행(無學行)이었으며 진실한 자비보살로 큰 방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 두 동생 용하(溶夏)와 용태(溶泰), 두 아들 성권(星權), 흥권(興權)도 모두 당세의 어질고 신망 있는 선비 였다.

윤자형(尹滋亨) (1868~1939)



윤자형의 건국훈장 애국장

일명 자신(滋新)·내경(來卿)·태신(泰申).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천리 출신. 1891년(고종 28년)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을 지냈다. 병서와 경서를 두루 섭렵한 문무겸전의 지장(智將)으로 활약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될 때 동지를 규합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 을사의병전쟁을 진두지휘하였다.

고종은 1908년 7월 7일자로 옥새를 찍어 조칙을 내렸다. 고종은 특사를 시켜 윤자형을 가의대부 의병대장 겸 삼남도육군대도독(嘉義大夫義兵隊長兼三南道陸軍大都督)으로 삼고 남삼도대원수군제사목(南三道大元帥軍制事目) 전12개조를 지어 시행하도록

독려하였다.

12개조의 주요내용은 “삼도의 군량대사 작전권을 윤자형 의병대장에게 일임한다”면서 윤자형은 단을 쌓아 하늘에 고하고 임진.병자 의병의 순국정신을 본받아서 석인을 새겨 쓰고 장관(將官)들을 임면하며(인사권 부여), 장병과 백성을 위무하고 상벌을 엄정, 신속하게 하되 태만자, 비협력자, 백성의 권익을 침범하는 자는 바로 참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공이 있는 자는 기록, 포상하라고 명령하였다. 또 사술(邪術)에 현혹되지 말고 주식(酒食)을 금하라고 명령하였다.

1930년대는 전라남도 광주 무등산에서 동지를 규합, 원각교(圓覺教)를 개창하여 민족종교로서의 기능을 하다가 예산 향리에서 죽었다.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묘는 예산읍 관작리에 있다.

만공월면(滿空月面) (1871~1946)



만공의 모습



덕숭산 중턱의 만공탑

수덕사의 승려로 속성과 이름은 송도암(宋道岩)이고 법호는 만공(滿空), 법명(法名)은 월면(月面)이며 본관은 여산(礪山)이다.

1871년(고종 8년) 전북 태인읍 상일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신통(神通) 어머니는 김씨였다.

13세때 금산사에 간 것을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고 그해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전주 봉루사, 송광사를 거쳐 15세때(1884) 공주 동학사로 가 진암노사(眞岩老師) 밑에서 행자(行者) 수련을 닦았다. 그때 선평진작운동(禪風振作運動)을 벌이던 경허(鏡虛)선사를 만나 천장사로 가 태허(太虛)선사를 은사로 하고 경허선사를 계사(戒師)로 하여 정식출가하였다.

1895년 7월 25일 은양 봉곡사에서 오도송(悟道頌)을 지었다. 이어 마곡사, 서산 부석사 등에서 수도하고 양산 통도사 백운암을 거쳐 홍성 천장사로 다시 돌아왔다.

1904년 천장사에서 경허선사로부터 만공(滿空)이라는 호를 받았으며 1905년 봄에 덕숭산 중턱에 금선대를 짓고 거처를 옮겨 정혜사 선방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1919년 삼일운동에 만해와 함께 참가하였고 1920년 정혜사에 능인선원(能仁禪院)을 개설하여 선평진작운동을 전개하면서 정혜사 위에 견성암(見性庵)을 짓고 최초의 비구니(比丘尼) 선원을 개설하여 여승(女僧)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서 정혜사는 한국 선종의 중흥지로 크게 각광받아 비구, 비구니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다. 만공선사는 금선대 아래에 소림초당(少林草堂)을 지어 이곳에서 기거하였다

수덕사가 이왕가(李王家) 소유로 등재된 것을 알고 의친왕과 교섭하여 수덕사 명으로 옮겨 놓고 퇴락한 수덕사를 확충하였다. 1937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전국 31본산 주지와 각도 도지사 등이 참여하고 일본 총독이 주재한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에 예속시키려는 회의에 마곡사 주지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전총독(寺內正毅)은 조선승려로 하여금 일본승려를 본받아 대처(帶妻), 식육(食肉), 음주(飲酒) 하도록 하여 파계시킨 대죄인이지금쯤 아마 무간아비지옥(無間阿鼻地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지옥에서 구하고 조선불교를 진흥하는 것은 오직 승려들이 수행을 엄격히 하고 용맹정진하여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길 밖에 없다. 총독부는 조선불교를 간섭치 말고 우

리 조선 승려들에게 전부 맡기도록 하라. 이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립의 개명한 문화정치일 것이다』라고 외쳐서 조선불교를 지켰다. 또한 수덕사 대웅전을 해체하여 국내 최고(最古) 건물임을 밝혔다.

1941년 서울 선학원에서 고승대회를 열어 조선불교의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수덕사 대종불사(大鍾佛事)를 일으키고 1942년 스승 경허선사의 문집을 만해와 편찬하였고 간월암에서 천일기도를 하였다.

1946년 10월 20일 속세 75세, 출가한지 62년에 열반하였다.

문구석(文龜錫) (1872~?) 과 부인 최장수(崔長壽) (1872~1951)

문구석 접사는 1872년 5월 12일 출생했다. 부친은 문장로이며 어려서부터 효심이 극진하고 문장이 뛰어나 집안 어른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1893년 2월 초 예산 박덕철로부터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의 교리와 사상관(思想觀)을 이해하고 부패한 조정과 탐관오리의 횡포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외세 열강의 조선 침탈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길은 동학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부친과 함께 방갈리 갈머리 자택에서 비밀리에 모여 수시로 정세를 의논하고 모의를 했다. 10월 1일 방갈리 기포를 주도하기 위해 접주 문장로, 기수대장 안인묵, 북부대장 이치봉 등을 정하여 예포본포의 철성신호로 들불처럼 일어나 태안관아로 진격하였다.

이른바 내포지역 10월 혁명의 시작을 알렸다. 문구석은 홍주성 패퇴 후 해미성 전투에서도 패한 뒤 태안 백화산으로 피신 후 다시 방갈리로 들어왔으나 무자비한 소탕작전을 펼치는 관군은 이미 관의 지목 대상자였던 부친을 체포하려고 방갈리로 들어 닦치자 부친을 살리려고 대신 체포되어 11월 16일 태안에서 총살당했다. 그는 당시 22세였다. 이 소식을 들은 문구석의 부인 최씨는 5일이 지난 밤에 남편의 시신을 찾고자 처형장인 태안 백화산까지 걸어가서 나무에 묶인 채 총살당한 남편시신을 발견하고 머리에 이고 삼십리 길인 방갈리 집으로 돌아와 부엌 나무 간을 파서 남편시신을 가매장 했다. 당시 농민군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도 동학교도로 몰아붙여 학살을 자행하던 때다. 이때 부인의 나이 22세, 죽은 남편과 동갑나이였다. 꽃다운 나이에 최씨 부인은 홀로 되어 파란많은 인생 역경을 겪는다. 이후 부인은 관군에게 체포되어 태안군 관아 노비로 강제 구속되었다가 시동생 문병석의 노력으로 풀려나 시부모를 모시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탄중리에 정착하였다. 1951년 2월 10일 비분의 역사를 남기고 한평생 세월을 품은 채 돌아 가셨다. 최장수 할머니는 1892년 12월 28일 동학에 입도했다.

조인원(趙仁元) (1875-1950)



야운 조인원

선생의 휘는 인원(仁元)이요 자는 백효(伯孝)이며 호는 야운(治雲)으로 부친종호(鍾灝)공과 모친 평산신씨(平山申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을해년[1875] 덕산현 내야면 시묘동(侍墓洞)에서 태어나시었다. 공의본관은 한양으로 시조의 23대 세손이 되시며 문목공(文穆公) 야곡(治谷) 극선(克善)의 9대손이다. 부친 종호공은 사헌부감찰로 사리와 학문에 출중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비로써 선생은 부친의 슬하에서 수학 하였으며 선생이 태어나시던 해에 일본군함 운양호가 강화 영종도로 들어오다가 우리 포대의 포격으로 쫓겨간 해로 그 이후 매년 열강의 외침이 그칠 날이 없는 국난의 시대이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천품과 학식이 강직하시고 영명하시었으며 1895 을미년에 조정대신 어윤중(魚允中)이 일본에서 국채 300만원을 들여오자 이를 못마땅이 여기시든 차에 다음해에 조정에 영국인고문(英國人顧問) 백탁안(柏卓安)이 이를 빨리 상환코저 건의함에 따라 조정에서 재정을 정비하고 백성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선생께서는 이를 흔쾌히 도우면서 백미 500여석을 모금 각출하여 그 보상이 일년만에 완제되었으니 그 국채상환에 선생의 공이 적지 않았다. 선생은 순종조에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출사하시든 중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하에서 경향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접선하느라 외가 성인 신효균(申孝均)으로 변성명하며 활동중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를 통분이 여기고 귀향하여 외가인 고해공(海公)신익희 선생덕과 연락 국권회복에 전력을 기울이시던 중 1919년 기미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향리인 봉산에서 기미년 3월3일 고덕면 대천리 한내장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맨 먼저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시고 시위를 주도하시었다.

그 해 6월13일 동지 이영식(李英植)의 내통으로 상해 임시 정부지령 대로 한국 독립단 충남지단을 조직하시고 동단서무부장이 되시면서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운동과 국민납세 거부운동을 전개하시던 중에 체포되어 5개월간 고문 끝에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든 중 옥중에서 부친 감찰공의 서거를 알았으나 봉상(奉喪)치도 못하시었다.

출감 후에는 일제의 감시가 점점 삼엄해지자 선생은 방향을 바꾸어 국민 계몽운동으로 방향을 선회 우선 봉산에 초등학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시었다. 1932년 4월 상해에서 윤봉길의사의 의거가 일어나고 윤의사가 일본 금택형무소에서 산화하시자 선생은 친일을 가장하시

고 도일 윤의사의 매장지를 탐문하시고 귀국 후에 예산군과 협의 1936년 봉산초등학교가 개교하여 봉산 문맹 퇴치에 힘쓰셨다 이후 일제의 감시를 의식하여 모든 행동을 자제하면서 사시었다.

1945년 해방과 광복이 되면서 윤의사의 유해를 효창공원에 봉환할 때에 선생도 이에 동참하시었고 조용히 향리에서 사시다가 1950년 12월 21일 서거하시었다. 공이 서거하시때 초장지를 공이 사시던 시동리 서당골에 안장하였다. 선생의 슬하에는 5남 3녀가 있으니 장남은 병규, 2남은 병철, 3남은 병림, 4남은 병우, 5남은 병관이고 장녀는 유씨에게 2녀도 유씨에게 3녀는 김씨에게 출가 시키셨다.

선생이 하세하신지 27년 후에 정부로부터 선생의 독립운동을 확인 그 공로를 기리며 1977년 12월 13일 선생의 영전에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하였고 1987년 3월에 선생의 묘소 앞에 예산군수(禮山郡守) 박천수 명의로 독립운동 공로비를 예산군에서 근수했다.

그 후 2009년 4월에 보훈처에서 선생의 유택을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것을 권유하여 현재는 대전 현충원(大田 顯忠院) 애국지사(愛國志士) 묘역에 계시고 예산군수의 묘비는 선생의 영포 우형씨가 보관중이며 시동리 소태산하 하평 마교의 군도변에 지방유지들의 공동명의로 공적비를 세워 지나는 행인들의 사표를 삼는 증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지태(金智泰) (1879~1949)



김지태의 혜휼기념비 (오기면 역탑리)

오기면 원평2리 597번지는 동학혁명을 주도했던 김지태 선생이 정착하여 민족의 진로를 모색하고 교육과 동학사상을 계승 실천했던 곳이다.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백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 구제하는데 아끼지 않았던 이시대의 참다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인물이다.

김지태 선생은 호가 정암으로 태안 근흥면 정죽리 동학접주였던 김중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84년 10월 1일 태안관아점령부터 홍주성 전투까지 참여했다가 패퇴과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태안변두리에 살고 있던 딸의 집에 피신하다 오기 원평리 597번지

로 몰래 정착하여 천변 땅을 일궈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곳에서 국사당보를 관리하고 겨울엔 물방앗간을 운영하여 정착 몇 년 만에 중농으로 부상했다. 김중희는 집 아래채를 천도교 교당으로 사용하여 흩어진 많은 교도들을 모이게 했다.

이는 동학혁명 이후 내포지역 최초의 동학교당으로 보여진다.

또 대술면 방산리 최씨 선생을 모셔다가 글방을 차려 아동을 가르쳤다.

김중희는 태안에 있는 사위(이기봉의 부친)도 원평리로 이사시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마련해주었다.

시천교 교주 구암 김연국은 김중희의 사위이다. 이기봉(101세)옹의 증언에 의하면 구암장은 천도교와 시천교간의 분리 후에도 자주 원평리에 왔다고 한다.

김지태는 1920년대 광시 서초정리 동학교도 박승호 형제가 가져온 금광석을 보고 서초정리와 공주유구 검단에 금광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예산의 8대부자 안에 들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1935년에 건립되어 현재 오기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 있는 김지태 혜휼기념비(金公智泰惠恤紀念碑)가 말해주 듯 김지태는 많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베풀 줄 아는 위인이었다.

인한수(印漢洙) (1881~1919)



장문환 · 인한수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대의사

예산(禮山) 사람이다. 인한수는 1881년 고덕면 상궁리에서 빈농으로 태어났다.

인한수는 선친이 개화 1세대로 천주교를 신학문 또는 종교로서의 영향을 받고 자라났으며 태생이 호탈하고 나보다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걸물이다. 그의 행동을 눈여겨 본 최성룡은 자기 땅에 집을 지어주고 성취(成就)시키고 동네일을 돌보게 하였다.

당시 양촌. 지금의 고덕면 상궁리는 거더리·양촌·신리 등 3구로 나뉘어져 그 중 양촌 구장(區長)이 되어 구민을 위하여 일했고 그의 장인은 동학군에 가담하여 관작리·홍성전투에서 행방불명자가 되었다. 아마도 홍성의사총(洪城義士塚)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그는 동학에 심취하였고 천주교의 평등의 사상이 가미되어 훗날 한내장터 만세운동에 선봉이 됐다.

인한수는 1919년 4월 3일 예산군 고덕면(古德面) 장날에 대천(大川)장터에 모인 시위 군중을 이끌고 대천교 옆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지휘하였다.

그때 일본 헌병과 일경들이 휘두른 총검으로 인하여 많은 군중이 부상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말을 타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장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끌어내려 내동댕이치자 말에서 떨어진 수비대장이 군도로 인한수 의사의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김한중(金漢鍾) (1882~1921)



일우 김한중



생가 (광시면 신흥리)



김한중 家의 정려문

독립운동가로 자는 경애(敬愛) 호는 일우(一字) 본관은 금녕(金寧)이며 광시면 신흥리 출신이다.

그는 홍주의병 당시 의병이었던 민중식의 휘하에서 소모관(召募官)으로 활약한 백하(白下) 김재완(金在琬)의 독자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였고, 국권이 일제에 의하여 침탈당하자 구국을 맹세하고 1915년 박상진(朴尙鎭), 우재룡(禹在龍), 권영만(權寧萬), 양제만(梁濟萬), 김경태(金敬泰) 등과 함께 대구에서 무상독립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조직하였다.

대한광복회는 1916년 노백린, 김좌진 등 동지를 규합하여 대한광복단으로 개칭하였다. 김한중은 대한광복단의 충청, 전라지부장으로 임명되어 총사령 박상진과 더불어 각지의 부호들을 협박하여 국권회복운동의 자금을 거두었다.

1918년 1월에는 김경태, 임봉주를 파견하여 친일 악질관리인 충청남도 아산의 도고면장 박용하를 사살하였다. 그러나 비밀조직인 광복단이 그해 1월 발각되면서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이어 박상진도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면서 조직의 전모가 밝혀져 조직원 대다수가 체포되었다. 김한중은 그뒤 대구, 공주, 서울 등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겪다가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총사령 박상진과 함께 1921년 7월 8일 대구감옥에서 사형으로 순국하였다. 그리고 다른 동지들은 수년의 형을 언도 받았다.

묘소는 광시면 신흥리 고택 뒷동산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광복후 1963년 건국훈장국민장(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군내 유지들이 뜻을 모아 예산역 앞 광장에 순국기념비를 세웠으나 교통에 장애가 되어 예산읍 향천리 쌍소나무배기 입구에 이전되었다.

대한광복회 조직원들 중 김한중의 친척인 김재항, 김재철, 김경태, 김원준은 신흥리 사람이고 또한 김상준도 같은 부락사람이며 신앙리 이재덕도 가담하였으니 그 당시에 광시면 신흥리와 신앙사람들의 독립투쟁은 새로 조명 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문오(崔文吾) (1883. 7 10~1944. 3. 25)



최문오의 건국훈장 애족장

1919년 당시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鷹峰面 後寺里) 뒷골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산장터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의 부친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구술 자료가 전해진다.

기미년 4월 5일 오후 2시경부터 장날에 모인 군중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장터를 누비고 만세시위를 벌여 군중의 수는 2시간여 만에 2천여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일본 헌병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그는 이날 박대영(朴大永)외 약 50여 명과 같이 만세시위운동 중 일본 헌병이 박대영을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일본 헌병을 구타하여 쓰러뜨리며 대항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이해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3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장문환(張文煥) (1887~1947)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장문환의 묘



기념비

장문환은 1886년 고덕면 인한수와 같이 고덕면 상궁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농(中農)의 가정에서 태어나 문중에서 천자문(千字文)을 떼고 당시 학문의 고장인 면천(沔川) 도호의숙(挑湖義塾)에서 1908년 22세까지 수학하였다. 이 의숙은 충장공 남이홍 장군의 후예인 남석구(南錫龜 1820~1860)가

세운 의숙이다. 장문환은 학문은 물론 무예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귀향하여 양촌서당(陽村書堂)을 개설하여 자기사상을 펼쳤다. 이때 그는 양촌(상궁리) 이장을 겸하며 구장인 인한수와 의기가 상통하여 훗날 한내장터만세운동을 이끌었다.

1919년 4월 3일 장문환은 예산군 고덕면 장날에 대천(大川)장터에 모인 10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시위자 7명이 일경에게 검거되자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이어 일본헌병의 무차별 발포로 시위자 한명이 순국하자 격분한 나머지 시위군중 15명과 함께 시체를 헌병주재소로 운반하여 놓고 “왜 백성을 죽였는가? 이 사람을 살려내라”고 항변하였으나 적 헌병 오장(伍長)인 주재소장이 주재소 밖으로 쫓아내려 하자 붙잡아 구타하다가 피체되었다.

이 해 5월 2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원경(成元慶) (1891~1975)



창녕 성씨 위패가 봉안돼 있는 창의사 (신양면 귀곡리)



성희옹의 묘에서 바라본 창의사

본관은 창녕(昌寧) 호는 만정(晩汀)이며 조선중기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수침(守琛)의 14세손이고 혼(渾)의 13세손이다.

출생은 아산군 도고면 농은리(牙山郡 道高面 農隱里)이고 예산군신암면 계촌리(桂村里)에서 성장하였으며, 그 후 예산면 예산리(禮山面 禮山里)에 근거를 두게 된다.

서울에서 중앙학교(中央學校) (現 中央中高校)를 마치고 일본 중앙대학 정경학부(中央大學 政經學部)를 졸업하였다. 그 당시 부(父) 낙규(樂奎)는 호서은행(湖西銀行) 발기인취체역(發起人取締役)(1913~1929), 숙부 낙헌(樂憲)은 발기인 전문취체역(發起人 專務取締役)(1913~1931)이었다.

일본에서 귀국하여 호서은행 천안지점장을 맡게 되고 그 후 본점이 천안으로 옮기자 예산지점장을 계속 맡게 되며 1931년 호서은행이 서울의 한일은행(韓一銀行)과 합병(合併)하여 동일은행(東一銀行)이 된 후에는 1934년경 숙부 성낙헌 대신 동일은행 상무취체역으로 선임 된다.

해방전까지 각 신문사 창간(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발기인)에 참여하고 금광(金鑛)에 대하여는 평생 힘을 쏟았다.

해방 후에는 예산에서 반탁투쟁위원회(反託鬪爭委員會)인 독립촉성국민회(獨立促成國民會)를 이끌게 되고 농지개발영단(農地開發營團) 이사장(理事長)(1946~1948년)을 맡게 되며 1952년 예당수리조합장(禮唐水利組合長)을 맡고 1954년 제3대국회의원에 당선되고 1958년 부정선거로 4대에는 낙선했으나 1960년 4.19혁명으로 5대 국회로 진출하게 되지만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국회는 해산되어 정계를 은퇴한다.

묘는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瓦山里) 지새울이다.

임숙재(任淑宰) (1891. 7. 22 ~ 1961. 6. 8)



임숙재

임숙재(任淑宰)는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에서 독실한 기독교계 가정에서 개화 직전인 1891년 7월 임명호(任命鎬)와 김명은(金命恩)의 사이에서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부친 임명호는 19세기 중엽에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지금의 삽교읍 방아리)의 임참봉공(任參奉公)의 차남이다.

임숙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외모(外貌)가 아주 단정(端正)하고 정숙(貞淑)하였다. 또한 학구열이 남달리 강하고 사리(事理)에 밝아 일찍이 신구학문(新舊學問)을 접하면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17세에 집안 어른들의 중매로 아산군 신창면 득산리 239번지의 명문 대가인 속칭 윤참판댁으로 출가했으나, 예상 밖으로 조선시대에 의관(議官)을 지낸 윤석영(尹奭榮)의 자제인 남편 윤돈(尹墩)이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광란(藿亂)으로 별세함으로써 결혼 한 지 1년도 못되어 청상과부가 되었다. 임숙재는 모든 슬픔을 기독교의 깊은 신앙심으로 극복하고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구문물(西歐文物)과 전통사회의 붕괴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남달리 신학문에 대한 학구열을 불살랐다.

18세에 이르러 늦깎이로 서울 명신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초등교육을 받고 한국 여성교육의 요람(搖籃)이었던 숙명여자보통학교에 입학, 그곳에서 국어학(國語學)의 대가(大家)이신 주시경(周時經) 선생을 비롯한 당대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 본격적으로 신학문을 섭렵(涉獵)하는 한편, 우리나라 여성계의 별들이라 할 수 있는 김활란(金活蘭), 임영신(任永信), 이숙종(李淑種) 여사 등과 교분을 갖고 한국의 여성교육과 여성의 지위향상 및 선교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젊음을 구가(謳歌)하고 장래 여성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착실하게 갖추어 나갔다.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임숙재는 약 3년간 충남공주공립보통학교에 훈도(訓導)로 재직하면서 남다른 교육애와 천직의식으로 제자양성에 힘써 향토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무지하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료(無料)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해 준다고 해도 자녀들을 취학(就學)시키지 않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학생들을 모집하여 손을 꼭 잡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려운 고비를 수 없이 겪었지만 그 때마다 제2세 교육이야말로 천직임을 깊이 깨닫고 훌륭한

제자 양성에 더욱 정열을 쏟았으며 틈틈이 시간이 나는대로 말을 타고 각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순회강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계몽에 진력하였다.

이후 사범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이왕가(李王家)의 장학생으로 추천되어 동경 부립여자 사범학교(府立女子師範學校) 제2부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곧 바로 동경 여자고등사범학교(女子高等師範學校) 가사과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고시(考試)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고 금의환향(錦衣還鄉)하였다.

임숙재는 모교(母校)인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教鞭)을 잡았다. 그 후 대구고등보통학교 교유(教諭), 경북사범학교 강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향토교육의 발전과 가정경제의 합리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 일제가 민족사학을 탄압하고 어용학자(御用學者)를 동원, 식민사관(植民史觀)을 정립시키고 있을 때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항거하여 늘 학생들에게 진달래와 무궁화의 이념을 고취시켰다.

그는 또 틈틈이 고향에서 방아리 등대감리교회의 수제자 이수산(李壽山)과 함께 예산군청과 오가면, 삼교면을 순회하면서 향토의 뜻있는 여성들을 모아 놓고 여성의복과 부업 개량, 육아 등에 대해 계몽활동(啓蒙活動)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의 부친 임명호(任命鎬)도 임 여사와 함께 야학(夜學)을 통해 인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글을 가르치며 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임숙재는 또 방아리에 자주 내려와 5구의 즈말구 도살장 앞에다가 수리시설(水利施設)을 확충하여 향리의 농업용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공헌을 하였다.

1939년 4월에 숙명여전(淑明女傳)이 창립되자, 임 여사는 조교수로 취임했고, 해방이 되고 사재를 털어 재단법인(財團法人) 광명원(光名園)을 설립하고 학교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그 당시의 4년제 대학의 설립요건인 대지 20만평을 확보, 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해 숙명여전을 4년제 숙명여자대학교로 승격시키고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숙대 재임 19년간 사재(私財)를 털어서까지 심혈과 정열을 기울여 종합대학교로 승격, 발전시키면서 참다운 여성, 견실한 여성, 애국애족, 학행일치를 교훈 삼아 한국의 여성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이상 기술(記述)한 바와 같이 임 여사는 일찍이 결혼하여 실패하고 슬하에 자녀가 없어 늘 고독하고 역경이 많았지만 독실한 신앙심으로 잘 극복하고 한국의 신여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숙대의 산파역(産婆役)으로 선교사업과 여성 계몽활동 및 구빈사업(救貧事業)에 힘쓰므로써 향토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큰 공헌을 한 한국 여성계(女性界)의 큰 별이었다.

그의 묘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다.

문병석(文秉錫) (1892~1970)



문병석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서 동학 수집주 낙암(樂菴) 문장로(文章魯)의 2남으로 태어났다. 형 구석(龜錫)은 동학혁명에 참여했다가 부친을 숨기고 일본군에 대신 체포돼 태안에서 총살되었다. 병석의 본은 남평이고 호는 성암(成菴)이다.

부친이 동학농민혁명 주모자로 체포 현상금이 붙어 해안 산간벽지로 은신생활하다 1900년대 무한천변 탄중리에 정착하여 정규 학교는 갈수 없어 한문수학을 했다.

독립운동의 큰 인물 춘암 박인호 선생의 고향 동학 천도교 수제자 정환석, 마기상과 함께 주요 3인의 한사람이다.

3.1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자 천도교 구파의 지역책임자로 4월 3일 예산 신례원 장날을 이용하여 군중 500여명을 규합시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고덕 마기상 동지와 함께 예산경찰서에 피검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아 짝귀가 되는 상해를 입었다. 그 후 1921년 천도교 예산교구 금융원 직책을 시작으로 예산지역 민족운동의 산과 역할을 했던 교구장을 여러차례 역임했다. 1925년 예산 종리원 주임 종리사를 역임하고 1926년 순종황제 인산일에 6.10만세운동을 예산에서 주도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 통치하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항일사회운동 단체가 신간회였는데 지부소속인 예산지회를 1927년 11월 14일 창립했다. 처음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하기까지 활약이 컸으며 그 후 정치문화부 분과에서 농민, 형평(衡平), 여성, 사상운동 등과 연계하며 예산지역 진보적 민족운동의 중추적인 활동을 폈다. 이 때 요시찰 인물인 그가 거주하는 신암 탄중리 집은 수시로 일본경찰이 와서 가택수색과 감시를 했다.

1926년 천도교 중앙종리원에서 ‘우리는 인내천주의 하에 육체와 정신을 희생하고 인내천의 교화로써 인간을 개조하자’며 천도교 구파의 청년지도자들이 ‘천도교청년동맹’이 결성되자 예산교구 문병석, 마기상, 정규희 등 청년결의 동지들은 곧바로 ‘천도교청년동맹예산지부’를 결성했다.

조선농민사가 애국농민계몽운동 및 협동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점에 영향을 받아 1931년 4월 26일 천도교예산종리원에서 ‘조선농민사예산군지부’를 창립했다. 1936년 초에 일제의 패망을 기원하는 특별기도인 멸왜기도운동을 펼치다 1938년 신천에서 발각되어 엄청난 검거열풍이 일자 예산에서 문병석을 비롯한 많은 교인이 피검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풀려났으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였다.

탄중리에서 큰 물난리로 생명위급과 재산피해를 당해 오촌리로 이거하고 천도교 구파의 주요인물로 애국활동에 힘쓰다가 1970년 환원했다.

1965년 11월 동학순국선열추념식준비위원회(회장 김종필)로부터 준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유정호(柳鼎浩) (1895~1965)



유정호

본관(本貫)은 진주(晋州)이며 호(號)는 춘강(春岡)이다. 한학(漢學)과 서예(書藝)에 조예(造詣)가 깊었으며 1927년 신간회(新幹會) 회원으로 당시 회장이던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항일계몽운동(抗日啓蒙運動)에 참여하고 인천(仁川)등지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서회(讀書會)와 야간강습소(夜間講習所)등을 개설(開設) 운영(運營)하면서 한국역사(韓國歷史)와 한글 한문 등을 가르치던 중 왜경(倭警)의 요시찰(要視察)인물이 되어, 인천, 서산, 보령 등지로 이주(移住)하였고 1935년에 예산(禮山)에 정착(定着)하였다. 1945년 조국광복(祖國光復)과 함께 이승만(李承晩) 박사(博士)와 김구(金九) 주석(主席)을 중심으로 한 반공(反共), 반탁(反託)운동(運動)에 참여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民國促成國民會) 예산군지부(禮山郡支部) 회장(會長), 충청남도 예산군애국단체연합회장(禮山郡愛國團體聯合會長) 등을 역임(歷任)하면서 혼란기(混亂期)에 국민운동(國民運動)에 주력(注力)하였다.

1946년 12월 12일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政府)를 수립(樹立)하기 위하여 관계법안(關係法案)을 제정(制定)하고 제헌국회(制憲國會)를 구성(構成)하기 위한 선거법(選舉法)등을 제정(制定)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員)에 민선의원(民選議員 : 민선, 관선 각45명)으로 당선(當選)되어 1946년 12월 12일부터 1948년 5월 20일까지 정부수립(政府樹立)에 참여(參與)하였으며 제헌국회의원(制憲國會議員)에 예산(禮山)에서 입후보(立候補)하였으나 차점(次點)으로 낙선(落選)하였다. 묘(墓)는 예산군(禮山郡) 봉산면(鳳山面) 봉림리(鳳林里) 천주교가족묘지.

일엽(본명 김원주) (1896~1971)



일엽

일엽은 일제강점기 근대 신여성이었다. 이화학당(現 이화여대)출신에 일본 유학과로 ‘여성해방’, ‘자유연애’의 상징이었다. 그러던 그가 만공스님(1871~1946)을 만난 후 38세에 돌연 출가했다. 일엽스님은 여성 수행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당시 상황에서 여성도 뛰어난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대중적 관심을 촉발함은 물론 비구니 승가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최초의 여성 유학생, 최초의 여성잡지 ‘신여자’ 주간 등을 거치며 나혜석과 함께 대표적 신여성으로 불렸다.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그녀는 이광수에게 필력을 인정

받아 “한국 문단의 일엽(나뭇잎 하나)이 되라”는 고평을 들었지만 출가 이후 “글 또한 망상의 근원이 된다”며 절필을 했다. 그녀의 대표적 저서이자 베스트셀러였던 수필집 ‘청춘을 불사르고’가 나온 것은 62년에 와서이다. “아무래도 청춘을 사르지 못하면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청춘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는 구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도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청춘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명문이다. 일엽스님은 속세에 있을 때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찾아오자 ‘나를 어머니로 부르지 말고 스님으로 불러라’라고 냉혹하게 대했다. 당시 14세였던 아들을 위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나혜석이었다. 만공스님은 그때 수덕사 뒤에 ‘견성암’이란 비구니 선원을 처음 세웠다. 당시로선 엄청난 파격이자 뉴스였다. 이후 ‘수덕사의 여승’이란 유행가가 나오면서 ‘수덕사=비구니절’이란 오해가 생겼다고 한다.

윤희두(尹熙斗) (1896~1969)



윤희두



윤희두가 1928년 최초로 설립한 양막교회

오가 출신으로 본은 파평(坡平). 부친 윤종렬(尹鍾烈)과 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1896년 3월 22일 태어났다.

그의 본적은 오가면 양막리199-2번지이며, 당진 송악에서 태어나 어려서 양막리로 이사온 것으로 전해진다. 1946년 경주인 이춘심의 녀 이장화(李長華)와 결혼했다.

3.1운동 당시 마을이장을 보며 도량댁이산에서 4월 초에 마을 주민 전체와 인근지역민이 참여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모든 책임을 자신이 주도한 것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고 나왔다. 일제강점기 국권을 상실해 강압과 착취는 심하고 농민들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좌방리 임명호 선생이 설립한 ‘등대교회’에서 민족의 구원과 피압박에서 벗어날 새로운 희망과 역할을 터득하고 동리사람 심태섭·오간선 씨와 협의하여 1928년 3월 28일 양막리 산 59번지에 양막교회를 설립하였다.

민족독립을 위해선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선생은 우선 지역에 학교나 교육시설이 없어 안타깝게 여겨 1930년 예배당에 강습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펼쳤다.

1947년 예산읍 외 지역 최초로 ‘양막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해 중등교육기관으로 교육의 문호를 확대 개방하였다. 배움의 기회와 열기가 고조되면서 몰려드는 학생을 수용하기 힘들게 되자 1949년에 일본인 적산토지였던 분천리56번지 일대를 매입하여 마을 내 빈 창고를 뜯어다가 짓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 교실5칸을 지어 배움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는 현재 임성중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인재를 발굴해야한다’며 발품을 팔아 훌륭한 선생을 찾아 다녔다는 선생은 민족교육의 산파역할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한 위대한 교육의 선구자였다.

마기상(馬驥賞) (1897~1954)



마기상

내포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마준성의 장남으로 고덕면 용리 일명 텡이에서 태어났다. 본은 장흥이고 초명이 기상이고 자는 학순, 호는 용암(龍菴)이다.

청소년기인 1905년부터 용리서숙의 김사홍(1870~1950)에게 천자문과 사서 삼경을 배웠다.

천도교 4세 교조 춘암 박인호의 봉도였던 화암 최준모에 의해 1911년 천도교에 입교하여 본격적인 동학사상을 배우고 민족독립운동의 입지를 세웠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친 마준성은 최준모와 교류하며 동학을 접하고 농민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1914년 덕산보통학교(1912. 3. 19 인가)에 입학하여 2학년 재학 중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비판개탄하고 자퇴 후 천도교 홍성교구 공선원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보성사에서 기미년 독립선언서 인쇄를 끝내고 제작총괄을 담당했던 이종일 선생이 충청도, 전라도 지역 배분을 안상덕에게 2,500장을 주었고 이를 다시 충남지역배분을 마기상을 비롯한 정태영, 문병석, 고운학, 조인원 등이 받아 각 지역 천도교 비밀조직에 전달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각 지방교구 조직망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배포함으로써 홍성지역과 예산 고덕 덕산 등에서 장날을 이용한 독립시위운동이 빠르게 확산시킬 수가 있었다.

3.1만세운동 이후 연락책 마기상에게 일제 고등계형사 김선기가 전달형사로 그 집주변에 살다시피 했다. 이에 선생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1923년 일제의 문화통치의 영향으로 천도교인의 유기적인 전위단체인 천도교 청년당 창립에 참여 활동했으나 천도교의 신·구파 분열이 일어나자 일제에 포섭된 주류인 최린계 청년당에 반대하는 구파 청년당원들이 1926년에 ‘천도교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예산지역에서 마기상, 정환석 선생이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구파의 전위조직으로 교인들은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에 참여하는 등 비타협적인 방법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 예산지국장을 맡으며 순종임금의 인산일에 펼쳤던 6.10만세운동을 지역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예산 각 지역 산봉우리에 수천명이 집결하여 순종임금 승하에 상복을 입고 곡을 표하며 의분을 달랬고 정세강연을 통해 독립의지를 고취시켰다.

선생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반농민군입장에 섰던 홍성의 유림들이 동학에 대한 배척과 멸시가 가장 심했던 홍성에서 포덕활동을 펼쳐 1924년 홍성교구장을 역임했다. 그 후 중

외, 동아, 조선일보 예산지국기자로 활동했다.

1927년엔 3일보 삼교지국을 운영하며 신간회활동에 가담하여 7회 이상을 예산경찰서에 피검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다.

1923년 9월 2일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가 창립4주년을 맞아 이돈화 박내홍 김기전 등의 발의 '천도교청년당'이 결성되자 1928년부터 6년 동안 '청우당' 예산 대표로 활동하고 1931년엔 당의 일체 사업을 결의하는 '청우당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천도교의 주의와 목적을 사회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결성된 '천도교청년당'은 농민부 노동부 청년부 학생부 여성부 유소년부 상민부 등의 7개 부문을 설치하고 청년운동을 추진하였다.

1929년 천도교의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한 조선농민사 삼남구 선전원으로 활약하며 계몽지 조선농민, 농민독본, 농민 등을 내포지역에 보급했다. 1930년 3월 중외일보 예산지국 기자로 홍성공업전수학교 학생운동 주도 혐의로 피검되어 취조 후 석방되었다.

1932년 천도교 제 4세교주 춘암 박인호 선생의 역사적 법통을 부인하고 신과 구과 분립을 초래시킨 신과의 최린과 정광조의 행동을 엄정히 비판하는 구과의 "성명서" 발표에 서명 참여하여 반복하는 신과의 분규행태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1932년 충남연합포덕대장으로 활동하며 홍성 종리원을 왕래하다 알게 된 동학집안인 매헌 윤봉길의사에게 많은 농촌 계몽지를 제공해 주어 애국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934년에 천도교 홍성교구 玄機員으로 다시 활동하고, 고덕금융조합평의원으로 활약했다.

1939년 천도교해월신사 만백년기념위원으로 선출되어 활약했으며 이해 금강산유람을 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청우당 총무국장에 선출되어 반탁위원으로 활동했다

1947년 농민사 사장을 거쳐, 1949년 보국당감찰위원으로 활동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향 고덕 용리로 돌아와 휴전직전 깨끗한 두루마기 입고 사진촬영 며칠 후인 1953년 5월 2일 환원했다.

龍菴 馬驥生 志士 墓碣文

대체로 善과 惡을 分別함은 人道也요 이를 容納치 아니하는 者는 天道也라

天道教 道訓 諱는 驥華요 初名은 驥賞이니 字는 鶴順이요 號는 龍菴이다

生于 戊戌 三月七日 禮山郡 古德面 用里하고 卒于 癸巳五月二日이니 五十五歲요 長興馬氏라 朝鮮國初 太宗廟에 封爵忠靖公 諱는 天牧이니 朴苞之亂을 靖亂한 功勳으로 土地를 下賜

받고 本貫長興에 追封되었으니 是는 龍菴公의 十六代祖也라 其後 封爵은 繼代하다 諱 勝은 全羅觀察使이며 諡는 文簡公이고 諱 仲儀는 行護軍이며 諱 誠孫은 通德郎이니 顯官賢名著려라

祖諱는 鎭業이요 父諱는 駿聲이며 妣는 密陽朴氏이고 配는 慶州金氏이고 再配는 慶州崔氏라 惟公은 生自聰悟하고 孝行交友가 敦篤하야 滅倭悲壯慷慨하고 天道教에 入教하니 時年 二十歲 丁巳也라 志在國權回復하고 마음은 先結民族力量함을 凝集遂成 己未獨立運動과 丙寅六十萬歲運動에 參與하다

志氣를 펴서 國魂回復을 主張하고 戊寅滅倭祈禱事件에 加擔하야 投獄 禮山警察署하다 이어서 古德金融組合事件에 連累投獄되니 先公後私하야 爲國盡忠이 昭昭明載되여 後世에 까지 耀然하다 晚至戊子에 天道教 道訓에 被命하고 承順天命之道하야 布教聖事하니 壽가 德을 稱하지 못하다 未足大用하고 天命有召하니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이라 悲痛을 不勘이라 葬于 用里 枕庚之原也라 公生 三子하니 壽謨福謨貴謨也라 福謨이 抽先行狀하야 千里相問 於 請余記文에 不佞固辭려니 不待名文이니 遮實銘之라 하다 余亦野人直筆이 不如名人曲筆이라

略記功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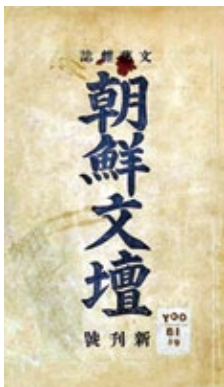
銘曰

松竹節義 耀乎千秋
滅倭遺志 後世龜鑑
教傳天道 率民咸寧
英明忠魂 永眠休長

檀紀四千三百二十六年 十一月 二十一日 建立

書記官 慶州后人 金正昌 撰

방인근(方仁根) (1899~1975)



조선문단

현대소설가로 호는 춘해(春海)다. 그의 출생지는 예산읍 예산리 사직동으로 밝혀졌으나 그 집터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가 어떠한 연유로 언제 예산을 떠났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아호야마학원(靑山學院) 중등부를 거쳐 중앙대학(中央大學) 독문과를 수학하였다.

1924년에는 사재를 내어 종합문예월간지 『조선문단(朝鮮文壇)』을 창간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에 문단을 풍미하였던 계급주의적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에 대항, 민족주의문학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문단』은 박영희(朴英熙), 김기진(金基鎭) 등의 프로작가들이 활약하던 「개벽

(開闢)』에 맞서서 최서해(崔曙海), 채만식(蔡萬植), 박화성(朴花城), 이장희(李章熙) 등의 문인을 배출시켰다. 『조선문단』 창간 이후 1927년에는 송덕중학(崇德中學)에서 교편생활을 하였으나, 1929년에는 기독교신보사(基督教新報社)에 입사, 이어 「문예공론(文藝公論)」 편집, 1931년에는 『신생(新生)』 편집장, 1935년 『시조(詩兆)』 편집장 등을 역임하였다.

광복 후에는 영화에도 관여, 1954년에는 춘해(春海) 프로덕션 사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하늘과 바다』(1923) 등의 시를 썼으나 곧 소설로 전향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분투(奮鬪)』(1923), 『어머니』(1924), 『비오는 날』(1924), 『외로움』(1926), 『최박사(崔博士)』(1926), 『노총각』(1926), 『강신애(康信愛)』(1926), 『자기를 찾는 자』(1926), 『반동(反動)』(1927), 『순간의 낙원』(1927), 『살인방화(殺人放火)』(1927), 『백의인농민(白衣人農民)』(1927), 『금비녀』(1927), 『행진곡』(1930), 『울며 세례받는 이』(1932), 『눈물 지팡이』(1932), 『바다를 건너서』(1932), 『모뎀이 모꼴』(1932), 『평화로운 봄』(1933), 『박철(朴哲)』(1935), 『새길』(1935), 『화심(花心)』(1936), 『그 후의 방랑의 가인(歌人)』, 『은행나무』(1941) 등의 단편과 『슬픈해결(解決)』(1939), 등의 중편, 『마도(魔都)의 향불』(1934), 『춘몽(春夢)』(1936), 『화심(花心)』(1935), 『쌍홍무(雙紅舞)』(1939), 『방랑의 가인(歌人)』(1939), 『젊은 아내』(1942), 『동방의 새봄』(1944), 『여인풍경(女人風景)』(1955), 『명일(明日)』(1955), 『인생극장(人生劇場)』(1954), 『청춘야화(靑春夜話)』(1955), 『동방춘(東方春)』(1956) 등의 장편 외에 『금십자가(金十字架)』(1932) 등의 희곡이 있다.

이 밖에 『농민문학과 종교문학』(1927)을, 비롯한 평론 및 잡지의 월평(月評)을 썼다. 그는

낭만주의적 대중소설을 주로 발표하였으며, 광복 후 한때 탐정물을 시도하기도 하며 소설의 심미적 가치나 사회성보다는 대중적·통속적인 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선문단』 창간을 비롯한 문단활동이 그의 주요한 문학사적 공로로 지적되고 있다. 통속적인 대중 소설가이지만 신문학기 예산출신의 유일한 문인이다.

오도영(吳道泳) (1899~1990)



오도영

1899년 아산군 도고면에서 출생하여 1990년 9월 8일 예산군 예산읍에서 별세했다.

1916년 아산(牙山) 신창학교(新昌學校)를 졸업하고 1922년에 서울 경성제일고보(京城第一高普)(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에 경성의전(京城醫專)(현 서울대 의대)을 졸업한 후 그해 5월 7일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509-5에서 해동병원(海東病院)을 개설(開設)하였으며 1970년에 은퇴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예산지방민을 위하여 인술을 베풀었다.

특히 안과(眼科)적 의술(醫術)은 예산지역은 물론이며 장항선 일대에 칭송이 자자했고 출생지는 아산군 도고면(牙山郡道高面)이었지만 예산군 예산읍(禮山郡 禮山邑)에서 병원을 개업한 것은 예산군 봉산면(鳳山面)에 위치한 처가(妻家)의 권유로 인하여 중간쯤 지점인 예산읍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주변의 추측을 낳게 한다.

은퇴하면서 해동병원은 그의 아들 의학박사 성근(城根)씨에 의해 같은 예산읍에서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해동안과(海東眼科)라는 이름으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정화(鄭靖和) (1900~1991)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정정화.
뒷줄 왼쪽에서 네번째 부터 이동녕, 박찬익,
김구, 임항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머니’라고 추앙받고 있는 수당 정정화 여사는 누구인가. 여사는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에서 수원유수를 지낸 정주영과 이인화의 2남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11살 나던 해 대한협회 회장을 지낸 동농 김가진의 아들 김의한과 결혼한 여사는 21살 되던 해 중국 상해로 탈출한다.

이미 상해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있었다. 이후 여사는 안창호, 이시영, 김구, 신규식 등 임정요인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또 임정 밀사의 자격으로 수 차례 국내에 잠입해 대술 친정집에 기거하면서 은밀히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해 상해로 나르는 중임을 맡는다. 여섯 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나들며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여사는 1932년 윤봉길 의사 폭탄투척 의거가 터진 다음 일경의 추적이 극심해지자 임정 요인들과 함께 상해 프랑스 조계를 탈출해 해방되기까지 13년간 중국대륙을 떠돌면서 도피와 투쟁의 길을 걸었다.

그 와중에 한국부인회를 재건, 훈련부 주임으로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결성에 참여했다. 중경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은 여사는 미군정의 냉대로 전쟁난민의 신분으로 조국에 발을 디디었으나 다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편이 납북되고 가족이 흩어지는 불행을 당한다. 자신도 공산당 부역의 누명을 쓰고 구속 투옥되기도 했다. 이후 은둔의 생활을 하던 여사는 세상에 잊혀진 존재로 살다가 자신이 겪은 세월의 모든 것을 <녹두꽃>(후에 장강일기로 개명)이란 자서전에 담고 1991년 운명을 달리 한다. 현재는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흔히 김 구 선생을 ‘임정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김구 선생처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정화 여사는 임정의 살림을 꾸린 ‘임정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

너나없이 궁핍한 망명객들로 채워진 임정의 어려운 살림을 알뜰히 돌보는 만며느리인가 하면,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내잠입을 여섯 번이나 감행한 여전사이기도 하다. 독립투쟁은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삶의 연속이었다.

정정화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임시정부의 김구로 부터 한국의 잔다르크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한국여인의 표상이라고 불리우는 수당 정정화의 삶은 ‘치마’라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매년 극단 ‘독립’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조성행(趙聖行) (1902~1988)



조성행

예산지역에 최초로 근대병원을 개원한 인물로 호는 소천(小川),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소천은 1902년 삽교읍 가리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재력과 신 교육에 대한 선견으로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나왔다. 이어 세브란스전문학교에 들어갔다. 세브란스는 그 당시 미국인 선교사 애비슨(L. H. Avison)이 1900년 본국에 있는 세브란스(L. H. Severance)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세브란스병원을 세우고, 동 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전신이다. 해방 후 1947년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되고 1957년 연희 대학교와 병합하여 연세 대학교가 되었다.

소천은 그 당시 한국에서 유일한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가 의사 수업을 받고 1933년 졸업하였다. 3년여를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과 고향인 예산지역이 현대병원이 없음을 알고 1936년 1월 5일 예산읍 예산리 477-3번지에 중앙병원이란 이름으로 개원하였다. 그 당시의 예산지역은 근대 병원이 없어 수술이란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라 지방민에게 그의 병원은 질병치료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오직 사회활동보다 의료행위에만 전념하였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진료 혜택을 주어 인술(仁術)을 베풀었다. 그는 사회봉사적인 자세로 임하여 예산군보건후생과장, 예산유도회장(禮山儒道會長) 등을 역임하였다.

중앙의원은 그 후 그의 아들 성근(成根)씨에 이어 장손(長孫) 돈희(敦熙)씨가 그의 유업을 계승하여 삼대의업(三代醫業)을 이어오다가 아들 성근씨에 의하여 종합병원으로 승격 발전하여 1997년 9월29일 예산읍 관작리 333-7번지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이 되었다. 1988년 영면하였는데 그의 묘는 홍성에 있다.

이태규(李泰圭) (1902~1992)



이태규

1902년 1월 26일 예산읍 예산리에서 한학자인 용균(容均)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예산보통학교(1회)를 수석 졸업하고 무시험으로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다.

일본교도대 화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이 대학 대학원에 입학,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한국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교오또 제국대학에서 한국 최초의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이 대학에서 화학연구소 강사로 재직 중 보다 폭넓은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1933년 10월 정지용 시인의 중매로 박인근(朴仁根)여사와 결혼한 후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로 유타대학에서 불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2년 후 같은 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어 버클리대학 부설 로렌스연구소의 선임 연구원과 교오또제국대학 조교수를 역임하는 한편 피츠버그 대학 생화학 교수직도 맡았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2년여 동안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링 등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한다. 해방이 된 후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면서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동안 선진국에서 연구한 박사는 한국과학의 낙후성을 절감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유타대학교 미술화학협회 회원으로 또는 유타주 학술회원 등으로 맹활약하여 명성을 국내외에 크게 드높인다.

미수(米壽)를 눈앞에 두고도 노벨상 수상자 세 사람과 공동으로 아시아화학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가 하면 태평양 과학협회 중신회원으로서는 끝없는 연구와 개척 의지를 불태웠다.

망백(望百)의 나이에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하다가 1992년 10월 26일 생애를 마쳤다. 그동안 발표된 300여 편의 주옥같은 논문 중에서 촉매이론, 화학반응, 속도이론, 액체이론, 점성이론등과 박사의 성을 딴 리아이링(Ree-Eyring)이론 등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양자화학을 처음으로 일본에 도입하여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한바 있다.

이기세(李琦世) (1903~1990)



충남도지사를 지낸 이기세의 유품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이기세 묘갈비

호는 우와(又窩)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1903년 5월 28일 덕산면 복당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여 15세까지 칠서를 다 읽었다. 1919년 독립만세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홍성경찰서에 잡혀가 심문을 받고 석방되기도 하였다. 1925년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하고 1925년 공주군청에 처음 근무하였고 1929년 연기군속으로 승진하였으나 만주사변이 일어나 형세가 불리함을 느껴 가족들을 오가면 원천리에 이사시켰다.

1932년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자 1934년 도청으로 전근되어 학무행정을 담당하였고 이어 서산권업과장, 논산산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광복 후에는 충청남도 산업과장, 상정과장을 거쳐 내무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전남 내무국장, 내무부 자재, 서무과장 경기도 내무국장을 지냈으며 1954년 충청남도도지사로 승진하여 도백이 되었다. 1957년에는 전남지사로 전근하였고, 1959년 지사직을 퇴임하였으나 1960년 다시 전북지사로 임명 되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충청도지사에 출마하여 초대 민선지사가 되었다. 그 당시의 공직사회는 부정 부패, 승진을 위한 엽관운동 등 처신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소신을 가지고 지사직을 수행하였다. 그는 승진서열 일람표를 만들어 부당하게 엽관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근무에 충실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외압으로 지켜지지 않자 포기하였다. 그의 민선 지사직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강제 퇴임되었다.

그 후 그는 관계에서 닦은 인맥과 업무경력, 재력을 바탕으로 충남방적을 설립하여 1970년 충남방적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72년 대전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의 호 우와(又窩)는 「또떼집」이다. 「또우」 「떼집와」로 된 그의 아호는 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지어 주었다. 그는 11대조 잠와 이명준의 아호를 이은 것으로 이병도는 그가 52세때 우와란 아호를 지어주며 「당신도 할아버지를 본받아 청백리가 되라」고 주문했다. 이때부터 지사업무를 보며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한다.

1990년 9월 3일 대전 사저에서 별세하였다. 그의 묘는 덕산면 복당리에 있다.

이응노(李應魯) (1904~1989)



고암 이응노 선생의 생전 모습과 고암의 작품들. 사진 오른쪽은 수덕여관 인근에 있는 고암의 암각화.

이근상(李根商)의 넷째 아들로 출생, 본관(本貫)은 전의(全義)이다. 예술가로서의 소질을 일찍 자각(自覺)한 그는 16세에 당진군 순성면에서 염제(念齋) 송태회(宋泰會) 선생으로부터 묵화(墨畵)의 기본을 사사(師事)하고 20세에 무작정 상경한 그는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 닷달 만인 1924년(21세때)에 제3회 조선미술전 사군자부 「청죽(靑竹)」으로 출품하여 입선하므로써 화가로서의 입문을 하게 된다.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특선으로 이왕직상(李王職賞)을 수상하고 오직 그림 공부만을 위해서 1934년 동경으로 갔다. 일본화원전에서도 여러 차례의 입특선의 영광을 차지 하던 중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그는 귀국하여 예산의 수덕사 입구의 여관(현 수덕여관)을 인수하여 조용히 그림이나 그리면서 은둔(隱遁)하려던 그는 돌연(突然) 상경(上京)하여 재편(再編)되는 미술계에서 일익(一翼)을 담당하게 되어 조선미술협회의 상임위원과 단구미술원 초대작가로 위촉받고 194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창설과 동시에 주임교수로 임명되고 그 후 고암화숙(顧菴畵塾)을 경영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58년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프랑스지부장 초청과 독일 프랑크푸르트개인전 추천에 의해서 그는 부인 박인경과 함께 파리에 정착하게 된다.

1967년 동백림사건(東伯林事件)이라는 정보사범(情報事犯)사건으로 연루(連累)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6.25당시 행방불명된 아들과 상봉할 목적으로 동베르린에 갔다가 뜻도 못 이룬 채 「스파이」가 되어 옥중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정부와 해외의 민간단체의 거센 항의에 힘입어 1969년 3월에 2년 6개월간의 옥중생활(獄中生活)을 마감하고 수덕여관을 경영하던 부인 박귀희 여사의 곁에서 요양하고 있는 동안 암각화(岩刻畵)를 제작함으로써 손꼽히는 문화재를 남기게 된다.

신현상(申鉉商) (1905~1950)



신현상



일연 신현상의 묘(예산읍 신례원)



동지필첩

호는 일연(一鸞), 본관은 평산(平山), 예산읍 신례원리에서 태어났다. 1923년(19세)에 중국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그후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귀국, 호서은행에서 거액(5만 8천원)을 위조환증을 이용하여 인출해서 1926년 3월 5일 다시 상해로 출발하여 국경은 넘었으나 왜경의 추격으로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1929년 5월부터 1933년 12월까지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후 충남 아산군 선장면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다가 1940년에 공주에서 김명동, 김택 동지와 다시 만나서 독립운동에 온 힘을 다하였으며 당시 일본경찰의 고등계에서는 늘 신현상을 감시하는 고인석(高寅石)이라는 사람을 붙였는데 신현상은 오히려 그를 감화 설득하여 동지로 포섭했다는 일화를 남겼다.

해방 후 신현상은 김창숙(金昌淑)의 천거로 김구(金九)선생의 판공실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나라를 위해 순국한 3월사 봉장위원(奉葬委員)으로 윤봉길(尹奉吉), 이봉창(李奉昌), 백정기(白貞基)의사의 국내 안장에 진력하기도 했다.

1949년 반민특위(反民特委) 검찰관으로서 가장 어려운시기에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기도 하였고 1950년 대한청년단 공주군 단장으로 5.30선거에 출마하였으나 관경의 방해로 근소하게 낙선되었는데 한국전쟁이 나자 공주지방에서 공산당에 체포당하여 그해 8월 13일 46세로 대전에서 생을 마감했다.

신현상의 향리에는 그를 추모하는 비(碑)가 일연각(一鸞閣)이라고 명명하여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비문의 글은 이은상이 짓고 김충현이 써서 1975년 6월에 예산읍 신례원에 세웠다.

이홍규(李弘圭) (1905. 5. 10~ 2002. 10. 31)



이홍규

예산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 및 해방 후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2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검찰서기로 근무하다 194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광주지검장과 법무부 교정국장, 평화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역임했다.

예산출신의 대표적인 이론화학자인 이태규 박사가 형이며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고 이중 둘째 아들이 대법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예산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이회창씨이다.

그의 약력을 살펴보면

1905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 192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1945년 판·검사임용전형시험 합격. 1945년 광주지검 검사. 1947년 청주지검 검사. 1948년 서울지검 검사. 195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60년 법무부 교정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1961년 광주지검 검사장. 1962년 대검찰청 검사. 1965년 대한통운 이사. 1965년 변호사 개업(서울). 1965년 카톨릭 법조인회 회장. 1968년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이사. 1971년 대한통운 법률고문. 1971년~2002년 평화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상훈으로는 1986년 한국법률문화상. 1994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제46회 세계인권선언일)

고봉주(高鳳柱) (1906~1993)



고봉주

고봉주는 1906년 3월 예산군 예산읍 마상골에서 제주 고씨 고영서(濟州 高氏 高永瑞) 공(公)과 모친 경주 김씨(母親 慶州 金氏) 씨 사이에서 5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출생했다.

자(字)는 자위(子緯)요 호(號)는 석봉(石峰)이다.

태몽에 하늘에서 신선이 하강하여 상자를 주기에 열어보니 광채가 천장에 비치는 찬란한 비단을 받았다고 한다.

석봉은 7살에 한문 서당에 입학하여 10살에 한시를 지어 서당선생이 특출한 인재라고 많은 칭찬을 받았다. 1920년 15살엔 종조부가 석봉을 문중에서 제일 귀여워해 주었으며 어른들의 신학문 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보통학교(10회 졸업)에 입학하여 월반을 거듭하여 3년 만에 졸업했다고 한다. 1923년 18살에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모친이 마련해준 귀한 자금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후 고학을 하면서 1925년에는 일본대학 사회학부에 입학하였으나 학비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고 책을 사서 독학을 하였다.

이때 독립운동을 가담하다가 징역형을 받고 1년간 복역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독립선언문 사건으로 일제의 요시찰 인물이 되었다. 이후 피신해 지내다가 1932년 27살에 三原次郎을 만나 그의 소개로 동경에 있는 일본 근대서예의 아버지라 칭하는 북전정천래(比田井天來-1872-1939), 이하 天來의 문하에 입문하였다. 天來는 일본 근대 서도(書道)와 전각(篆刻)의 개척자로 사풍의 계승을 주로 한 학습방법을 고쳐 일본의 근대 서학을 이끌어 간 사람으로 일본서도원을 창립했으며, 잡지 서도춘추(書道春秋), 실용서도(實用書道)를 간행하기도 했다.

석봉은 天來의 문하에서 3년간 기숙하면서 전각을 배웠다. 天來에게 전각을 배울 때 일본 경찰서장이 天來를 심방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 고봉주가 있느냐고 묻자 天來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돌려보내 전각에 매진 할 수 있었다.

天來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신의 각인(刻印)을 폐기하고 주갑(周甲) 이후에는 석봉의 각으로 전체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해 사계(斯界)에 놀라움을 주었으며, 그의 기념관에는 많은 일본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봉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또한 그는 전국 서도 잡지에 석봉에 대한 기사를 내주어 이때부터 전각 주문이 쇄도하여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1936년 31살에 天來가 일본인 저명인사 여식과의 국제결혼을 권유하였으나 석봉은 거절하고 한국인 추종녀(秋終女)와 결혼하였다. 결혼 후 다시 도일하여 청의 오창석(吳昌碩)에게 전각을 배운 河井筌廬에게 입문하였다. 이때 河井筌廬로부터 오창석(吳昌碩)의 전각도(篆刻刀)를 선물 받기도

하였다.

1938년 天來가 입원하였을 때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여 정성을 다해 병간호를 하였으며, 이 해에 일본에서도 그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여 석봉은 일본기원(日本紀元) 2600년 기념 보인(寶印) '강원신궁(樺原神宮)'의 주문(朱文)과 백문(白文)을 제작하였다.

석봉은 1944년 39살에 일본에서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귀국하였으며, 이후에는 예산여자중고등학교 교사, 전주 금산사에서 수도 생활을 하였다.

1961년 일본 북해도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3년간 지낸 일본인 서화원 동인 手島右卿의 초청으로 도일하여 4개월간 동경에 거주하였는데, 이때 전각 주문이 쇄도하여 주야로 몰두했다.

1965년 60살에는 서울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제1회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1966년에도 手島右卿의 초청으로 1년 4개월간 동경에 머물면서 전각 작품을 제작하였다.

1968년 서울 종로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제2회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1977년에는 일본 시사신문사(時事新聞社)에서 제정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1982년 제1회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에 출품하였으며, 이 초대전 이후 몇 차례 더 출품하였다.

같은 해에 일본 동경 경왕백화점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일본 제자들에 의해 '고석봉 작품집1'이 발간되었다. 1983년과 1985년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83년에는 추사 고택의 추모비를 썼다.

1988년 83살에 일본에서 고석봉 서예·전각전을 개최하였으며 1989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서예대전(서협 주최) 심사를 하였고 이후에는 몇 년 전부터 안 좋은 건강이 더 악화되어 작품활동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印縞 나 다 새기지 못한 유품이 지금도 온양 자택에 남아 있어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85세에 일본 제자들에 의해 2번째 고석봉 작품집이 간행되었다.

1993년 8월 10일 새벽 2시 온양 자택에서 영면하였다.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으며 묘는 대흥면 하탄방리에 있다.

그에 대한 일화로 1965년 한·일 국교회담이 있었던 해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씨는 회담에 참석한 일본인 관료로부터 석봉 고봉주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다. 일본인 관료들은 석봉의 예술세계를 극찬하며 그의 안부를 물었지만 당시 한국 대표들 가운데 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회담이 끝난 뒤 김종필씨는 석봉이 누구인지 긴급히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 일이 있었다. 그 만큼 석봉은 당시 일본에서 극찬을 받는 예술인이었다.

근대의 추사와 오창석(吳昌碩) 등의 여러 명가(名家)에 이르기까지 섭렵한 석봉은 섭렵하면서도 고아한 인풍(印風)을 창출하여 일본 전각계에서 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일본의 한 인풍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한 그의 서예·전각예술은 한국 서예사에도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이다.

성만용(成萬鏞) (1907-1983)



성만용



사적비문

공은 본관이 창녕이고 휘(諱)는 만용(萬鏞)이며 호는 금암(錦岩)이다. 창녕성씨의 시조는 휘(諱)가 인보(仁輔)로 공은 시조로부터 23대손으로 1907년 음(陰) 2월 29일 부친 기호(耆浩)공과 모친 김혜김씨 기현(耆炫)여사 사이에서 장남으로 충청도 서산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나이 12세에 숙부가 봉산면장으로 연유 봉산면 금치리로 이거(移居)

본군에 입향(入鄕)하였으며 이후 고덕초등학교와 면천 농업전수학교를 잇따라 졸업하였으나 가정형편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가업인 농사일에 전념하는 한편 틈틈이 책을 구입 독학으로 독서에 열중하여 인격도야와 지식을 넓히는 등 근면 성실히 사셨기에 입향한 청년으로는 보기 드물게 올바른 품성과 높은 식견을 갖추었으며 원만하고 행실이 돈독하다고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1945년 8월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광복이 되자 공은 조국의 독립을 앞당기기 위하여 예산지역의 각종 애국청년단체에 가입, 面内の 책임자와 郡内の 부책임자로 계시면서 풍부한 지식과 탁월한 통솔력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시어 주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면내를 비롯한 군내에서 애국청년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조국 독립의 빠른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신탁통치 반대에 앞장섰다. 광복 후에 잠시 공직인 면에 복무하시다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자 주위에서 면장후보로 나설 것을 권유함에 극구 사양하였으나 과공(過恭)도 비례(非禮)라고 강권(強勸)하며 개인을 위함이 아니요 면의 발전을 위하여 주변에서 강도 높게 출마를 권고하자 부득이 출마를 결심 1956년 8월 초대 민선 면장으로 당선되어 취임 후 면정의 쇄신과 기강을 확립하고 면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니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였고, 1960년 12월 2대 민선면장에 재선되시어 먼저의 경험과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다가와 면의 장래에 서광의 빛이 보였으나 재취임 5개월 만에 5.16혁명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시었으며 후에 다시 사회단체와 정당 등에 잠시 참여하시다가 년치(年齒)가 이순(耳順)이 넘으시매 이제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복리를 위하여 예산군 노인회장에 취임하여 바람직한 노인상을 위하여 노추(老醜 : 추하게 사는 삶), 노궁(老窮 : 수중에 무일푼으로 사는 삶) 노고(老苦 : 외롭게 사는 삶)와 같은 삶으로 살지 말고

노학노선(老鶴勞仙 : 학처럼 젊은 마음으로 신선같이 사는 것)으로 살도록 각오했던 노인회를 순방하며 정신교육에 힘쓰시니, 이제는 군내에 명성이 자자하였다.

원래 효성이 지극하고 남다른 송조돈목(崇祖敦睦)사상을 갖고 계신 공께서 불유구(不踰矩)의 나이가 되시니 문중 일에도 적극 참여 찬란한 선조님의 행적 재조명에 힘쓰시었고 중종의 인정을 받아 1972년 성씨대중회부회장으로 취임 종무(宗務)를 강화하고 창령의 물계서원을 중심으로 조상님의 행적 재조명에 힘쓰셨다. 1976년 사단법인 사육신 현창회 이사로 피선되시었고 드디어 1980년 창령성씨대중회 회장에 취임하시었고 전국 문중의 돈목과 송조정신을 고취하여 타성씨(他姓氏)의 규범이 되시었다.

공은 사회생활에 고위직(高位職)을 하신일은 없으나 본시 천성이 청렴결백하고 친화력이 강하며 봉사심이 투철하시어 저 서양의 큰마위 얼굴같이 주위의 칭송을 받으며 묵묵히 사시다가 총회장 재임 중 1983년 1월 지병으로 별세하시니 부음을 들은 대중회 및 종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총회장으로 공이 사시던 금치리 후록에 안장하고 공의 묘소 입구 대로변에 금암공사적비(錦岩公事蹟碑)를 중중명의로 건립하여 공의 유덕(遺德)을 기리고 있다.

공의 배위(配位)는 전주이씨로 공과 동년생으로 공 타계 후 3월 후에 졸(卒)하시니 공과 합부(合祔)하였다. 인정이 많고 마음이 고왔으며 혼인 후에 불평 한번 안하시고 사셨으니 천생연분으로 슬하에 장남 낙유(洛宥), 차남 낙일(洛一), 여식 낙희(洛姬)가 있다. 후세에 사는 이들의 귀감(龜鑑)이 될 것이다.

윤봉길(尹奉吉) (1908~1932)



매헌 윤봉길 의사



생가



총의사

독립운동가, 의사(義士)로 본명은 우의(禹儀) 별명은 봉길 호는 매헌(梅軒)이다.

1908년 6월 21일 덕산면 시량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황(璜)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로 원상(元祥)이다.

1918년 덕산보통학교(德山普通學校)에 입학하였으나 다음해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받아 식민지 노예교육을 배격하면서 학교를 자퇴하였다. 이어 최병대(崔秉大) 문하에서 동생 성의(聖儀)와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1921년 성주록(成周錄)의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사서삼경 등 중국고전을 읽혔다. 1926년 서숙생활을 마치고 농촌계몽·농촌부흥운동·독서회운동 등으로 농촌부흥에 진력하였다. 다음해 이를 더욱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민독본(農民讀本)』을 저술하고, 야학회를 조직하여 향리의 불우한 청소년을 가르쳤다. 1929년 부흥원(復興院)을 설립하여 농촌부흥운동에 본격화하였으며, 그해 1월 초부터 1년간 기사일기(己巳日記)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해 2월 18일 부흥원에서 학예회를 열어 촌극(토끼와 여우)을 공연하였는데 대성황리에 마치게 되자 일제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 농민들을 규합하여 자활적 농촌진흥을 위하여 월진회(月進會)를 조직, 회장에 추대되었다.

한편, 수암체육회(修巖體育會)를 설치, 운영하면서 건실한 신체위에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1930년 “장부(丈夫)가 집을 나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라는 신념이 가득 찬 편지를 남긴 채 3월 6일 만주로 망명하였다. 도중 선천(宣川)에서 미행하던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45일간 옥고를 치렀다. 그 뒤 만주로 탈출, 그곳에서 김태식(金泰植), 한일진(韓一眞) 등의 동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그 해 12월에 단신으로 다롄(大連)을 거쳐 중국 칭다오(靑島)로 건너가 1931년 여름까지 현지를 살펴보면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모색하였고, 이

곳에서 세탁소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모은 돈을 고향에 송금하기도 하였다.

1931년 8월 활동무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옮겨야 보다 큰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곳으로 갔다. 상해 프랑스로게 하비로화합방(霞飛路和合坊)의 집 3층에 숙소를 정하였다. 우선 생계를 위하여 동포 실업가 박진(朴震)이 경영하는 공장의 직공으로 종사하면서 상해 영어학교에서 수업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조직한 뒤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였다. 그해 겨울부터 임시정부의 김구(金九)를 찾아가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칠 각오임을 호소하였다.

1932년 한민애국단의 이봉창(李奉昌)이 1월 8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 왕을 폭살하려다 실패하자 상해일대는 복잡한 정세에 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일제는 1월 28일 고의로 죽인 일본승려사건을 계기로 상해사변을 도발하였다. 일본은 이때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을 사령관으로 삼아 중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윤봉길은 이해 봄 야채상으로 가장하여 일본군의 정보를 탐지한 뒤, 4월 26일 한민애국단에 입단하여 김구의 주관 하에 이동녕(李東寧), 이시영(李始泳), 조소앙(趙素昂) 등의 협의와 동의 아래 4월 29일 이른바 천장절(天長節) 겸 전승축하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식당에 참석하여 왕웅(王雄 본명은 金弘一)이 만들어 폭발시험까지 하였던 수류탄을 투척함으로써, 상해과건군사령관 시라카와와 상해의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다(河端謙吉) 등은 즉사하고,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野村吉三郎)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中光葵) 등이 중상을 입었다.

거사 직후 현장에서 잡혀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해 11월 18일 일본에 호송되어 20일 오사카(大阪) 위수형무소에 수감 12월 19일 총살형으로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윤봉길의사 유품”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였던 윤봉길(尹奉吉)이 생전에 사용하였던 일괄유품, 보물 제560호로 모두 13종, 68점으로서 그 가운데 10종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기념관(忠義祠記念館)에 보관중이며 2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나머지 1종은 서울 윤남의(尹南儀) 집에 소장되어 있다.

충의사기념관에 소장된 10종의 유물은 윤봉길이 1932년 4월 29일 상해의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의거할 때의 소지품들인데 다음과 같다.

- ① 지갑과 화폐 : 황갈색 방령가죽지갑 1점과 중국화폐가 10점으로 그중 1점은 지폐이고 나머지 9점은 동전이다.

- ② 회중시계 : 원형의 시계와 긴 시계 줄로 몸에 지닐 수 있도록 만든 회중시계이다.
윤봉길이 의거 직전 상해에서 김구(金九)와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 정표로 서로 바꾸어 가졌던 물건이라 전한다.
- ③ 인장(印章) : 같은 시각의 인장으로 밑면에 “尹奉吉印”이라 새겨져 있다.
- ④ 월진회창립취지서(月進會創立趣旨書) : 1927년 윤봉길이 부흥원(復興院)에서 농촌부흥 운동을 전개하면서 월진회를 창립할 때에 그 뜻을 밝힌 12매의 글로서 붓으로 쓰여져 있다.
- ⑤ 농민독본(農民讀本) : 농민구제와 농민부흥의 뜻을 밝혀 민족정신과 자주자립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래 3권이었으나 현재 2권만이 남아 있으며 인쇄물이다.
- ⑥ 형틀대(刑-臺) : 길이 160cm, 윤봉길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 그가 사형을 당한 일본 가나사와(金澤) 교외 이코우시공병작업장(二小牛工兵作業場)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라 전한다.

그 밖에도 윤봉길이 21세 때인 1929년에 붓으로 쓴 일기 1권과 밤색안경집 1점, 백색손수건 1점이 함께 전한다. 또한 윤봉길의 이력서 및 유서를 모은 17매의 책 1권과 선서문 1매(七行)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서울의 윤남의 소장의 월진회통장(月進會通帳) 등 31점의 유물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해문(李海文) (1910~1950)



이해문

예산에서 활동한 시인으로 대술면 이터리 안골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그의 시 고원(古園)은 어릴적 자란 고향을 묘사한 시이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신암면 오산리 155번지에서 살았다. 그 후 해문의 아버지가 고향을 떠난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 오산리에 정착했다. 어쨌든 이해문은 아버지가 그곳에 정착하면서 20세 전 후 신암면사무소. 예산군청에 근무하면서 시작(詩作)에 열중한다.

1938년 발행인 이진영을 중심으로 박노춘(朴魯春), 윤곤강(尹崑崗), 김북원(金北元), 마명(馬鳴), 조마사(趙麻史), 성기원(成耆元), 황일영(黃日影) 등과 더불어 동인지 시인춘추(詩人春秋)를 발행하였다. 그전

에 예산의 무정부주의자인 성진호(成鎔鎬)가 창간한 문예광(文藝狂)에 참여한 경력도 있다.

이해문은 「시인춘추」에서 편집과 필명 고산(孤山), 금오산인(金烏山人) 등의 이름으로 시작품과 시인론 등의 평론을 발표하여 문학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 중 1937년경까지의 작품은 『바다의 묘망(沙茫)』에 143편이 실려 있다. 그가 공식생활을 언제 그만 두었으며 서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는 조사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이해문은 거주지인 서울과 예산을 세 번 왕래한다. 첫 번째는 가족들과 도보로 예산에 당도하고 두 번째는 반신불수인 모친을 리어커에 모시고 다시 남행한다. 이 부분에서 아들 희병씨는 부모를 모시고 책 3권을 소지하고 신암에 도착했을 때 분소 직원의 검문을 받고 예산분소 출두를 명령받았다는 것이고, 사촌 해성씨의 증언은 부친을 두 번째 귀향길에 모신 뒤 세 번째로 책 등속을 가지고 오다 신암분소의 검문을 받고 책 등속을 압수당하고 예산분소로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명령받았다는 것이다. 주의의 간곡한 피신권유에도 잘못된 일이 없으므로 ‘어떠랴’ 하는 마음으로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후 추석 사흘 뒤인 음력 8월 18일 예산공동묘지에서 40세의 나이로 총살당하였다. 그의 유해는 상당시일 방치되어 있다가 수복 후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어 가매장 된 뒤 수개월 후 대술면 화천리 3구(곰실)에 안장되었다.

시인의 아들 희병씨에 의하면 1937년경까지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바다의 묘망』에 수록되어 있고 그 후의 작품과 유고는 서울 충무로 4가 집이 소실되어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한다.

따라서 그의 시 작품은 습작기의 작품만이 남아 있고 완숙기에 이르는 그의 작품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또한 그가 언제 예산에서 떠났으며 서울 충무로 4가 집에서의 행적과 문학활동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호서문학」에 그의 행적과 시세계를 집중 취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윤병구(尹炳求) (1911~1985)



광시면사무소 내에 있는
윤병구의 송덕비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취봉(翠峰) 윤병구(尹炳求) 선생의 본관은 파평윤씨로 시조로 사전수태보문하시중숙공윤관장군(四傳守太保門下侍中文肅公尹權將軍)의 28대손으로 부(父) 貞植과 韓山 李氏 사이에 2남 중 장남(長男)으로 1911년 9월 5일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639의 1에서 출생했다. 호(號)는 취봉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준수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불의를 불용(不容)하고 사리에 분명히 하는 덕행을 겸비(兼備)하였다. 국가栋梁(國家棟梁)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선생은 광시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 하시어 경성공학원에서 학업을 마치고 광복 후 1946년 정국(政局)이 이념(理念)과 사상(思想)의 갈등으로 크게 혼란한 시기에 철기(鐵驥) 이범석(李範奭)

장군 주도하에 민족정신의 전통을 계승할 청년운동의 모체로 결성된 조선민족청년단 예산군단장으로 참여 하시어 반공우익 활동에 전념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제헌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동년 7월 17일 공포하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닦았다. 또 제헌국회 내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구성된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되어 농림위원회 소속으로 피폐된 농촌을 부흥시키고 근대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념으로 예당평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 축조에 기여, 선진농업발전에 기틀을 다졌다. 또 무한천에 예산대교(역나다리)를 건설하여 충남 서부권 일대의 교통란을 해소했고 예산읍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읍민의 숙원이었던 식수난을 해결하는 등 예산에 큰 업적을 남겼다.

선생은 말년에 고향에 귀향하여 손수 목장을 경영하며 근대축산영농에 모범을 보였으며 광시면민 복지를 위해 전기, 전화 가설과 낙후도로를 포장하는 등 뜨거운 애향심으로 예산군 발전에 헌신 해 오시던 중 1985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74세를 일기로 운명을 달리했다. 이에 예산군민은 물론 전 국민이 마음깊이 애도했다. 선생의 유족으로는 의성김씨 사이에 장남 명길, 차남 동길 외 3녀를 두었다.

정부는 선생이 생전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남기신 공적을 높이 기려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도하였다.

선생의 일생은 일신의 영화보다 대의에 서서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고 고향 예산군의 발전과 면민복지 향상에 표상같은 자세로 빛나는 치적을 남기었다.

이에 광시면 26개 각급 단체와 면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2008년 7월 17일 제헌절 60주년을 맞아 선생의 유업을 후세에 전하고자 광시면사무소 내에 송덕비를 건립했다.

김현창(金顯昶) (1912. 2. 17~1951. 2. 13)



김현창

예산군 오가면 원천4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한 두뇌와 활동가적 기질이 남달랐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공주영명학교 재학 중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퇴학처분을 받고 예산읍내로 와서 1932년 만경좌사건을 주도하여 8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아 공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만경좌 친일연극단체의 활동을 비판하고 방해했던 주도인물은 1930년 1월 22일 예산농업학교 동맹휴학을 계획하다 발각되어 퇴학당한 3학년생 서용하(徐容夏)였다. 서용하는 극단 만경좌사건에 구속되어 징역1년을 언도 받고 복역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예산농업학교 학생들에게도 민족독립과 식민지교육의 철폐라는 성숙된 의식이 점차 높아가고 있었다. 동맹휴학 미수사건과 1930년 3월 9일 대흥공립 보통학교의 백지동맹사건 등은 예산지역 청년층에게도 파급되어 학생들을 선동한 혐의로 중앙일보 예산지국 기자 강찬희, 마기상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선일보 예산지국 기자 성지호도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김현창은 한때 백부 따라 만주 봉천 등지에 거주하다가 해방직전에 돌아왔지만 그 곳에서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사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김현창은 지난 2010년 제91주년 삼일절을 맞아 국내 항일독립운동가로 추서돼 예산에 살고 있는 그의 2남인 김은배(72)가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았다.

김두환(金斗煥) (1913~1994)



김두환 화백



작업실 (예산읍 505-3번지)

기교보다는 개성과 독창성을 중요시 여겼던 서양화가 김두환 화백은 예산읍 예산리 505-3번지에서 태어났다. 호는 설봉(雪峰), 향천(香泉), 강남, 청계(淸溪), 월성(月城), 금오산인(金烏山人), 금선동천(金仙洞天), 일봉(一峰)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충남 일원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 환경과 상대적으로 개화된 가풍의 영향으로 일찍이 서울 유학이 가능했다. 1932년 경성 양정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 가와바타화학교(川端學校)를 졸업한 후 선생은 현재의 무사시노미술대학인 당시 동경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당시 동경은 우리나라가 서구 미술을 접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근대 일본 미술교육기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동경미술학교와 동경제국미술학교를 들 수 있다.

재학시절 <이과전>과 <독립미술협회전> 등에 참여하고 <조선미술전람회> 등에 출품하여 연속 3회 입선하는 등 다수의 대회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1940년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10여회 이상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일본 제국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온 선생은 1946년부터 6년간 예산농업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작품활동을 이어갔다.

당시 예산에서 '김두환회화연구소'를 연 작가는 고암 이응노, 나혜석 등 당대를 대표할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작업에 대한 연구를 쉬지 않았으며, 당시의 작품들은 예산 인근의 향토적 서정이 두드러지는 풍경과 민속적인 것을 특유의 두텁고 깊이 있는 색조로 표현한 것이었다.

거칠고 격정적인 필치와 과감한 색채의 운용은 일견 인상파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선생의 작업에서 특정한 장르나 영향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1949년 제1회 국전에 경북궁 후원에서 그림 <향원정>이 입선했고, 그다음해에 터진 6.25전쟁 때에는 종군화가가 되어 머리를 다친 피난민 아기 엄마를 치료해주는 위생병을 그린 <야

전병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1957년에 결성된 미술교사들의 단체 <신기회(新紀會)>에 가담하여 그 연례전에 출품한 적도 있다.

1978년 교직생활 정년퇴임기념 개인전을 가질 때까지 10회 가까운 개인전을 개최하는 열의를 보여주었고 1980년에는 파리국립미술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해방 이후 경기여중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은 물론 창작에 전념하는데 이는 36년에 걸친 식민지의 민족적 치욕과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미술계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책무에 대한 동참의 의미이다.

동경제국미술학교 출신들로 이루어진 ‘백우회(白牛會)’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백우회’는 우리나라 미술운동의 중요한 그룹 중 하나이다. ‘백우회’가 ‘흰소’라는 우리민족의 심성을 대변하는 상징인지라 단체 또한 일정한 민족적 자존심을 바탕으로 한 저항정신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불상 등의 소재를 통한 새로운 작업이 나타나는데 이는 분명 선생의 민족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선생의 작업은 향리 인근의 수덕산을 비롯하여 온양 설화산과 서울 인근의 북한산, 도봉산 등을 오르며 변하지 않는 산과 대화하며 거기에서 작품주제를 찾아 그렸다.

1930년대에 ‘창조과’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 선생의 작품은 일본 동경의 브리지스톤 미술관에 르느와르, 고흐, 피가소 등 세계적인 화가의 작품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

정공모(鄭兢謨) (1914~1980)



정공모 제독



정공모의 묘(대흥면 노동리)



모갈비

정공의 이름은 공모요 호는 매당이다. 본관은 동래이며 십대 조 영의정을 지내신 태화 호는 양과의 후손이다. 정공은 1914년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서 정인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930년 예산공립보통학교 16회 졸업, 1933년 진해에 있는 고등해원양성소, 1934년 일본 대판고등해원학교(大阪高等海員學校)를 졸업했다.

일찍부터 재주가 영특하였고, 나라걱정에 몰두하여 성실한 인품과 탁월한 기량으로 바다에 뜻을 두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하자 해양보국의 충정으로 동지들과 더불어 그해 11월 11일 해방병단을 창설하니 이가 곧 우리 해군의 기둥이며 모체이다.

1946년 초대 목호 경비부 사령관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일선기지사령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해군의 귀감으로 지역 방위와 공비토벌에 큰 공을 세웠다. 한국전쟁 중에는 이동기지 사령관 통제부사령관 등 주요 요직을 맡아 제해권의 확보와 북한군 격퇴에 빛나는 공적을 이룩하였다.

1954년 11월 마침내 제3대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어서는 우리 해군의 전력 강화와 군사교육 훈련에 주력하는 한편 군장비의 쇄신과 함께 함대정비 보강에 착수하여 오늘날 우리 해군의 위용을 갖추는 데에 굳은 기반을 닦았다.

1959년 해군참모총장으로 예편하여 이듬해인 1960년에는 초대 참의원 위원으로 정계에 진출하였다가 1980년에는 해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나라의 해양 정책에 크게 공헌하던 중에 1980년 12월 23일 향년 67세로 선종하였다.

정공모 제독은 이와 같이 해양계의 뛰어난 선각자로 우리나라 해군 창설에 선도적인 임무를 다하였고 대한민국 해군의 오늘이 있기까지 남 다른 지도역량을 기울여 나라에 이바지함이

지극하였으므로 군인으로서 으뜸의 영예인 대한민국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을지·충무·화랑·보국 등 빛나는 무훈을 수공하였다.

후인의 기록에서 공은 초지일관 우리나라 해군에 일생을 바친 공인이지만 그는 가정에서는 원만하고 인자한 가장이었고 사회에서는 근엄하고 정직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며 군인으로서 장성으로서의 경직이나 오만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공의 소박하고 거짓 없는 인품과 성실하고 강직한 성격은 군에 몸을 담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맡은바 임무에 충실과 안전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 사랑하기를 가족과 같이 하여 세인의 신임과 존경을 한 몸에 차지했다. 공이 일생동안 염원하던 남북통일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으나 공을 기리고 경모하던 후학과 국민들이 공의 뜻을 이어받아 매진하고 있다. 묘와 묘갈비가 대흥면 노동리에 있다.

한건수(韓建洙) (1917~1994)



한건수

본관은 청주(淸州). 1917년 6월 23일(음) 예산군 봉산면 금치리에서 출생. 한숙 여사와의 사이에 1남 4녀를 두었다.

예산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조도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다음 귀국하여 비관 신문사 주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검찰위원회 초대 정보조사과장을 거쳐 홍익대학교 사무처장을 지내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 뒤 고향인 예산지방에서 제 6, 8, 9,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고 삼민회 원내총무, 신민당 원내수석부총무, 충남 도당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일본 조도전대학교 한국동창회 수석부회장과 윤봉길 및 이순신 기념사업회 부회장과 재경충남향우회 부회장, 대한민국 헌정회이사 및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건수는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이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 구도에서 야당 후보로 충남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유일하게 당선된 3명 중에 한명이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초조하게 되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1971년 12월 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1972년 10월 17일 ‘비상사태 특별선언’을 선포하여 8대 국회를 해산했다. 그리고 모든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

또 1972년 유신헌법을 확정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했다. 따라서 제8대 국회의원 선거는 1987년 민주화 이행 이전에 의미 있는 마지막 선거로 한건수는 이 선거에서 야당 의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994년 8월 5일에 타계하여 고향인 봉산면 웅안리 후록에 안장됐다.

아호는 주암(周巖), 포송(甫松), 봉암(鳳巖)등을 사용했으며 관향은 청주(淸州)이다.

백창현(白昌鉉) (1917. 6. 4~2009. 2. 11)



백창현

백창현의 본관은 수원(水原)으로 1917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에서 부(父) 백영기(아명: 백원길)와 모(母) 오계순의 사이에서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58년 11월 고등전형고시에 합격했고 예산경찰서장, 내무부 치안국 과장, 예산능금협동조합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초대의원-2대의원)을 역임했다.

백창현은 무엇보다도 학교법인 예덕학원(1967년 예산고·1978년 예산동중(현 예화여고)을 설립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평생을 심혈을 기울이면서 육영사업에 전념했다.

지난 1974년에는 향토발전과 지역의 교육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사학육성 특별공로상과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박창식(朴昌植) (1918~2003)



박창식

현대사의 격동기를 살았던 창작연극인이자 문인으로 활동했으며 4.19혁명 후 지역구 도의원으로 당선된 혁신계 정치인이었다. 본관은 밀성. 박덕문의 장자로 응봉면 송석리 37번지에서 출생했다.

‘여군사청如筠斯淸’을 좌우명으로 살았듯 청렴강직한 선생은 유년 시절 한학수학을 마치고 오가보통학교에 입학 졸업(9회), 예산의 독립운동가 김현창 선생이 다녔던 공주영명학교에 입학. 학창시절부터 문학과 예술에 소질이 있어 학예활동을 이끌었다. 졸업 후 잠시 예산제일교회에서 연극문화활동을 주도하다가 유학길에 올라 일본 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신지식과 전문성을 배웠다.

졸업 후 잠시 일본에서 활동하다 1942년 부친 사망으로 귀국하지만 이듬해 강제징용에 끌려가 해방 후 돌아왔다. 일제의 광기서린 태평양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선생은 해방 후 ‘애국운동의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연극문예활동에 입지를 더욱 다지고 ‘태극좌’라는 극단을 조직하여 ‘윤봉길연극’이란 창작극을 만들어 충남일원을 순회공연했다. 당시 연극단원이었던 이상호 선생이 현재 예산읍에 거주하고 있다. 연극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의 정서가 특징이었던 선생의 명성이 점차 높아지자 1941년 ‘예산공립실과여학교’로 설립된 현 예산여고에서 연극강사로 활동했으며 당시 함께 근무했던 윤봉길의사 동생 윤남의 선생의 구술이 전해진다. 출신 제자로는 텔런트 노현희 모친과 장동찬씨 부인이 기억되고 있다. 예산농업전문대학 이종호 학장의 구술에 의하면 1950년대 후반 홍성여고에 초임발령을 받았을 때 이미 선생이 연극문화를 가르쳤다고 한다.

한국전쟁 끝난 이듬해 1954년 민주당 창당시 입당해 예산지구당 선전부장을 지냈다.

선생은 문학에도 타고난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 1957년 예산에서 다섯 번째 동인지 『육석(肉石)』이 창간하는데 주도역할을 했다. 동인으로는 한성기 이희철 이상구 서창남 김봉한 김광회 한경구 홍성우 박병하 진인귀 최영재 김기학 이재인 박세춘 등이 참여했다. 1984년에 『무한동인회(無限同人會)』 창립에 참여하고 회장 추식을 중심으로 동인지 『무한』을 창간했다.

선생은 야당정치활동을 하면서 1960년 12월 12일 시행한 제3대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듬해 박정희가 5.16군사재판을 일으키고 정치활동을 해산중단시키고 탄압하자 항의로 맞선 선생은 경찰에 체포구금되고 5.16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대전고등군사법원에서 4년 징역형을 받았다가 1962년 1월 6개월 복역 후 출소했다. 야당정치활동을 펼치던 선생은 당시

예산경찰서장이 백창현인데 선생과 오가초등학교 동창생 관계여서 갈등과 대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자유당 말기였다. 8년간 정치활동금지를 겪었던 선생은 재야요시찰인물이었고 예산의 혁신계 인물인 이계성 신부, 개척교회 한도전 목사 등과 '민주헌정동지회'를 이끌었고 선생은 초대 예산책임자로 활동하면서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다.

1980년대 후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고문을 거쳐 1990년 제4대 도의원 선거에 출마, 낙선했지만 민주주의 대의를 잃지 않고 지역정치 발전에 헌신했던 지조와 절의를 지켰던 민주지사이기도 하다.

말년에 골동품 취미를 갖고 많은 점을 수집했지만 과거 혁신계 인물로 막역한 사이였던 주옥로가 홍성폴물학교 교장으로 있어 이 학교 역사자료로 전부 기증했다.

추사예술혼에 관심이 남달랐던 선생은 후배 박학규 한테 추사체를 전각하라고 시켜 전시회를 주관 및 후원에 큰 역할을 했고 해초 박학규의 전각예술이 태어나게 된 산실이 되었다.

2003년 10월 23일 지병으로 별세. 묘는 대술면 송석리 선영에 있다.

김윤행(金允行) (1920. 11. 16~1990. 11. 29)



김윤행 대법관



장남 김성인 교수의 졸업식장에 함께 한 김윤행



김윤행 법관에게 추서된 훈장

김윤행은 대한민국의 격동기였던 1973년부터 1980까지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위고 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김윤행은 광시공립보통학교, 공주공립중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나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광시공립보통학교(현 광시초등학교) 시절, 6년 내내 전교 수석을 놓친 일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광시지역에서 천재 소년으로 불리어졌다고 한다. 이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큰 아버지가 계속 공부를 시켰다고 한다.

김윤행이 대법관을 지냈던 시기는 국내 정치사의 큰 격동기로 그는 독재군부정치 하에서 매우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뤘던 주요 시국·인권 사건에서 군사정권에 대항하여 소수의견을 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윤행 대법관은 이러한 한국적 특수상황에서도 형사 소수의견을 7차례나 냈으며 이는 헌정 이후 역대 대법관 중 5번째로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법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김윤행은 1980년 신군부에 맞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김윤행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앞둔 8월 초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대법원을 떠나야 했다.

김윤행은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좋은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근로자가 월 평균 25일 이상 반드시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1979. 1. 30 대법78다2089)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에 있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요지)

김윤행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했다. 그는 컴퓨터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1973년 ‘컴퓨터로 양형통계를 계산해 재판에 활용하자’는 논문을 발표, 주목을 끌었다. 김윤행은 그 당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한 장남 김성인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현재 장남 김성인(65)씨는 고려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성인 교수의 가장 큰 소망은 현재 공익법무관인 아들이 복무를 마치면 함께 완결판 ‘컴퓨터 양형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친(고 김윤행 대법관)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고 김윤행 전 대법관 집안은 3대에 걸쳐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행은 1990년 11월 29일 상오 8시,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로 그의 묘는 광시면 노전리에 있다. 슬하에는 장남 김성인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4녀가 있다.

추식(秋澁, 본명 추성춘) (1920~1987)



추식

추식(秋澁) 선생은 1920년 9월에 청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일찍이 상경해 청년 시절을 독립신문 등에서 수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고향인 충청도에서 중도일보를 창간, 편집국장 겸 주필로서 활동했다. 합동통신 취재부장, 연합신문 편집부국장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 소설 <부랑아> <인간제대> <황색시인> <가시내 선생> <바다는 마르지 않는다> <왜가리> <꽃제비> 등과 영화시나리오 <견우직녀> <여관사> <바위고개>, 방송극 <동백아가씨> <마포사는 황부자> <날개부인>이 있다.

1967년 예산군 삼교읍 상성리에 본적을 두고 과수원과 목장을 경영하면서 우리고장을 무대로 향토색 짙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나옹전> <언덕위의 저 목장> <참초> 등의 소설과 <삽다리 총각> <술마루 장사> <예산 시악시> <능금이 익어갈 때> 등.

특히 <삽다리 총각>의 인기는 직장인들의 귀가를 서두르게 했으며, 그 인기에 힘입어 한 달 연장 방송까지 했다.

20여명의 향토 문인과 함께 '무한천 동인회'를 결성, 시 낭독의 밤 등을 열어 예산의 문맥을 일구고 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이항복 전 예산문화원장과 함께 추사유물전시관 건립에도 큰 역할을 했다.

“총각 총각 삽다리 총각 / 꽃산의 진달래 손짓을 하는데 / 장가는 안가고 날일만 할텐가 / 개같이 만나네 개같이 안나 / 주래뜰 논두렁 개같이 안나 / 총각 총각 삽다리 총각 / 총각 총각 삽다리 총각 / 용머리 능금이 빨갭게 익는데 / 장가는 안가고 들일만 할텐가 / 개같이 만나네 개같이 안나 / 새터말 새악시 개같이 안나 / 총각 총각 삽다리 총각”

라디오가 유일한 대중매체였던 1960년대 후반, 온 국민을 라디오 앞으로 모이게 했던 불후의 연속극 <삽다리 총각>. 50대 이상 나이라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이 드라마의 노래비가 2011년 덕산온천관광호텔입구 로터리에 세워졌다.

꽃산, 주래 뜰, 용머리 같은 삼교 지명이 그대로 반영되고, 주인공이 당시 삼교 상성리 과수원에서 일하던 실존인물이어서 예산사람들에게는 더 각별하게 기억되는 추억의 작품이다.

노래비에는 가사 전문과 함께 극본집필, 주제가 작사 작곡을 한 추식 선생에 대한 소개가 함께 새겨져있다.

추식의 장남인 추호경씨는 “아버님은 생전에 삼교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셨다. 어릴 적에 아버님과 함께 낚시를 왔었는데 ‘여기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신 뒤, 삼교 상성리 과수원으로 이사하시고는 아예 본적도 다 옮기셨다”고 추억했다.

고운봉(본명:고명득, 高明得) (1920. 2. 9~2001. 8. 1)



고운봉



덕산온천지구유 내의 선창노래비

본명은 고명득(高明得)으로, 1920년 충청남도 예산(禮山)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꾸던 중 1937년에 예산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부로 무작정 올라와 일찍부터 조선악극단에서 활동하였다.

태평레코드 문예부장 박영호를 찾아가 예명을 얻고 전속가수로 채용되었다. 곧바로 악극단 소속으로 순회공연에 참가하면서 데뷔를 준비한 끝에, 1939년에 일본에서 <국

경의 부두>를 발표하여 정식 데뷔하였다. 고운봉의 창법이 맑고 곡도 애잔한 내용이 많아 <순정가수>로 홍보되었다. <국경의 부두>와 <아들의 하소>가 알려지면서 인기 가수가 되었고, 이후 <남강의 추억> 등을 계속 히트시켰다.

1940년에는 오케레코드로 옮겼고, 이듬해 발표한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의 노래 <선창>이 공전의 인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1942년 비 내리는 쓸쓸한 부두를 배경으로 이별의 아픔을 담은 <선창>을 발표하면서 대중가요 가수로 데뷔한 뒤, <남강의 추억> <홍등야곡> <명동 블루스> <백마야 가자> <인생은 육십부터> 등 많은 노래를 불러 인기를 끌었다. 짙은 우수가 깔려 있으면서도 깔끔하고 점잖은 창법과 적당한 울림으로 깊은 호소력을 발휘한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말년까지도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쉬지 않았다.

1998년 한국 가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옥관문화훈장을 받았고, 2000년 6월에는 고향인 예산군 덕산온천지구 안에 '선창노래비'가 세워졌다. 2001년 8월 1일 노환에 따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종성(李鍾聲) (1924~1995)



이종성

호는 청운(靑雲) 본관은 전의이며 1924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과동 382번지에서 부 이기세 모 김재윤의 독자로 태어났다. 부친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전에서 제2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전공립중학교를 다녔다. 이어 1942년에 경성관립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고 1944년 졸업하였다.

1945년 2월 용산 22부대에 징집되었으나 광복되자 귀가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대전지방검찰청 서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1947년 오숙근(해주 오씨)과 결혼하였다. 그 후 중앙청 법무부, 비서실, 대전지방 검찰청 회계과장, 법무부 경리과장을 거치고 1953년 고등전형시험에 합격하였다.

1955년 법무부 총무과장, 재무부 총무과장, 어정과장을 거쳐 내무부 총무과장으로 전근되었고 이어 토목행정과장을 끝으로 1960년 공무원에서 퇴임하였다.

1964년 사업가로 변신하여 조선맥주 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고 1968년 국안방적전무이사로 취임 후 1970년 이 회사를 인수하여 충남방적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여 충남방적의 시대를 맞게 된다. 1972년 천안상공회의소 회장 피선, 1973년 충남직물을 설립하고 이어 우일산업 인수, 수덕운수를 설립하고 그 해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이어 국내 최초의 산업체 부설학교를 설립(충남방적 부설 전수학교)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1974년 한국반공연맹충남지부장에 피선되었고 그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75년 11월에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여 그의 기업경영에 대한 공로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1976년 대성모방을 인수하고 이어 한흥증권을 인수하였으며 그해 12월 충남방적을 공개하였다. 정방 132,080추 직기 1,100대의 대규모 기계설비와 자본금 470억의 명실상부한 국내 유수의 방적공장으로 성장한 결과였다.

그 재력으로 1976년 11월 1일 신례원에 예산공장을 준공하여 예산지역 경제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정방기 132,080추, 직기 1,100대 규모였다. 77년 충남방적부설 실업중고등학교 정식인가를 받았고 한일건설공사를 인수하고 3월 25일 (주)충방을 설립하였다.

5월 공장 새마을운동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1978년 1억불 탑을

수상하고 79년 대전공장 준공(정방기 303,846추, 직기 2,700대) 그해 2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80년 충남방적그룹 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정치계에 입문하여 1981년 한국국민당 창당 전당대회장에 피선되었고 예산에서 1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국민당으로 당선이 되었으며 그해 혜전전문대를 설립하였다. 1983년 국민당 부총재로 피선되어 정치중견인이 되었으나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에 낙선하자 정치에서 물러나 충남방적그룹 회장으로 사업에만 전념하였고 1994년 홍성에 충남산업대를 설립하였다. 1995년 12월 17일 별세하였다. 그의 묘는 덕산면 복당리에 있다.

박병선(朴炳善) (1925~1995)



박병선

1925년 12월 25일 예산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추연(秋淵)이다. 예산보통학교(24회)를 졸업하였다. 서울 소재 중동중학교를 거쳐 일본(山口)의대에 다니다 광복되어 조국에 돌아온 후 1948년 서울의대(3회)를 졸업하였고 이어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제1외과 수련의 및 전문과정을 마쳤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의사의 부족은 절대적이었다. 1951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전상자를 치료하였으며 거기에서 닦은 의술은 개업의로서 훗날 큰 경험이 되었다. 1957년 6년 여를 복무하던 군에서 중령으로 예편하고 예산에서 박외과 의원을 개원하여 지역민의 질병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가난한 지역민에게 무료진료도 베풀고 무의촌에 대한 순회무료봉사와 군 공중보건의를 맡아 군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향토문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1955년 예산문화원 창립 때 군에 있으면서도 많은 후원을 하였고 박외과를 개원하고는 직접 참여하여 1961년 3대 예산문화원장에 선임되어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는 1967년 7대 국회의원에 공화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인술로 닦은 기반과 조직에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익힐 시간도 없이 선거소송에 휘말려 임기 말인 70년 12월 24일 선거소송에서 패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는 정치에서 본연의 전문의료인으로 돌아와 보다 더 적극적인 의료사업을 하고 인술로 베푼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정치에 대한 그의 열망은 식지 않아 1988년 신민주공화당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야말로 20여 년만의 재도전이였다. 신민주공화당의 녹색바람으로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는 야당으로 당선되었으나 당이 3당 합당으로 여당국회의원이 되어 보사분과의원을 맡았다. 그러나 1992년 자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민당으로 재도전했으나 낙선하였다.

국회의원 재직 시 보사분과의원으로서 1967년에 경제개발에 따른 공해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공해방지법을 개정 발의하여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법에 따라 한국공해방지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에 취임하였다. 14대 국회에서도 국민건강과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법활동을 하였다.

1992년 낙선 후 조용히 여생을 보내던 그는 1995년 2월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는 당진군 면천면에 있으며 박외과 의원은 아들 호규(虎圭)가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김상식(金尙植) (1932~미상)



김상식

다두(茶斗) 김상식은 1932년 삼다리 주래에서 태어나 1959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이스라엘 국제개발연구원을 수료했다.

1958년 카톨릭시보 공모 순교 100주년 기념에 희곡 '이름없는 꽃들'이 당선되어 드라마 센터에서 2주간 공연되었으며 시집 '하느님 미안해요', 제2시집 '날으고 싶어라'를 발표하고 문학활동을 하였음.

插橋川

아침 들에 안개 끼고
平野는 우유 빛 바다

가야산(伽倻山)은 꿈을 깨어
창포에 머리 감은 처녀
종달새 노래 머리에 이고
아낙은 들로 나간다.

江가에 지저귀는 새들
오늘은 1977년 5월 10일

插橋川 강줄기 천년을 흘러
늪은 處女인양 이제야 꿈을 잉태하다.

(제1시집 「하느님 미안해요」에서)

조종석(趙鐘奭) (1932~2005)

신암면 용궁리에서 출생. 예산농업고등학교를 거쳐 1959년 건국대 법대, 1961년 경찰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1991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1992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경력은 1974년 서울시 종로경찰서장(총경), 1977년 서울시경 경무과장, 1981년 치안본부 인사과장(경무관), 1982년 전라남도 경찰국장, 1985년 해양경찰대장(치안감), 1986년 경기도 경찰국장, 1987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치안정감), 1988년 치안본부장(치안총감)을 역임했다. 1990년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대한응변인협회 총재, 예산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장, 1991년 예산농촌경제개발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1996년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예산군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상훈은 1968년 근정포장을 비롯하여 5등 보국훈장, 녹조근정포장,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포장, 보국훈장(국선장), 1989년 황조근정포장(올림픽유공) 등을 수상했다. 부인 이설구 여사 사이에 1남 2녀을 둔바, 아들 조정원은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네덜란드 공사로 재임하고 있다.

예산군 역대 관서장



예산군 역대 군수

代數	직책	성명	재임기간
1	예산군수	강대철(姜大喆)	1945. 11. 15 ~ 1947. 03. 31
2	"	김기정(金箕貞)	1947. 04. 01 ~ 1947. 10. 20
3	"	박주철(朴柱喆)	1947. 10. 21 ~ 1948. 10. 31
4	"	한창희(韓昌熙)	1948. 11. 01 ~ 1952. 03. 25
5	"	권병식(權丙軾)	1952. 03. 26 ~ 1952. 10. 29
6	"	서형선(徐亨善)	1952. 10. 30 ~ 1953. 12. 09
7	"	김지환(金址煥)	1953. 12. 10 ~ 1955. 07. 20
8	"	이택노(李澤魯)	1955. 07. 21 ~ 1956. 07. 15
9	"	박유진(朴有鎭)	1956. 07. 16 ~ 1959. 01. 24
10	"	이원양(李源亮)	1959. 01. 25 ~ 1959. 10. 16
11	"	정범호(鄭範好)	1959. 10. 17 ~ 1960. 05. 19
12	"	송영갑(宋榮甲)	1960. 05. 20 ~ 1960. 06. 25
13	"	인중배(印重培)	1960. 06. 26 ~ 1960. 11. 24
14	"	박병기(朴丙驥)	1960. 11. 25 ~ 1961. 07. 16
15	"	이범승(李範繩)	1961. 07. 17 ~ 1964. 03. 25
16	"	정만택(鄭萬澤)	1964. 03. 26 ~ 1965. 09. 12
17	"	최상영(崔相玲)	1965. 09. 13 ~ 1967. 12. 04
18	"	박재복(朴載福)	1967. 12. 05 ~ 1970. 03. 04
19	"	이승규(李承圭)	1970. 03. 05 ~ 1971. 08. 19
20	"	송우빈(宋佑彬)	1971. 08. 20 ~ 1973. 05. 06
21	"	김완중(金完鍾)	1973. 05. 07 ~ 1974. 07. 31
22	"	이기영(李紀榮)	1974. 08. 01 ~ 1976. 03. 18
23	"	이진봉(李鎭鳳)	1976. 03. 19 ~ 1979. 07. 05
24	"	김용성(金容聲)	1979. 07. 06 ~ 1980. 08. 28
25	"	박천수(朴千洙)	1980. 03. 29 ~ 1981. 12. 22
26	"	김건배(金建培)	1981. 12. 23 ~ 1982. 09. 17
27	"	채규정(蔡奎晶)	1982. 09. 18 ~ 1985. 03. 10
28	"	이정우(李正雨)	1985. 03. 11 ~ 1986. 03. 07
29	"	박승선(朴勝瑄)	1986. 03. 08 ~ 1987. 09. 10
30	"	박중순(朴鍾淳)	1987. 09. 11 ~ 1988. 06. 10
31	"	송일영(宋日永)	1988. 06. 11 ~ 1988. 12. 31
32	"	류덕현(柳德鉉)	1989. 01. 10 ~ 1989. 12. 26
33	"	권오창(權五昌)	1989. 12. 27 ~ 1991. 01. 13
34	"	박중순(朴鍾淳)	1991. 01. 14 ~ 1993. 03. 28
35	"	정동기(鄭同基)	1993. 03. 29 ~ 1994. 05. 03
36	"	이인화(李仁禾)	1994. 05. 04 ~ 1994. 12. 31
37	"	장우용(張禹鎔)	1995. 01. 01 ~ 1995. 06. 30
38	"	권오창(權五昌)	1995. 07. 01 ~ 1998. 06. 30
39	"	권오창(權五昌)	1998. 07. 01 ~ 2002. 06. 30
40	"	박중순(朴鍾淳)	2002. 07. 01 ~ 2006. 06. 30
41	"	최승우(崔昇佑)	2006. 07. 01 ~ 2010. 06. 30
42	"	최승우(崔昇佑)	2010. 07. 01 ~ 현재

예산군 역대 국회의원

代數	직책	성명	재임기간
1대	제헌 국회의원	윤병구	1948. 05. 31 ~ 1950. 05. 30
2대	국회의원	박철규	1950. 05. 31 ~ 1954. 05. 30
3대	국회의원(민의원)	성원경	1954. 05. 31 ~ 1958. 05. 30
4대	국회의원(민의원)	윤병구	1958. 05. 31 ~ 1960. 07. 28
5대	국회의원(민의원)	성원경	1960. 07. 29 ~ 1961. 05. 16
"	국회의원(1부 참의원)	심종석, 이범승, 이범석	1960. 07. 29 ~ 1961. 05. 16
"	국회의원(2부 참의원)	이훈구, 정공모, 한광석	1960. 07. 29 ~ 1961. 05. 16
6대	국회의원	한건수	1963. 12. 17 ~ 1967. 06. 30
7대	"	박병선	1967. 07. 01 ~ 1971. 06. 30
8대	"	한건수	1971. 07. 01 ~ 1972. 10. 17
9대	"	장영순, 한건수	1973. 03. 12 ~ 1979. 03. 11
10대	"	장영순, 한건수	1979. 03. 12 ~ 1980. 10. 27
11대	"	이종성, 최창규	1981. 04. 11 ~ 1985. 04. 10
12대	"	최창규, 김성식	1985. 04. 11 ~ 1988. 05. 29
13대	"	박병선	1988. 05. 30 ~ 1992. 05. 29
14대	"	오장섭	1992. 05. 30 ~ 1996. 05. 29
15대	"	오장섭	1996. 05. 30 ~ 2000. 05. 29
16대	"	오장섭	2000. 05. 30 ~ 2004. 05. 29
17대	"	홍문표	2004. 05. 30 ~ 2008. 05. 29
18대	"	이회창	2008. 05. 30 ~ 현재

예산군 역대 군의회 의장

代數	직책	성명	재임기간
초대	초대 의장	김종두	1991. 04. 15 ~ 1995. 06. 30
2대	전반기 의장	엄태룡	1995. 07. 01 ~ 1997. 01. 10
	후반기 의장	박순환	1997. 01. 11 ~ 1998. 06. 30
3대	전반기 의장	박상문	1998. 07. 01 ~ 1999. 06. 30
	후반기 의장	김영현	1999. 07. 01 ~ 2002. 06. 30
4대	전, 후반기 의장	이회운	2002. 07. 01 ~ 2006. 06. 30
5대	전, 후반기 의장	권국상	2006. 07. 01 ~ 2010. 06. 30
6대	전반기 의장	김석기	2010. 07. 01 ~ 현재

예산군 역대 경찰서장

代數	직책	계급	성명(한자)	재임기간
1	경찰서장	경 감	송일성(宋日成)	1945. 09. 10 ~ 1946. 05. 12
2	"	"	서겸순(徐謙淳)	1946. 05. 12 ~ 1947. 08. 03
3	"	"	김종대(金鍾大)	1947. 08. 03 ~ 1948. 08. 17
4	"	"	연성희(延成熙)	1948. 08. 17 ~ 1949. 03. 18
5	"	"	김종걸(金鍾杰)	1949. 03. 18 ~ 1950. 02. 05
6	"	"	이세환(李世煥)	1950. 02. 05 ~ 1950. 07. 09
7	"	"	유기주(柳冀周)	1950. 07. 09 ~ 1951. 02. 08
8	"	"	최중호(崔重浩)	1951. 02. 08 ~ 1952. 03. 19
9	"	"	김인진(金麟鎭)	1952. 03. 19 ~ 1953. 11. 04
10	"	"	조원승(趙源勝)	1953. 11. 04 ~ 1955. 08. 23
11	"	"	한정석(韓貞錫)	1955. 08. 23 ~ 1957. 03. 18
12	"	"	정동섭(鄭東燮)	1957. 03. 18 ~ 1958. 04. 04
13	"	"	백창현(白昌鉉)	1958. 04. 04 ~ 1959. 12. 08
14	"	"	유기주(柳冀周)	1959. 12. 08 ~ 1960. 05. 11
15	"	"	김진국(金振國)	1960. 05. 11 ~ 1960. 09. 28
16	"	"	유근석(柳根奭)	1960. 09. 28 ~ 1961. 06. 23
17	"	"	김진국(金振國)	1961. 06. 23 ~ 1961. 08. 18
18	"	"	이흥세(李興世)	1961. 08. 18 ~ 1962. 08. 14
19	경찰서장	경감	황상철(黃相徹)	1962. 08. 14 ~ 1963. 06. 06
20	"	"	유재선(柳在善)	1963. 06. 06 ~ 1964. 04. 24
21	"	"	박순도(朴順道)	1964. 04. 24 ~ 1966. 06. 01
22	"	"	홍세기(洪世基)	1966. 06. 01 ~ 1967. 10. 12
23	"	"	최종열(崔鍾烈)	1967. 10. 12 ~ 1969. 01. 15
24	"	총경	이석중(李碩鍾)	1969. 01. 16 ~ 1970. 03. 05
25	"	경정	유재선(柳在善)	1970. 03. 05 ~ 1970. 06. 22
26	"	총경	노일래(盧一來)	1970. 06. 22 ~ 1971. 08. 18
27	"	"	정평모(鄭平模)	1971. 08. 18 ~ 1972. 07. 25
28	"	"	김진국(金振國)	1972. 07. 25 ~ 1973. 06. 27
29	"	"	황두식(黃斗植)	1973. 06. 27 ~ 1975. 06. 28
30	"	경정	박제돈(朴濟惇)	1975. 06. 28 ~ 1976. 04. 10
31	"	총경	윤종건(尹鍾建)	1976. 04. 10 ~ 1979. 02. 20
32	"	"	신영열(申泳烈)	1979. 02. 20 ~ 1980. 07. 22
33	"	"	오창열(吳昌烈)	1980. 07. 23 ~ 1980. 11. 13
34	"	"	맹태호(孟泰鎬)	1980. 11. 13 ~ 1981. 11. 26
35	"	"	구자동(具滋東)	1981. 11. 26 ~ 1983. 12. 12
36	"	"	류은현(柳銀鉉)	1983. 12. 12 ~ 1985. 06. 27
37	"	"	주순명(朱淳明)	1985. 06. 27 ~ 1987. 01. 15
38	"	"	이종원(李鍾元)	1987. 01. 15 ~ 1988. 06. 03
39	"	"	조동규(趙東奎)	1988. 06. 04 ~ 1989. 03. 01
40	"	"	이정길(李貞吉)	1989. 03. 01 ~ 1990. 02. 16
41	"	"	조덕호(趙德浩)	1990. 02. 16 ~ 1991. 01. 03

代數	직책	계급	성명(한자)	재임기간
42	"	"	이교민(李敎敏)	1991. 01. 03 ~ 1992. 07. 29
43	"	"	박우신(朴禹信)	1992. 07. 29 ~ 1993. 11. 08
44	"	"	최병일(崔炳一)	1993. 11. 08 ~ 1995. 07. 12
45	"	"	박광현(朴光玄)	1995. 07. 12 ~ 1997. 01. 11
46	"	"	황운모(黃雲母)	1997. 01. 11 ~ 1998. 03. 23
47	"	"	신동곤(申東坤)	1998. 03. 24 ~ 1999. 07. 17
48	"	"	이종기(李鍾起)	1999. 07. 17 ~ 2000. 07. 05
49	"	"	양우석(楊祐錫)	2000. 07. 05 ~ 2001. 07. 02
50	"	"	김윤옥(金允玉)	2001. 07. 02 ~ 2002. 07. 15
51	"	"	박병윤(朴炳允)	2002. 07. 16 ~ 2003. 07. 16
52	"	"	이국진(李國鎭)	2003. 07. 16 ~ 2005. 02. 03
53	"	"	한달우	2005. 02. 03 ~ 2006. 03. 06
54	"	"	김양제(金亮濟)	2006. 03. 07 ~ 2007. 07. 01
55	"	"	이병환(李秉煥)	2007. 07. 02 ~ 2008. 07. 12
56	"	"	위득량(魏得良)	2008. 07. 13 ~ 2009. 07. 13
57	"	"	홍덕기(洪德基)	2009. 07. 14 ~ 2011. 01. 09
58	"	"	최인규(崔仁圭)	2011. 01. 10 ~ 현재

예산군 역대 문화원장

代數	직책	성명	재임기간
1	문화원장	장영복	1955. 10. 15 ~ 1957. 12. 31
2	"	김경환	1958. 01. 01 ~ 1961. 12. 31
3	"	박병선	1962. 01. 01 ~ 1963. 12. 31
4	"	장영복	1964. 01. 01 ~ 1965. 05. 24
5	"	서창재	1965. 05. 25 ~ 1978. 02. 28
6~10	"	이항복	1978. 03. 01 ~ 1995. 07. 16
11~12	"	이지호	1995. 07. 17 ~ 2004. 11. 11
13	"	이진자	2004. 11. 12 ~ 2006. 06. 30
14	"	이용면	2006. 07. 01 ~ 2008. 11. 10
15	"	김시운	2008. 11. 11 ~ 현재

예산군 역대 교육장

代數	직 책	성명	재임기간
1	교육장	성 낙 창	1952. 08 ~ 1953. 02
2~3	"	김 문 환	1953. 02 ~ 1960. 05
4	"	박 승 원	1960. 05 ~ 1961. 12
5	"	안 병 룡	1962. 01 ~ 1964. 03
6	"	이 정 룡	1964. 03 ~ 1965. 03
7	"	김 한 수	1965. 03 ~ 1968. 03
8	"	이 민 금	1968. 03 ~ 1970. 12
9	"	조 성 호	1971. 01 ~ 1972. 08
10	"	문 체 친	1972. 09 ~ 1976. 08
11	"	한 영 호	1976. 09 ~ 1977. 02
12	"	서 만 석	1977. 03 ~ 1979. 02
13	"	이 석 기	1979. 03 ~ 1981. 02
14	"	최 익 호	1981. 03 ~ 1983. 08
15	"	김 동 신	1983. 09 ~ 1985. 08
16	"	이 영 복	1985. 09 ~ 1989. 02
17	"	이 영 복	1989. 03 ~ 1991. 02
18	"	한 용 우	1991. 03 ~ 1993. 02
19	"	백 인 기	1993. 03 ~ 1996. 08
20	"	김 수 친	1996. 09 ~ 1998. 08
21	"	송 호 경	1998. 09 ~ 1999. 08
22	"	박 영 세	1999. 09 ~ 2000. 08
23	"	송 규 행	2000. 09 ~ 2001. 08
24	"	윤 철 중	2001. 09 ~ 2003. 08
25	"	이 중 학	2003. 09 ~ 2005. 02
26	"	이 병 학	2005. 03 ~ 2007. 02
27	"	오 춘 근	2007. 03 ~ 2008. 08
28	"	김 동 국	2008. 09 ~ 2009. 02
29	"	김 중 기	2009. 03 ~ 2010. 08
30	"	이 명 호	2010. 09 ~ 현재

예산의 인물

발행일 2010년 12월 31일
발행처 예산문화원
발행인 김시운
편집위원 전용국, 송재철, 박병하, 김문희
강희진, 박성목, 정재봉
제작기획 박세진, 김상희
주소 340-8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T.041)335-2441 F.041)334-4330
<http://yesan.cult21.or.kr>
편집/인쇄 포인트가드(T.02)6677-5224

이 책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禮山의 人物

2010 향토민속 발굴 사업

예산의 인물



예산문화원

340-8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선번로 90번길 3
전화 041) 333-2441, 335-2441 팩스 041) 334-4330
<http://yesan.cult21.or.kr>